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7월 28일(음력6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484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호화 납골묘 '매장' 시킨다

장사제도 개선위 구성

호화납골묘 제한 등 장사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불교계 납골 시설 및 문화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공동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하고,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시켰다.

추진위원회는 △친환경적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사제도 개발 △매장 억제 및 화장 · 납골문화 정착을

친환경제도 개발
정책 제시 등 활동
교계 적극 참여 필요

위한 방안 마련 △화장장 · 납골시설 등 설치제한 지역 완화 △납골시설 모형개발 등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올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추진위원회는 '장사제도개선추진단(단장 변철식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아래 '제도개선총괄분과위원회' '장사시설확충모형개발분과위원회' '장사시설설치지역완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과제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의철 사무관은 "각종 공청회 등을 거쳐 장사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골묘 허용 면적을 줄이거나 석재 등 부속물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남민이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객원교수는 "사안에 따라 불교계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사찰축제 기획 잘하면 '대박'

지자체, 중요한 문화콘텐츠 인식 … 예산지원 1순위

문화살리기 · 관객참여 · 전문화 등이 관건

원효와 의상이 절을 세운 뒤 술한 사람들이 전설을 남긴 벽지 산골에 위치한 경북 봉화 청량사. 이제 청량사는 더 이상 오지에 위치한 육지속의 섬이 아니다. 6년 전부터 국내 사찰로는 처음으로 시작한 '산사음악회' 덕분이다.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면 지역민들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관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그래서 '봉화'는 몰라도 '청량사'는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찰 문화 축제가 해당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홍보창구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냉담했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 하고 있다.

문화기획사인 '메타 스튜디오'측은 "크고 작은 지역축제를 포함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400여개의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올해 후원명칭을 허용하거나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한 지역 문화행사만도 50여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귀띔한다.

지역축제의 홍수 속에 지자체의 후원을 받는 사찰 축제는 김제 청운사 백련축제,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영주 부석사 화엄축제, 양평 사나사 태고보우 추대의식 국사재현, 하동 쌍계사의 차(茶)축제, 해남 미황사와 공주 영평사, 공주 갑사, 남해 화방사의 산사 음악회 등 20여개에 이른다.

최근 산사음악회를 중심으로 한 사찰 문화 축제가 주5일 근무제를 맞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곳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지난해 시작해 올해 5월 두 번째 행사를 치른 화엄축제의 경우, 날이 갈수록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과 함께 지원금도 늘고 있다.

실제로 첫 해에는 영주시에서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에는 영주시의 후원금에다 경북도청, 문화관광부의 후원금까지 대략 7천만원 정도의 후원을 받았다.

그 비결은 축제 기획 단계부터 마당놀이 연출가 손진책씨(극단 미추 대표)와 같은 영향력 있는 문화 전문가와 지역 문화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부석사 창건주인 의상대사를 기리는 창작극 '의상'과 다례제, 문학제, 탁본체험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부석사 총무 도륜 스님은 "올해 6월 영주시에서 지역 축제에 대한 평가조사를 대학에 의뢰했는데 화엄축제가 그동안 영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인삼축제를 제치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축제로 평가받았다"며 "영주시로부터 내년에는 예산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통고 받았다"고 말했다.

태고보우 스님의 열반지 양평 사나사도 지자체의 협조가 활발하다. 지난해 10월 열린 산사음악회와 태고보우 국사 추대 의식 재현 행사에는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철도청에서 행사 당일 청량리에서 양평까지 특별 열차를 배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7월 31일 올해로 두 번째 '숲속 생명 사랑 산사음악회'를 여는 남해 화방사 역시 남해군으로부터 총 예산의 4분의 1을 지원받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찰 지역축제는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돼 사찰이 장소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열리는가 하면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 후원을 받아 사찰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 후원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더 많다. 초창기 의욕을 가지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 축제를 마련했던 사찰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회성 행사로 마치는 경우도 있다.

영주시청 문화관광과 곽형렬 계장은 "지역축제는 짧은 시간에 해당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눈독을 들이는 가장 큰 홍보수단"이라며 "특히 고즈넉한 산사에서 열리는 사찰 축제는 주 5일근무제를 맞이해 관광적인 측면과 함께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열반의 미소 … 나란히 친견하세요

국보 78 · 83호 특별전

7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78호(오른쪽) · 83호 금동반가사유상 특별전시회'가 막을 올렸다. 80평 규모의 대형 전시실에는 두 반가사유상이 자리를 함께해 열반의 미소와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다. 6~7세기 경에 조성된 이들 두 반가사유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1988년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전 개관기념전시' 이후 16년만의 일.

국립중앙박물관의 경복궁시대 마감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특별전은 10월 17일까지 계속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헌혈이 최고 보시"

불국토 설립 10주년을 맞아 7월 20일 봉사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혈병 심장병 어린이 돕기 헌혈 행사를 열었다. 불국토 직원들이 헌혈을 마친 뒤 헌혈 증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천미희 기자**

불교출판문화협의회

발족 준비위원회 가동

1990년대 초 결성됐으나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던 '불교출판인협의회(이후 불출협)'가 '불교출판문화협의회(가칭)'로 탈바꿈하고 출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

불교 출판사 관계자들은 7월 20일 현대불교 지하 사랑방에서 모임을 갖고 '불교출판문화협의회 발족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번 협의회 결성은 불교 출판사뿐만 아니라 서점, 필자, 디자이너 등 출판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를 포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준비위원에는 민족사 윤창화 대표, 여시아문 조동규 부장, 조계종출판사 문종남 부장 등 10명이 선정됐다.

윤창화 대표는 "앞으로 출판물의 공동 기획과 홍보, 인터넷 사업, 영업 대행사업 및 물류 일원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도윤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불교서적전문출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스님이야기



홀로 피었다가 홀로 지지만 그 향기만은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전해지는 들꽃같은 스님들 85명의 진솔한 수행일화

이 책은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사를 여과없이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님들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 이야기가 감칠맛나는 문체에 녹아 있어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청정한 스님들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해 주는 힘이며,
이러한 스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자들은 살 맛이 나고 희망을 갖게 된다.
- 현대불교신문 기사 중에서 -



지묵 스님 외 14인 지음 | 신국판 | 448쪽 | 12,000원 | 여시아문

책에 나오는 스님들 - 무소유의 큰 스승 **법정** 스님 / 20년 장좌불와 **자유** 스님 / 사찰안내의 '원조' **인암** 스님 / 분별 · 시비심 끊어진 **정화** 스님 /집착하지도 떠나지도 않는 **현장** 스님 / 열정의 인권운동가 **진관** 스님 / 한결같은 인욕 · 하심 **지월** 스님 / 수행자로서의 투철한 삶 **홍법** 스님 / 후덕한 주지 **혜성** 스님 / '산 거지' 자처 **정우** 스님 / 햇차 같이 샤프한 **여연** 스님 / 병든 처사 헌신적으로 돌본 **묘운** 스님 / 옷 한 벌이 전 재산 **진공** 스님 / 진정한 무술 고수 **대오** 스님 / '가야산 호랑이' **정원** 스님 / 냉정함과 따뜻함의 조화 **종진** 스님 / '화엄신장' 같은 고참 수좌 **증천** 스님 / 효심 지극한 **현진** 스님 / 중앙승가대 정규大 인가 앞장 **금정** 스님 / 理事 투루 밝은 **원타** 스님 / 불교문학 발전 견인차 **해관** 스님 / '생명나누기 실천교육 20년 **종실** 스님 / 뜨거운 피 · 절절한 가슴 **혜조** 스님 / 영원한 선지식 **고송** 스님 / '뿌리깊은 나무' **종범** 스님 / '공포의 목침할배' **정하** 스님 / 결제 땐 면벽, 해제 땐 기도 **법현** 스님 / 해조음처럼 편안한 **허운** 스님 / 가슴 뜨거운 소신파 **현담** 스님 / 운문인들의 귀감 **홍륜** 스님 / 운문도량 '지킴이' **일진** 스님 / 주관 뚜렷한 노력파 **해원** 스님 / 감각 뛰어나고 재주 많은 **정안** 스님 / 물 흐르듯 거침없는 말과 글 **자목** 스님 / 방황과 갈등 '공부'로 승화 **불굴** 스님 / 해제 · 결제 따로 없는 **일선** 스님 /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 **향산** 스님 / 효성 지극한 목연수화 **환기** 스님 / 소탈해서 더욱 빛나는 **현봉** 스님 / 자애로운 눈빛, 맑은 미소 **효명** 스님 / 따뜻한 마음, 깔끔한 강의 **일초** 스님 / 장좌불와 · 일종식 계속 **금산** 스님 / '불교문화유산 지킴이' **홍선** 스님 / 나서면 '만사형통' **자용** 스님 / 농사짓고 공부하고 **관문** 스님 / 병자의 슬픔 · 고통 함께 **지홍** 스님 / 사회변혁운동 앞장 **유묵** 스님 / '1등 포교사' **홍도** 스님 / 전형적인 수행자로 일관 **서암** 스님 / 남다른 문학적 재능 **원철** 스님 / 전법제일 '부루나'의 후예 **현원** 스님 / 군포교 헌신 **성광** 스님 / 산새 · 짐승들과 교감 **정호** 스님 / 언제나 반듯한 수행자 **현덕** 스님 / 끝없이 차 공양 **우진** 스님 / '이상적 도심포교당' 계획 **지태** 스님 / 미소 잃지 않는 '자비보살' **만초** 스님 / 서릿발 같은 기상 **현근** 스님 / 90세에도 어디든 가서 법문 **호명** 스님 / 호거산처럼 넉넉한 품 **명성** 스님 / 기도정진과 이타행 **행문** 스님 / 병고를 인욕으로 승화 **자우** 스님 / 늘 초발심으로 정진 **설송** 스님 / 삶의 따스함 가르쳐 준 **법인** 스님 / 오롯이 한 길 매진 **미산** 스님 / 자상한 탁마의 도반 **상묵** 스님 / 덕승산 가풍의 계승자 **보리** 스님 / 도시로 입산한 '만능인' **덕신** 스님 / 수덕사 '터줏대감' **영수** 스님 / 당당한 출가인의 표상 **회광** 스님 / 언제나 젊은 마음자리 **수암** 스님 / 굴삭기 운전하며 불사 **금강** 스님 / 급함 · 욕심 · 시비 없는 **성전** 스님 / 깐깐함과 자상함의 조화 **효명** 스님 / 마음까지도 다 주는 **석두** 스님 / 속명을 불명으로 **대석** 스님 / 계으름 허용 않는 **자산** 스님 / 만날 때마다 깊어지는 수행 **대공** 스님 / '몸 아픈것도 내 탓' **영호** 스님 / '수행자의 여법함' 보여준 **원타** 스님 / 학문에 남다른 열정 **성원** 스님 / 만날 때마다 순수함 더하는 **영각** 스님 / '불사佛事 제일' **자문** 스님 / 도심포교의 베테랑 **회휴** 스님 / 청소년 포교 중요성 알려 준 **목주** 스님



결집력 · 추진력 약한 불교계

우리 불교도들의 결집력과 추진력이 미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병의 하나다.

그 병의 원인은 불교가 스스로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방법이 구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불교계는 큰 사건이 터져도 제대로 한 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 점은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타종교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가 느껴진다.

1970년대부터 민족복음화 운동을 목표로 전방위적 선교활동을 벌인 개신교는 교류와 협의, 지원 등을 공유하면서 반정부 운동 학생과 일반지도자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신도로 만들어 나아갔다. 반면 불교는 승단의 간단없는 분쟁으로 근심의 나날이었고, 분쟁에 매달리다 보니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어려웠다. 심지어 '민중불교운동'이라는 작으나 큰 불꽃마저도 살려내지 못했다. 그러한 결과 지금은 내세울 불자가 별로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출 · 재가 적극적 의사표현 필요
'포교' 사명 아래 힘 모으기 시급

이제는 '불교도의 힘 모으기'가 필요하다. 불교계에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0만 신도를 자랑하는 불교계가 그간 이나라 최대 종교라고 떠들던 시대가 지났다는 현실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불교계가 결집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전향적 사고와 지도력이 요구된다. 불교의 발전과 힘의 구축, 응집력을 갖추는 데에는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들은 재가불자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활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포교 제일주의'여야 한다. 스님들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법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불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력을 기르는 것은 오늘날 불자들의 책무인 것이다.

셋째, 대승 보살 불교가 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적, 정치적 사회적 불교 소외현상은 우리 불교계가, 아니 스님들이 재가 불자들(신도회, 청년회 등)을 가사 장삼 속에 가두어두고만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심사숙고해 볼 일이다.

넷째, 불교 회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개신교가 YMCA, YWCA 등 설립해 노동, 농어촌, 빈민 운동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을 배워야 한다. 앞으로 전국 각 지역에 불교회관이나 청년회관이 마련해, 그곳에서 포교와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보시와 삼보정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교도간 결집력을 높일 수 있고, 사회문제에 불교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힘은 말에 있지 않다. 오로지 현장에서 행동하고,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보다 많은 결집과 추진동력은 관리와 동기부여에 따른 설득력을 가진 지도력에 있다. ■ 배영진(대한불교청년회 지도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봉사활동 정부지원 받는다

정부,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초안 내놔…불교계도 준비

정부가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을 입안, 7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초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제정 논의가 있은 지 10년만이다.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불교계를 비롯 관련 단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이번 법안의 핵심은 봉사자 및 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적 지원 및 예산, 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봉사자 보호 차원의 상해보험제도 도입 △봉사단체 출연 기금의 조세감면 △국가 및 지자체의 봉사센터 설립시 국 · 공유 재산 무상사용 등 굵직한 지원책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체계적인 지원 틀을 갖춘 셈이다.

조직적인 봉사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둬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 제도개선 등을 맡게 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자원봉사협회가 중심축으로 서게 했다. 또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이 운영케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봉사자 교육, 파견, 보상, 재교육 등 불교계 자원봉사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교계의 준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범종단 차원의 봉사단체가 없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서 지역 봉사센터의 운영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못 박은 것과 관련, 불교계는 마땅한 지역 단위 복지법인체가 없어 '그림의 떡'이다. 또 센터를 운영할 전문 지도자급 인사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불교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범종단적 '불교봉사단체협의회'를 조속히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존 불교계 복지법인 및 봉사관련 단체의 인적 · 물적 자원 및 현황을 파악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자원봉사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불교계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복지법인, 산하 위탁복지관, 조건부 시설 등 정부의 허가 기준과 상관없이 전폭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지원 대상 범위를 복지시설, 봉사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관을 총망라해야만, '생식내기식' 법안이 되지 않는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로 불교계는 물론 국가 차원에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관계법 개정 노력할 것"
우리당 불자의원 법장스님 예방

열린우리당 권선택, 김영주, 오영식, 이광재, 이영호, 이은영, 최재성 의원 등 7명은 7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조계종에서 최근 각 정당에 요청하고 있는 불교관계 국가법률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의원들은 불교계 현안인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선원 직능의원에 종열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보궐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선원) 보궐선거에서 종열 스님(前 총무원 호법부장)이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0차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선원 직능대표에 종열 스님을 선출했다. 종열 스님은 1965년 사미계, 75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여수 한산사, 구례 화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포교사 101명 복권
조계종, 봉은사서 연수

조계종 포교원이 '일반포교사 자격복권자 연수회'를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강남 봉은사 보우당에서 개최했다.

자격복권자 연수회는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 동안 포교사 자격을 갱신하지 못해 포교 활동을 벌이지 못하거나 자격을 정지 받은 역량 있는 포교사들 중 신청에 한에 포교사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포교부장 일관 스님, 포교국장 선웅 스님,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을 비롯한 5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01명의 일반포교사들이 자격을 복권했다. 김은경 기자

"전문습의사 제도 필요하다"
조계종, 율원장 간담회서 공감
9월 제도시행 준비 시작하기로

조계종 스님들의 습의(習儀)를 종단차원에서 통일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전문습의사' 제도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청화)은 이와 관련해 7월 20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율원장 간담회를 열고 전문습의사 제도 시행을 위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송광율원장 지현, 해인율원장 혜능, 총무원 총무부장 무관 스님 등은 전문습의사 제도의 필요성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습의교육 관계자가 모두 모이는 9월, 제27기 행자교육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도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습의사는 스님들의 수행일과, 행동거지, 의식 등을 배우는 일에서부터 예불과 참회에 이르기까지 습의예참(習儀禮懺) 전반을 연구 · 교육 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의식과 습의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가능해지고 각종 연수 · 행자교육 · 수계산림 등에서 상시적인 습의 교육이 가능하다. 실질적 상근 종무직의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습의사는 주로 계율을 배우는 율원에서 파견된 율원생들이 행자교육원 기간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습의를 지도해왔기 때문에 습의교육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행자교육원 개원 하루 전에 열리는 '습의예행회'에서도 각 율원에서 파견된 습의사들 사이에서 의식을 통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원 관계자도 "지난 2000년에 종단차원의 <습의교안>이 발간 되었지만, 이후에도 각 율원 사이의 습의가 완벽하게 통일돼 있지 못하다"며 체계적 전문인력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습의사 관련 법령의 제정,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위상과 권한에 대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은 "전문습의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몇명 되지않는 율원 졸업자 가운데서 종무직 전문습의사 선발하기보다, 율원 연구생 가운데서 습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며 실제 제도시행 후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우려하기도 했다. 조용수 기자

상임포함 새 이사 7명 선출
종단협 정기총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이하 종단협)는 7월 21일 서울 하림각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 사업보고 및 세입 · 세출 보고의 건과 2004년 사업계획안 등을 승인했으며, 총지종 우승 통리원장,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 등 3명을 새 상임이사로, 대승종 총무원장 혜심 스님 등 4명을 새 이사로 각각 선출했다.

또 안건으로 상정됐던 정기회비 및 사업분담금 체납조치의 건과 신규종단 등록의 건 등은 상임이사회 권한을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종단협 회장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과 논의를 벌여 회원종단의 화합을 도모하고 불교의 역량을 키우는데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고침 본지 483호 6면 양주 백화암 기사 중 주지 스님 법명을 '보인'으로 고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율 스님에 대한 폭력 사건을 규탄한다'

지난 6월 3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24시간 단식농성 중인 지율 스님이 공권력에 의해 실신하고 억류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7월 17일 오후 1시경 청와대 앞에서 경찰은 관광버스를 타고 온 **'도룡뇽의 친구들'** 부산 회원들의 청와대 앞 진입을 2시간 동안 방해하며 이들의 하차 자체를 저지했다. 뒤이어 경찰은 회원들을 맞이하려고 청와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지율 스님을 완력으로 저지했으며, 저지 이유를 묻는 지율 스님에게 일체의 대답도 없이 1시간여를 에워싸 사실상 감금상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단식으로 허약해진 지율스님이 급기야 30여분간 실신상태로 방치되는 어이없는 사태마저 초래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약속을 지키라고 단식으로 외치는 수행자에게 청와대가 해줄 수 있는 응답이란 고작 이렇게 반인륜적인 것 뿐인가? 뭇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진 지율 스님의 단식농성은 이미 스무 날을 훌쩍 넘기고 있건만 청와대의 육중한 철문은 미동도 할 줄 모른다. 진정 **'무시가 최선의 대응'**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쉬쉬하고만 있으면 될 것으로 믿는다면 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오판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은 지율스님에 대한 반인륜적 폭력 사태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노선 백지화를 이행하라.**
- **정부는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한 재판 종결시까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재실시하라.**

위 요구의 수용이 거부된다면 우리 모두는 현 정권의 反참여적, 反평화적, 反생명적 행태에 맞서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2004년 7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조계종포교사단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두레생태기행 사찰생태연구소 보리방송모니터회 불교인권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조계사청년회 불교환경교육원 맑고향기롭게 우리는선우 불교환경연대(이상 20 단체)

젊어진 불교…남자 신도 늘어

한국갤럽 1984~2004년 종교실태조사 분석

남성불자와 젊은층의 불교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교세가 높은 대구 · 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비해 약세를 보였던 호남지역 등이 지난 20년간 50~6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 · 경기 등 수도권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약진하고 불교는 계속 정체돼 종교의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윤승용 박사가 7월 20일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포교종책연찬회'에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종교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종교실태조사는 1984년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 전국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녀 1,5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 1:1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의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은 ±2.4%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전국 15세 이상 7만여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종교인구가 1999년에 비해 2003년 53.6%에서 53.9%로 조금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불교인구는 49.0%에서 47.0%로 오히려 2.0% 감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종교인구 조사의 경우 전수조사와는 달리 조사 시점이나 표본 선정 등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두 조사결과 모두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남성불자 증가 = 현재 불교인구는 전체 종교인구의 24.4%로 개신교 21.4%, 가톨릭 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1984년 18.8%에 비하면 5.6%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중 남성불자의 수는 지난 1984년 14%보다 10.4% 증가한 20.3%로 여성신도 중심의 불교가 점차 성별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종교별 · 성별 인구 증감추이 ◆ (단위:%)

종 교		2004년	1997년	1989년	1984년
불교	남자	20.3	12.3	18.1	14.0
	여자	28.4	24.2	23.6	23.1
개신교	남자	17.1	16.8	14.1	14.2
	여자	25.0	23.8	24.3	19.8
가톨릭	남자	5.7	–	–	4.1
	여자	7.7	–	–	7.1

◆ 지역별 종교인구 비율(2004년) ◆ (단위:%)

지 역	전체	불교	개신교	가톨릭
서울	54.2	15.7	30.8	6.6
인천 · 경기	53.2	17.7	26.3	8.9
강원	42.2	20.5	16.3	5.3
대전 · 충청	57.1	24.2	22.6	8.7
광주 · 전라	47.0	18.8	17.9	7.9
대구 · 경북	50.8	33.4	11.1	5.6
부산 · 울산 · 경남	59.3	44.4	11.7	2.6

<한국갤럽 종교실태조사>

불자 '수도권 15%-부산·울산 44%' 편차 심해

종교인 30% "9세 이하때 종교선택" 응답

이 같은 남성불자들의 증가세는 탈산업화와 민주화 겪으며, 사회 주 활동층이던 남성들이 생산과 발전에 대한 욕구를 개인의 삶과 신앙적 활동에 대한 욕구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젊어지는 불교인구 = 연령별 종교인구 비율을 보면, 30대 이하 불교인이 1984년 20.4%에서 2004년 29.7%로 10%가량 증가해 불교가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30대 이하 개신교인도 40.0%에서 46.6%로 지난 20년간 6.6% 증가했다. 현재 30대 이하에서 불교와 개신교의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개신교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전체 인구 중 30.9%가 9세 이하에 종교를 선택한다고 답해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계속 등한시 할 경우불교 미래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사실로 입증됐다.

▌지역 불균형 심화 = 불교인구는 대부분 부산 · 울산 · 경남지역(44.4%)과 대구 · 경북지역(33.4%)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에 비해 강원 및 대전 · 충청지역 등이 14.4%에서 20.5%로, 28.8%에서 33.4%로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서울 및 경기지역 등은 15~17%대로 20년 전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인구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의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뚜렷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종교 무관심층 증가 =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7.3%가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다. 1984년 9.1%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또한 과거에 신앙 경험이 있다 대답한 비종교인 중 29.9%가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년 이상과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고 응답한 이는 그에 절반도 안 되는 9.8%와 15.8%로 나타나, 2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 대체로 계속 그 종교를 믿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다.

윤승용 박사는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기독교 선교 모방이 아닌 한국 고유의 불교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연령과 성별, 계층에 걸맞는 체계적인 포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청와대 앞에서 단식시위중인 지율스님이 7월17일 전경에 떠밀려 실신한지 1시간만에 여경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고 있다. 사진제공=청년환경센터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정부 생각 참 안타까워"

'지율 스님 생명 건 단식' 현장

청와대 앞에서 단식 시위 중이던 지율스님이 7월 17일 전투경찰에 의해 밀려 쓰러져 실신하는 사태를 계기로, 내원사 스님들이 지율 스님을 방문하는 등 천성산과 지율 스님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월 23일 현재 단식 24일째를 넘어선 지율 스님은 극도의 영양실조, 무더위와 싸우며 청와대를 상대로 한 외로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율 스님을 만나 단식을 하며 생각한 그동안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율 스님은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안타깝다'는 말로 입을 뗐다. "지난 7월 법원은 현장 조사 기간 동안 공사 중단을 권고했다. 그걸 구실로 정부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 그런 정부의 속 좁은 생각에는 여유가 전혀 없다. 김선일 씨 사건처럼 희생자를 만들어서라도 원하는 것을 밀어 붙이려는 것이다."

결국 지율 스님은 "청와대가 계속 침묵한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며 "나 역시 신념에 따라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식에 임하는 자신의 의지를 담담하게 밝혔다.

지율 스님은 불교계의 도움에도 별반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였다.

"불교계는 북한산 문제를 너무 잘못 처리했다. 천성산 문제도 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다. 수경 스님 같은 분들에게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숙생활의 어려움을 천성산 보존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어느 수녀의 도움으로 해결한다는 지율 스님의 이야기 속에는 불교계에 대한 섭섭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천성산 문제로 소원해진 은사 스님과 내원사 이야기로 넘어갈 때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너무 많은 폐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님은 "내원사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은사 스님은 내가 단식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뜻을 전화로 여러 번 밝혔다. 그럴 때마다 신문에 내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면 죽은 줄로 알라고 매정하게 대답한다"고 말했다.

7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일어나 경찰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비구니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추어져 천성산 문제의 초점이 흐려지길 바라지 않는다"며 "나는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나쳐버린 세월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으로 대신했다.

한편 제헌절 날 발생한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을 계기로 불교환경연대, 조계종 불교환경위원회와 원우회를 비롯한 곳에서 우려의 뜻을 밝히는 성명서를 밝히는 등 지율 스님의 단식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7월 22일에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내원사 주지 혜등 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이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율 스님을 찾아왔다. 강유신 기자

이명박 시장 '서울봉헌' 형식적 사과로 일단락

불교계 대처 미흡 자성 목소리

이명박 시장의 '서울봉헌' 발언 물의는 7월 14일 이 시장이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사과의 뜻을 불교계가 7월 19일 범종교시민대회를 열고 '미흡하지만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시장의 사과가 내용과 형식상 '미완'에 그침에 따라, 불교계 내부에서는 예전처럼 목소리만 높았지 얻은 것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시장 사건과 같은 종교편향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작만 있었지 끝은 없다'는 불교계의 고질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 120개 단체가 범불교대책위를 꾸리고 각 교구본사별로 항의시위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응집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범종교시민대회에는 300여 명의 불자만 참가했다. 자연히 맥이 빠졌고 더 이상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 중 하나다. 범불교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한창 이 시장의 퇴진을 포함한 사과를 요구하는 단계에서 한국 종교계 지도자 모임이랄수 있는 KCRP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이 시장의 형식적인 사과를 인정해 버림으로써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타종교인들의 정치적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KCRP 소속 개신교측은 교회 장로인 이명박 시장의 돕기 위해 12일 긴급 공동의장단 회의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불교계와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건을 조속히 덮으려 하는 등 정치적인 행보를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은 불교계의 미약한 대응력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략 부재도 한몫을 했다. 범불교대회 참석자는 "불교계가 이 시장의 형식적 사과 이후 이에 대한 수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대중 동원 시기를 놓치면서 범불교대회의 파행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즉, 불교계가 사과 수위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이 시장의 완벽한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표심'이다"며 "각종 선거에서 종교편향 행위를 한 정치인 중 한명을 집중적으로 낙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불교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종교편향 재발방지 공문과 사례집을 보내 이번 사건을 선례로 남기는 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성원토건 김성필(보산) 법우에게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십시오

"전법자들이여!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행하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법을 부촉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법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법 제자들에겐 언제든지 시련과 좌절의 순간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주)성원토건 그룹 전 회장 김성필(보산) 불자는 우리 불교계가 백년에 한번정도 만날 수 있을까라는 평판을 받을 만큼 소중한 시주 인연을 맺어온 전법자라고 칭송받아 왔습니다. 그는 인연된 이웃에게는 물론이요, 성북동 소재 연화사 도량 뒤뜰에 찾아오는 새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장소에도 불(佛)자 및 만(卍)자를 새긴 팻말을 꽂아 놓고 "이차 불연(佛緣)으로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아 해탈하소서"라며 합장 기원을 할 정도로 전법에 앞장서온 불자입니다. 또한 노모이신 이 수련화 보살님의 사랑과 인도로 불연을 맺은 것을 늘 잊지 못하고, 어머님의 뜻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으며,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자비행과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굳건한 불심(佛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불자 여러분!

두루 아시다시피 (주)성원토건은 85年 회사 창립 후 10여년 이상 꾸준히 번창하였고 그동안 불사 및 서민의 고통과 어둠을 해소하는 사회 환원 기증에 시가 수천억대에 달하는 청정 보시행을 앞장서 실천해 왔습니다. 김성필 불자와 그 가족들은 보시행을 함에 있어, 시주자와 시주물, 그리고 시주를 받는 자가 모두 청정해야 한다는 삼륜청정의 보시정신을 한번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이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언론에 보도된 성원토건과 김성필 회장 관련 내용들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악덕기업주, 호화생활 등 보도된 내용들은 대부분 크게 부풀리거나 왜곡된 것들입니다. 보시행이란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불사의 의미까지 왜곡되고 오염되는 현실을 보면서 김성필 전 회장의 가족들은 오랜 고민 끝에 그 진실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주)성원토건 및 김성필 가족들이 행한 불사 및 사회기증의 수많은 선행, 공덕들은 공적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당한 기업 이윤에 의한 청정한 불사(佛事)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과 불자들에게 불사와 기증문화에 대한 염증을 일으킨 것에 대해 김성필 불자와 그 가족들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록 왜곡되고 부풀린 보도로 생겨난 일이지만, 이 보도가 (주)성원토건의 공적자금 문제로 인하여 불거졌고 결과적으로 숭고한 불사의 의미를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비치게 한 데 대하여 김성필 불자와 그 가족들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원토건은 결코 악덕기업이 아니라는 점, 김성필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온 신실한 불자라는 점을 알리고, 김성필 불자와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탄원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실의에 빠진 김성필 불자의 가족들은 다급한 마음에 대한불교 조계종 법전 종정 큰스님, 원로의장이신 종산 큰스님, 총무원장 법장 큰스님을 찾아뵙고 용기를 내려주실 것을 간청 드렸습니다. 큰스님들께서는 "이렇게 불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욱 살펴주어야 한다"며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서광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많은 사찰에서, 그리고 창원에 소재한 성원토건 기증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통령님과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성원토건과 김성필 전 회장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교계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교계에서도 김성필 불자의 선처를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서울 등 각 지역에서 수만 명이 탄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셨고 지금도 계속 동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김성필 불자의 가족들과 김성필 불자의 조기석방을 바라는 불자 모임은 큰스님과 불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큰 위안과 용기를 받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성필 불자와 가족은 공적자금을 잘못 관리하여 국민과 불교계에 상처를 드린 것을 깊이 참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하여 언제까지나 드러내지 말았어야 할 시주내용 불가피하게 거론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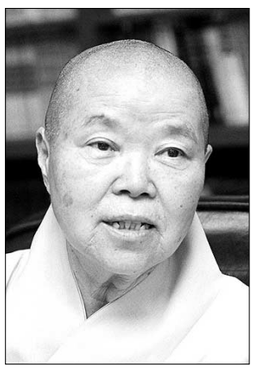
국민과 불자여러분!

저희들은 김성필 불자는 이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참되고 진실한 시주인연 전법 불자임을 믿습니다. 지난 I.M.F의 희생자로서 겪은 이번 일이 그에게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회가 되도록, 또 그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청정 보시, 자비실천의 행자로, 진정한 21세기 급고독장자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서민을 위한 전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십시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김성필(보산)불자 조기석방을 위한 스님과 불자모임 합장

연락처 : 02)3672-8165, e-mail : martian_plague@hanmail.net



인 터 뷰 강주 명성 스님

"생활이 곧 수행, 모든 일 참답게"

"수행과 교육이 둘이 아닙니다. 수행이 잘 되면 교육이 잘되고, 교육을 잘 받으면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비구니회 회장을 맡고 있는 명성 스님은 세수 70(1931生)이 훌쩍 넘은 요즘에도 후학들에게 올곧은 수행자의 자세를 가르치는데 여념이 없다.

운문사 회주이며, 학장으로 승가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는 스님은 늘 학인들에게 '생활이 곧 수행'임을 강조한다. 생활에 있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부처님 뜻에 입각해서 생활하라'는 '즉사이도(卽事而道)'를 강조한다. 공양간일을 하건 밭에서 풀을 뽑건, 공부를 하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수행 아님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건 '참다워라'는 말이다.

운문사 강원이 배출한 동문들이 사회복지에도 힘쓰고 병원, 유치원, 복지관 등에서 환자포교, 어린이 포교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스님은 1970년부터 운문사 강단에 섰다.

30여년을 모시고 살았다는 학감 일진 스님은 "명성스님은 학인지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시종일관 철저하며 한결같은 분이지만, 들꽃이 피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일에도 신비함과 신선한 충격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곧은 학풍 속 내·외전 차별없이 탁마


강사 흥륜 스님


학감 일진 스님


강사 진광 스님


강사 세등 스님


강사 영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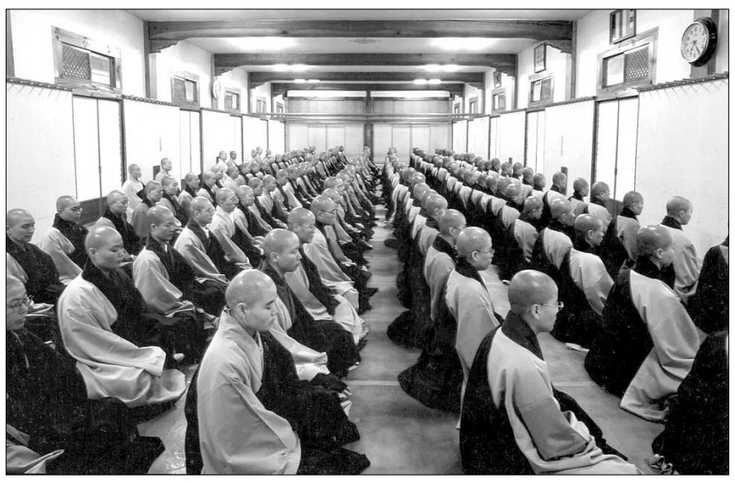

강사 운산 스님


강사 은광 스님


중강 법장 스님


중강 명법 스님

사미니 강원을 가다 ④ 운문사 강원 (www.unmunsa.or.kr)


운문사 강원 학인들은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명성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를 철저히 실천한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호랑이가 앉은 모습과 흡사하다는 호거산(虎踞山)아래 넓은 장군평 자락에 우리나라 최대의 비구니 교육도량 운문사가 자리하고 있다. 넓고 정갈한 도량에는 스님들의 경읽는 소리와 울력하는 스님들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살아있는 부처님 법문을 전한다.

560년(신라 진흥왕 21) 창건된 운문사는 1958년 불교정화운동 이후 금광 스님이 초대 주지로 취임하면서 비구니 전문강원이 개설되었다. 현재 250명의 학인들이 입지발원(立志發願), 정진불퇴(精進不退), 유통교해(流通敎海)의 학훈 아래 강주 명성 스님, 학감 일진 스님, 강사 흥륜, 진광, 세등, 영덕, 운산, 은광 스님, 중강 법장, 명법 스님으로부터 경학을 수학하고, 계율을 실천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내전과 영어, 맹자, 염불, 꽃꽂이, 피아노, 서예, 사군자, 컴퓨터, 요가 등 기본소양을 익히는 외전으로 나눠진다. 낮시간에 간경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저녁에 학인들끼리 논강을 하며, 논강 내용을 토대로 다음날 아침 수업시간에 논강발기와 중강이 강사스님 앞에 발표하고 강사스님이 학인들에게 질문과 강의를 하는 전통방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도서관에는 화엄경을 비롯한 금강경, 능엄경 등 목판본 교재와 고서가 5000 여권, 한글 대장경 외 10종류의 대장경과 불교관련도서, 일반문학, 각국 원서 등 1만여 권의 책이 소장돼 있다.

운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행사 중 하나가 대교과 학인들의 탁발의식과 차례법문이 있다. 대교과 학인들은 매년 2월 초하루에 대구, 부산 등 도시에 나가 행하는 탁발의식을 통해 아집과 아만을 내려놓고 인욕하는 마음을 닦는다. 탁발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인다. 250명 학인 뿐 아니라 학장, 학감을 비롯한 모든 강사스님 앞에서 하는 차례법문은 졸업 전에 누구나 치러야하는 통과의례로 수많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연습이요, 불법의 바퀴를 힘차게 굴리는 엄숙한 자리이다.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학장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 청규를 철저히 실천하는 학인들의 하루일과는 새벽 3시 도량석, 예불, 108참회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간경, 저녁 스님들 간의 논강 등 학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사이사이에 울력을 한다.

운문사의 늦가을 김장울력은 특히 장관이다. 학인뿐만 아니라 학장스님을 비롯한 모든 강사스님들까지도 동참하는 울력시간은 세상만물의 은혜를 알고 갚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생활과 경전공부가 둘 아님을 터득하는 장이 된다.

운문사에는 1997년 비구니 강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승가대학원이 개설됐으며, 운문사 모든 강사스님들은 모두 대학원 과정에서 함께 연구한다. 대학원에서는 그동안 경전 연구와 해독 · 재검토 등을 통해 열반경 화엄학개론, 치문, 사미율의 등 다수의 책을 재편찬했다.

운문사 강원이 배출한 인재

운문사는 지금까지 39회 1,354명의 동문 스님들을 배출했으며, 사회복지, 포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문회장은 **법수**(반야유치원 원장 · 14회) 스님이며 동문들의 친목과 회합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동문으로는 **성정**(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정**(봉녕사 강원 학감), **정관**(공주 금관복지관 관장), **진명**(BBS불교방송 차한잔의 선율), **계환**(동국대 교수), **보광**(불광한의원 원장), **정운**(보령 세원사 주지), **정률**(BTN 찬불가 지도), **지홍**(중앙아산병원 법사), **지호**(동국대 교수) 스님 등이 있으며 현 교직자스님 모두가 운문사 강원출신들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다.

청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18> 설호 스님

전국 선방 돌며 선수행



충남 유구 동해사(東海寺)에 도착했을 때 설호(72 · 사진) 스님은 낡은 앉은뱅이 미싱을 돌리고 계셨다. 평생 남이 지어놓은 옷을 사서 입는 법 없었다는 스님은 자투리 조각천을 이어 여름옷을 만들고 있었다.

"평생을 일만 허구 살었어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늙은이를 취재 혀서 뭣헌다구…"라며 손사래를 치던 스님은 "점심에 보리밥 해놓았으니 먹고 가라"고 하셨다. 70평생을 엄격한 수행납자로 살아온 비구니 '육화문중'의 최고 어른스님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너무나 소박하고 인자한 모습이었다.

스님은 1954년 갑오년에 개심사로 출가해 이듬해 동학사 비구니 강원으로 갔다. 전쟁이 끝나고 종단이 정화로 어수선하던 시절이었다. 어렵고 힘든 시절 공부보다 울력이나 탁발하러 다니는 일이 더 많았다. 교재가 없어 누가 버리고 간 <초발심자경문>을 얻었는데, 앞장이 다 뜯겨 나가 '귀

72세에도 직접 옷 지어 입어
도량 안팎 궂은일 앞장서 처리

6'부터 읽었다. 자경문을 다보고 <치문>을 배우는데 치문교재가 없어 밤이면 어른스님들 몰래 등잔을 켜놓고 남의 것을 베껴 읽었다.

따로 수행처 정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수행처라는 생각으로 각지의 선방을 찾아다니며 수행에만 뜻을 두고 살았던 스님이 상좌인 주지 석문 스님과 함께 동해사를 창건한 것은 지난 1989년이다. 유구읍 동해리의 원래 지명은 와룡동(臥龍洞). 무학대사가 이곳을 지나다 용이 누워있으면 승천을 못한다하여 용이 물에서 살수 있도록 동네 이름을 동해(東海)로 고쳐 지었다고 한다.

스님은 원래 불사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었다. 다만 50평, 30평 등 조각 조각 널려있던 땅을 하나 둘 사들인 것이 지금은 4000평이 넘는 넉넉한 절터가 됐다. 대웅전 불사는 96년부터 시작했는데 덕분에 절이 훤해졌다며 좋아 하셨다.

절 어디에도 스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매일 쓸고 닦으신다. 절 입구에 만발한 자귀나무 꽃길을 직접 만든 스님은 매년 도량 안팎에 온갖 나무를 심으셨다.

"풀 뽑는 행위 하나도 마음을 다스리고 경계를 끊는 일"이라는 스님은 말없이 실천으로 수행의 본을 보여주신다.

스님은 매년 방학 때마다 한문학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팔이 빠져라 글씨를 써가며 아이들을 정성으로 가르쳤던 덕분인지 스님에게 한자를 배운 아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나가 학자가 됐다. 지금은 가르치려 해도 가르칠 아이들 없다.

스님은 요즘 여자아이 3명을 절에 데려다 키운다. 중학생 1명과 초등학생 2명이 스님의 품으로 왔다. 초등학교 5학년 경림이는 학교에서 늘 1등만 한다며 자랑이 대단했다. 경림이는 한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한자 2급 시험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스님이 키워 세상에 내보내 제몫을 하게 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동해사 주지 석문 스님은 "은사스님은 평소에도 누구를 나무라거나 큰소리로 꾸짖는 법이 없지만 수행에 게으른 상좌들이나 젊은 스님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어른"이라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古新堂 활성生황토

활성생황토란? 황토와 천연목재 추출 섬유질 및 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활성생황토 반죽은 시공 후 자연건조과정을 거치면서 황토의 복층 구조내에 존재하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황토 원래의 기능성을 완전히 회복한다. 활성생황토 반죽은 적정 접착력의 황토 반죽으로서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며 미려한 표면과 적정한 구조강도를 갖춘 실내적용 특수내장재이다.

활성생황토의 기능

원적외선 방출, 세포조직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습도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 (동절기 습도 능력 탁월)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 천연소재를 이용한 활성생황토는 탈취능력이 탁월

황토가 좋은 점으로써 또한 탈취성능을 들 수가 있는데, 시멘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탈취력으로 실내공간의 악취 등을 없애주어 쾌적한 실내 활경을 창출할 수 있다. 본 제품의 암모니아에 대한 탈취능력은 초기농도 179ppm에서 120분 경과후 10ppm까지 농도가 감소하였다.


▲활성생황토로 시공한 내부 모습

이런 분들에게 황성생황토 제품을...

•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 • 수험생의 수면부족 및 체력유지 • 두통환자 • 노약자, 산모, 알레르기 환자 • 숙취감 해소


▲활성생황토로 시공된 벽

활성 생황토의 효능

•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항곰팡이 효과 • 항균 · 방충 및 냄새 제거 효과
• 원적외선에 의한 혈액순환 촉진(바닥재) • 습도조절 및 단열보온 기능 • 유해전자기파 차단

제품 성상 및 시공방법

• 황토, 나무 및 물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내장제
• 우수한 탈취 능력, 습도조절능력, 보온, 단열, 방음능력 및 원적외선 방출 능력이 있는 제품
• 적정 점도의 반죽 상태로 시공이 편리하고 특히 건조 후 표면 갈라짐이 없는 제품
• 용기의 비닐을 제거한 후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이때 약간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 조절 가능
• 2~3mm 두께로 초벌 미장 시공 • 2~3일 자연 통풍 건조 • 충분히 건조 후 장판 및 도배

활성생황토시공

• 엄선된 생(生)황토에 나무에서 얻어진 자연성분과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천연 건축용 내장 마감재
• 갈라져 쉽게 떨어져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황토, 이제는 도배보다 쉽고 빠르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사용가능
•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구조재 종류와 관계없이 바닥 벽체 천정에 미장 혹은 도장(칠)가능

칠칠工營 合資會社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냄새제거 시스템시공
세계최초 "通風 되며 防水"시공 ·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5-2 한비B/D 4층 대표전화 042)2427-007 / 011-9413-6000 / 팩 스 042)2427-009
http://www.ks7700.co.kr E-mail:ceo@ks7700.co.kr

제2기 경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인천불교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심속의 산사 「경인불교대학」으로 오십시오.

강의내용

사찰예절, 찬불가, 예불문, 부처님의 생애, 불교기초교리, 반야심경, 정토사상, 선사상, 참선실수, 불교와 사회복지, 다도강좌, 유명명사초청특강

■주요강좌 교수진■

과 목	교 수 진	비 고
불교기초교리	차차석교수	동국대 교수
선사상	법산 큰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정토사상	정엄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반야심경	종연 스님	경인불교대 학장
불교와 사회복지	보각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참선실수	지묵 스님	송광사 스님

◆제출서류 : 입학원서(반명함판 사진 2매)
◆등 록 금 : 입학금 4만원 / 월회비 1만원(학생회비 포함)
◆학력 및 연령 제한없음
◆모집기간 : 2004년 7월 19일부터 300명 선착순(주간/야간)
◆개강일시 : 2004년 10월 7일(오전 11시)
◆특전 : 졸업후 경전반 입학자격부여 / 조계종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승학산 수미정사(인천향교뒷산)

경 인 불 교 대 학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252-3
접수처 : TEL 032)427-8400
FAX 032)422-8401
www.omnuri.org

전쟁종식/남북평화통일/전법도량발원

일일삼천배 백일간 용맹정진

보살의 성원은 끝이 없습니다.
꺼져가는 두 영혼에게 간과 신장을 떼서 주시고 새 생명의 빛을 주신 도우 스님께서 골수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기금을 마련하여 병든자들과 함께 하고자 원을 세운 이 거룩한 불사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입 제 : 불기 2548년 7월 31일(음 6월15일)
◆회 향 : 불기 2548년 11월 7일(음 9월25일)
◆삼천배 정진시간 : 새벽 04시 ~ 07시
오후 2시 ~ 5시30분
◆동참금 : 오십만원
◆복지관건립후원계좌 :
100321-01-000974 우체국
◆예금주 : 수미정사
대한불교조계종 경인불교대학 수미정사

대구 법왕사 큰스님 사자후 '쩌렁쩌렁'

대구 수성구 법왕사(주지 실상)가 올해로 13회째 백고좌 법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번 열기도 힘들다는 백고좌 법회를 1994년부터 연이어 13회째 열고 있는 법왕사. 그래서 법왕사는 대덕스님들의 법문을 늘 들을 수 있는 법향 가득한 도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올해 법왕사 백고좌 법회는 7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백일간 중진 · 대덕 스님 1백명을 초청,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화엄경><법화경>에 대한 법문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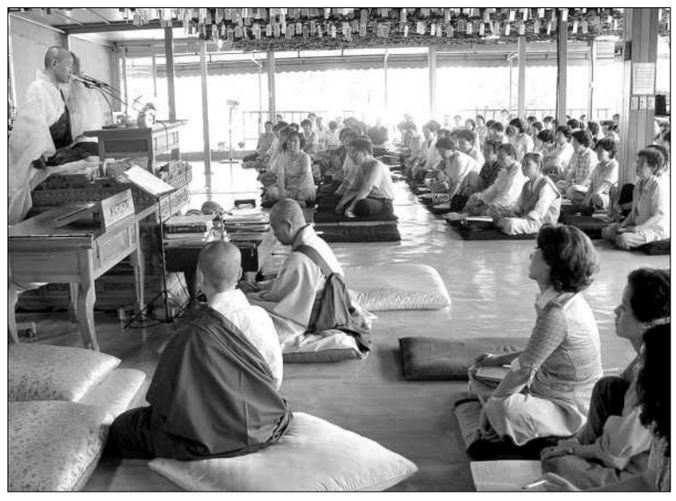
7월 18일 열린 입재식에는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주지)이 <화엄경>의 대의를 주제로 법문했다. 각성 스님은 이날 "'대방광불화엄경'의 경 이름만 알아도 무량공덕이 되는 것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활용하는 것이 '대방광'이며, '불'은 대방광을 깨친 이며, '화엄'은 완성을 뜻하고 '경'이란 이러한 진리를 설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부동삼매를 증득하고, 용심(用心)을 잘 해야 하며, 원을 세우고, 보현 행원을 잘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기원하며 이어져온 백고좌 법회는 7월 21, 22 23일, 법의 · 정락 · 성열 스님 등이 각각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에 대해, 27, 28일은 현웅 · 정무 스님이 광명각품, 보살문명품에 대해 법문했다.

8월 9일은 혜능(해인사 율원장), 8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는 혜거(서울 금강선원장), 해월(동화사 승가대학장), 담월(제천백련사 주지), 지성(동화사 주지), 혜인(제주 약천사 조실), 혜경(서울 무설정사), 보각(중앙승가대 교수) 스님이 차례로 법문한다.

10월까지 무진장(조계종 前 포교원장), 정련(부산 내원정사 주지), 철우(대구 파계사율원장), 도성(前 해인사 주지), 자광(김천 직지사 주지),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성공(부산 안양사 조실), 인환(서울 경국사 회주), 혜총(부산 감로사 주지) 도문(대성사 주지), 성타(대구불교방송 사장), 정관(부산 영주암 회주) 스님 등이 감로 법문을 내린다.

10년간 백고좌법회 13번 개최
올해 7월 18일~10월 29일까지
산사음악회 · 불교영화상영도


7월 18일 법왕사 법고좌 법회 입재식에서 200여 동참대중이 각성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특히 법왕사는 이번 법회기간 중에 산사음악회와 8월 18~19일에는 불교 영화 '쿤둔'과 '오세암'을 상영하며 잠시 마음의 여유도 갖게할 예정이다.

10월 29일에는 대종사 혜정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수계법회로써 법회를 회향한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최근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국민들의 사기가 날로 저하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전 불법에 의지해 국난을 극복했던 선인들의 지혜와 정성을 잇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백고좌 법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053) 766-3747 http://www.bubwangsa.or.kr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불국토 청소년도량 '부산 청소년 쉼터' 수탁

가정 폭력, 이혼 등의 가정문제를 견디다 못한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있다. '가출'한 아이들은 성매매, 비행 등에 노출되며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처럼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단기 보호하는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를 재단법인 불국토 청소년도량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됐다. 부산 교계에서는 처음이다.

7월부터 위탁 운영하게 된 '청소년쉼터(소장 범산)'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자 가출 청소년들 15명을 최장 6개월까지 보호하며 이들을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도 개소한 '청소년쉼터'는 24시간 개방돼 있으며 전화(051-756-0924)나 컴퓨터(www.shelter1004.org)상담을 거쳐 입소를 희망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성교육 · 진로 상담 · '해변 아웃리치' 진행

가정집 분위기로 꾸며진 '청소년쉼터'는 1명의 상담부장과 3명의 상담원이 상주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신문스크랩, 성교육, 칼라믹스, 독서, 진로상담, 영화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들과 함께 홈커밍데이를 열고 있으며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가족상담과 학부모 교실을 열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는 청소년 가출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광안리 바닷가에서 '해변 아웃리치'를 실시한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해변 아웃리치는 광안리해변을 찾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외 영화상영, 가출예방캠페인 및 쉼터 홍보, 거리상담, 가출 청소년 쉼터 인계, 설문조사 및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쉼터'를 위탁받은 범산 스님은 "가출의 원인에 따라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보호와 복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불국토의 역량을 모아 그들이 가정과 학교의 일원으로 원만한 삶을 누리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2004 자원봉사활동 발대식 맑고향기롭게 부산 모임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7월 20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2004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발대식'(사진)을 갖고 23일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구현 부산시 행정부시장,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말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박수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발대식에서는 부산 시내 중 · 고등학생 7백여명이 자원봉사자 선서를 낭독하고 4일간의 봉사에 들어갔다.

이들 청소년들은 부산점자도서관, 해운대 및 각 유명 해수욕장 청소, APEC홍보 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을 벌였다. **천미희 기자**

자비실천찬불가회 창립 10돌 법회 및 불우이웃에 장학금

합창단이 없는 사찰이나 행사 어디든지 달려가 찬불가 음성공양을 올리는 봉사활동을 펼쳐온 자비실천찬불가회(회장 한 대각행)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1994년 창립된 자비실천찬불가회는 10주년을 맞아 7월 22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흥교 스님을 법사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장애인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자비실천찬불가회는 부처님가르침을 찬불가 음성공양으로 펴자는 창립취지에 걸맞게 특정 사찰에 등록하지 않고 찬불가 음성 공양을 원하는 곳이면 어느 사찰, 어떤 행사든 달려갔다.

음성공양 뿐만 아니라 상주 수해지구에 몇 트럭 분의 옷과 식품, 이불 등을 싣고 찾아갔는가 하면 김해교도소, 철원 군부대, 논산훈련소 위문공연 및 떡, 단주, 과일 등을 공양하기도 했다. 또 동지마다 부산역에서 노숙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팥죽 나누기 행사를 열어 매년 천여 그릇의 팥죽을 보시하고 국악한마당 잔치를 열기도 했다.

한각행 회장은 "지난 10년처럼 앞으로도 자비를 실천하는 합창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인각사, 삼국유사 문화제 열어

군위 인각사는 7월 16일 제4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 개막을 알리는 전국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했다.

일연 성사의 역사의식과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50여 초 · 중 · 고교생 4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일연성사와 불교적 이미지를 내포한 선구자, 북, 목탁, 구름 그리고 물고기 등 5가지 제목으로 글쓰기를 겨뤘다.

시상식은 오는 8월 23일 일연성사 다례제에서 거행되며, 대상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장원에는 조계종총무원장상 등이 각각 수여된다. **배지선 기자**

"자연의 맛 · 향, 불교 배워 더 좋아요"

부산 홍법사, 사찰요리 특강 … 경력 10년 이상 주부들 몰려


부산 홍법사 사찰요리 강좌에 참여한 보살들이 무지개 케익떡에 올릴 꽃장식 배우는 모습.

찌는 듯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자 입맛이 떨어지고 의욕마저 잃게 되는 요즘, 자연의 풍미가 물씬 풍기는 사찰 요리로 더위를 잊는 보살들이 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사찰요리 강좌가 열린 7월 21일, 20여명의 보살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사찰 요리 삼매에 빠져있었다. 요리 경력 최소 10년이 기본인 보살들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선생님께 이것저것 묻고 배우느라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다.

홍법사의 사찰요리 강좌는 신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강사도 신도, 수강생도 신도다.

강사 정순자 보살은 롯데문화센터 창원점과 부산점에서 웰빙요리 강사로 활동하는 15년 경력의 요리 전문가. 사찰요리를 배워보고 싶어하는 신도들과 마음을 모아 강좌를 개설하고 보니 신청자가 늘어나 20명 정원이 꽉 찼다. 9개월 동안 이어지는 강좌라 수강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강좌를 더 개설해야 될 형편이다. 보살들은 사찰요리 강좌를 통해 오이간장 장아찌, 고추장아찌, 고추물김치, 증편 등을 만든다.

올 가을에는 수박으로 연꽃 만들기와 특별한 장 담그기 행사도 계획중이다. 신도들의 신청을 받아 된장, 간장을 홍법사 도량에서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좋은 콩을 사고 메주를 띄우고 간장, 된장을 함께 담그며 신도들간의 정도 다지고 사라져 가는 전통의 맛도 살려내기 위해서다.

정순자 강사는 "사찰 요리는 오신채를 쓰지 않고 재료의 맛을 충분히 살려주는 제철 요리"라며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사찰 요리 시간이 단순히 요리 배우는 시간이 아닌 음식을 수행을 위한 약으로 여겨 소중히 여겼던 불가(佛家)의 정신을 되살려 내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환경 5개단체 환경차관 면담 해인사 불사 심의 중단 요구

환경운동연합 소속 5개 단체 대표들이 해인사 불사 관련 심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7월 20일 환경부 박선숙 차관을 만났다.

환경운동연합 대표들은 면담에서, "해인사에서 불사검토협의회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심의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환경부에 해인사 불사 관련 서류가 접수된 것이 없다"며 "행정적 심의 여부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들은 이어 "환경단체들이 민간 조사단을 구성해 해인사 불사 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도 부탁했다.

5개 환경운동연합 소속단체들은 앞으로 문화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도 방문해 이와 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는 중앙 환경운동연합 박진석 정책실장, 대구 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운영위원장, 마창 환경운동연합 이민식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유신 기자**

육해공군 예비역 군법사회 군종교구 관련 성명서

젊음을 군 포교에 바친 한국의 포교전사들의 모임인 우리 예비역 군법사회는 지금 진행 되 가고 있는 군종교구의 입법 예고안을 바라보며 심히 답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군포교사의 전력이 마치 실미도 공작원 같은 대접을 받는 위기감이 들어 육해공군 예비역법사들은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군승 재임 중 승려법상의 선거권 박탈은 헌법의 기본권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일반 사병도 선거권이 있는데 군 최고위 특과장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한 시각은 군승을 공작원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시각이다. 즉각 승려법의 기준으로 군승을 바라보고 선거권을 부여하라.

특별교구법10조 : 군승에 대하여 승려법 제 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은 군승 복무기간 동안 제한한다.

2. 그리고 결혼을 인정한 군승의 제대 후 보장이 하나도 없다. 현재 재출가 한 스님 몇은 출가 년도를 상실한 채 제대 후 다시 출가한 스님이므로 과거의 군포교 공적을 잃어버린 스님들이다.
이것은 종헌 종법에 법계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출가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종헌을 무시한 폭거이다. 우리는 실미도 요원이 아니다.
즉각 재 출가 한 스님들의 출가년도를 인정하라.

종헌9조 : · · · ·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무수행 완료 동시 지계구분을 재심하여 향유 법계(비구계 만을)를 승서 또는 몰수 할 수 있다.

3. 특별교구법 제4장 상임위원회법은 현역 군승과 예비역 군승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현재 군불교 위원회보다 못한 종단 하수인에 불과하다. 즉각 예비역 법사와 현역으로 군종교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별교구법 18조 ② : 상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4인과 군승회의에서 선출된 군승 6인 및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승려로 구성한다.

4. 제7장 포상 및 징계는 온통 징계 조항만이 가득하다.(26조에서 29조까지) 이 조항은 단지 승려법에 준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5. 군승 근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라.

예를 들면 10년 근무자에게는 13년의 법납을 인정한다거나, 본사 상임포교사 임용, 혹은 종무원이나 주지 임명권에 우선권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대한민국 육해공군 예비역 군법사회 일동



부안 내소사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이준엽 기자

"자연과 하나된 고귀한 경험"

미8군 장병 가족 16명 내소사서 템플스테이

탑돌이 · 제등행진하며 '뷰티풀' 연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선정후 첫 행사

"Interesting · Natural · Peaceful · Calm!!!(흥미롭고 자연스러우며 평화롭고 고요하다)"

7월 17~18일, 템플스테이 참가차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를 찾은 미8군 장병과 가족들은 사찰체험 프로그램마다 외마디 감탄사를 내뱉었다. 처음 체험하는 한국 전통 사찰생활은 힘들면서도 신비롭기만 했던 것이다.

미군복지지원단체(USO) 인솔로 내소사에 도착한 인원은 16명. 한달 전 한국근무를 명 받고 미군 병원에 근무하는 렉스(38) 씨는 부인과 세 자녀까지 데려왔다.

가족들은 열흘 전에 한국에 왔고, 사찰생활은 동화 속을 거닐 듯 신비롭기만 했다.

"밥이 맛있어 좋았는데 그릇 씻은 물을 먹으라고 해서 아직도 속이 이상해요. 죽비 든 스님이 '먹은 음식과 그릇 씻은 물과 무엇이 다르냐'고 해서 생각해 보니 같은 것 같기는 한데…."

처음 접하는 사찰예절을 익히느라 오후 내내 굳어있던 렉스 씨의 큰아들 루케(11) 군이 시간이 흐르면서 제법 적응이 되는지 합장하며 소감을 들려준다.

긴장과 흥미는 진행하는 사찰측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내소사 템플스테이는 조계종 템플스테이사업단이 선정한 템플스테이 지정운영사찰 중 처음 진행된 것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총괄진행을 맡은 총무 진현 스님은 "준비한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많은데 잘 적응해 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사찰이 고생하는 곳이 아니라 재미있고 많은 것을 생각케 하는 공간임을 체험하고 세계에 전해준다면, 포교뿐 아니라 이보다 좋은 외교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외국인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내소사 사찰체험도 사찰예절, 예불, 발우공양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마다 사찰 고유의 엄숙함으로 대부분 시키지 않은 '묵언'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 차 마시기와 연등 만들기, 탑돌이 등 시간이 흐르면서 여유가 배어나온다.

깊은 밤, 모두들 잠이 들어야 할 시간에, 참가자들은 자신이 만든 연등을 직접 들고 대웅전 앞에서 탑돌이를 했다. 이어진 사천왕문 앞 연지에서의 제등행진은 형용할 수 없는 황홀감에 빠지게 했다.

부안 청년회가 연꽃사이에 연등을 밝혀놓아,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뷰티풀!(아름답다)"을 연발했다.

"영적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 · 공간을 초월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입니다. 이 느낌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제등행렬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던 클린트(21) 씨는 "사찰에서의 생활 하나하나는 깊은 뜻이 있고, 그것은 자연과 하나 되는 것임을 알게 됐다"며 "사찰체험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동료들과 같이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소사 주지 진원 스님은 "앞으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준엽 기자

백천사, '가정폭력상담소' 개설

24시간 상담…행복한 가정 만들기 수첩 배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가 사찰에 설립됐다.

경기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는 7월 15일 사찰 경내에서 '남양주시 가정폭력상담소' 개소식을 열고, 가정 및 아동폭력 등을 내용으로 24시간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소는 또 개원 이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 365 수첩'을 1천개를 제작해 지역민과 사찰을 찾는 내담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 대처방법, 신고 및 상담연락처 등이 수록돼 있다.

상담소는 특히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이 최근 설립한 수효사회복지대학 불교상담학과 졸업생 1백여 명이 순번제 자원봉사자로 나서 상담을 맡고 있다.

상담소장 무구 스님은 "앞으로 내담자들을 위한 폭력예방 관련 교육 강좌를 마련하는 등 상담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31)577-0020, 011-9768-9551 김철우 기자

"종도화합 · 대사회 문제 적극 나서자"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 주지총회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원장 법천 스님)은 7월 14일 광주 운천사 종무원에서 주지총회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 초청강연을 겸한 이날 총회서 종무원장 법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태고 보우국사의 뜻을 받들어 종도들의 화합과 향후 종단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와 종무행정'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현 한국불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중생과 함께 하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타성을 벗고 대사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운산 스님은 "수행과 포교는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종단을 위해 모든 종도가 화합하고 종단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준엽 기자

장애우 해변 나들이
광주 운전자불자회

광주불교 운전자회(회장 유영식)는 7월 21일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장애우들을 위한 '여름 해변 나들이'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운전자회는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참가한 개인택시 20여대에 장애우 60여명을 태워 변산해수욕장을 다녀왔다. 이번 해변 나들이에 참가한 장애우들은 정신지체 2~3급과 지체장애 1~3급 장애우들로 주위의 도움이 있어야 외출을 할 수 있으며, 평소 해변 나들이를 가장 원했었다.

7년째 장애우 나들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광주불교 운전자회 유영식 회장은 "불자운전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 가겠다"며 "금년부터 장애우 나들이행사를 년 2회로 늘려 가을에 한차례 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명상 · 산책 · 참회 수련회
보우승가회, 선암사서

태고종 보우승가회(회장 호명)는 7월 28~30일 순천 선암사에서 '푸른 숲, 맑은 마음, 부처님 마음'을 주제로 불자가족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법회에서는 선암사에 주석했던 역대고승들의 수행일화를 소개하는 '역대고승 소개 및 조사스님 행장 소개' 프로그램과 조계산 산내를 거닐며 자신의 마음을 찾아 가는 '푸른 숲, 맑은 마음, 부처님 마음 찾기 명상 및 산책'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최근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불교의식 중의 하나인 관음예문을 직접 독송하며 참가자들 스스로 참회와 성불을 위한 가행정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자가족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어른 5만원, 청소년 3만원. (061)754-5247 박봉영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양주 대원정사

전통문화 살아 숨쉬는 절



양주 대원정사 신도들이 법당에서 전통음악을 배우고 있다.

음악강좌 개설 통한 주민과 공감대 형성
'판소리 합창단' 구성 등으로 포교 진력

경기 양주시 앵무봉 자락에 자리 잡은 지장도량 대원정사(주지 해련). 지금 이 곳은 '문화포교' 중심 사찰로 변신 중이다. 매주 일요일, 지역주민과 신도들에게 법당을 한국전통음악의 배움터로 내어줬고 가족 단위의 템플스테이도 기획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주지 해련 스님의 '문화 불사' 원력이 자리잡고 있다.

대원정사는 지난 1986년, 9평짜리로 창건된 조그마한 사찰이었다. 초창기 천막과 비닐하우스를 번갈아 옮겨가며, 세상에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철야로 알렸다. 그리고 지금, 대원정사는 7천여 평 부지에 회의실, 종무소, 다도실, 거사림회 공간이 들어선 2층 규모의 큰 절로 발전했다.



대원정사 주지 해련 스님.

그럼, 대원정사가 이번에 '특별한' 불사에 나선 이유는 뭘까? 불교를 제대로 알려보자는 해련 스님의 발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판소리, 사물놀이 등의 전통음악강좌를 개설한 것도, 오는 가을부터 가족 단위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대원정사는 줄곧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 6년 전부터 어린이수련회를 열어 새싹 불자 포교에 앞장서왔고, 경내에 탁구대, 농구대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하촌 초등학교 축구부도 만들어 후원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만큼 포교효과는 없었다.

문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 그래서 이번 전통음악 강좌만큼은 해련 스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문화포교가 바로 불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찰에 빠져들고,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게 진정한 불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사찰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과 불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문화불사 발원은 올 가을 '지장대불 낙성 기념 산사음악회' 개최로 이어나간다. 또 전통음악 강좌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판소리 합창단'도 발족시켜, 지역복지 시설과 불자들을 위한 '음성공양 보살'들로 키울 생각이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 가족과 직장불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매주 열어 사찰 체험의 진수를 보여 줄 예정이다. (031)855-5501~3

양주=김철우 기자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중국 오대산 순례 4일
대한항공 전세기 특가 599,000원

문수 도량 오대산 성지를 전세기로 매우 편리하고 저렴하게 참배 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출 발 일 : 1차 9월11일-14일(3박 4일) 2차 9월14일-17일(3박4일)
3차 9월17일-20일(3박4일) 4차 9월20일-23일(3박4일)
※선착순 각 35명 한정이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일 자	지 역	주요방문지 및 내용
제 1일	인 천 태 원 대 동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오전 10시 10분 인천 출발 → 태원 도착 후 오대산으로 이동 불광사 순례 후 오대한 도착 → 호텔투숙
제 2일	대 동 오대산	수상자(법회), 중대(자장율사 수행처), 현통사, 대라정(왕복 케이블카) 순례 후 오대산 출발 대동 도착 후 호텔 투숙
제 3일	오대산	운강석굴, 응현 목탑 순례 후 대동 출발 태원 도착 후 호텔 투숙
제 4일	오대산 태 원 인 천	진사 순례 후 전세기편으로 오후 1시 태원 출발 오후 4시 인천공항 도착

■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 9월 1일) ····· 293만원
대승불교와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의 불교성지와 수많은 불상을 참배하고 실크로드를 따라 파미르 고원(총령)을 넘어 우루무치 까지 불교가 전래된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하는 실크로드 코스
● 일 정 : 파키스탄 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 장수 마을)-카슈카르-쿠차 (천불동)-우루무치

■ 부탄 왕국 순례 8일 (출발일 : 9월 21일) ····· 430만원 (인솔자 동행)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트만두

■ 티벳, 네팔 일주 11일 (출발일 : 9월 2일) ····· 259만원
히말라야 신비의 불교왕국 부탄 - 팀푸 축제 참관 및 불교성지를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부탄의 파로- 팀푸(팀푸축제참관)-통사-왕디포르당-푸나카-파로-인천



◎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 달마 면벽구년의 중생제도인 것이다

삼나만상을 창조한 선존법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했고 후천미륵달마도법으로 지각이 변동되는 양 8月 8이 자시와 9일오시에 구하하는 경신일이 들어 오미낙당당의 지구촌 모든 종교문화 경제정치 과학교육이 바뀌는 종교시대에 새로운 미륵달마 진법으로 하늘과 땅 지구촌 대서사시의 오행과 칠성이 나란히 찬란한 일직각으로 되는 날인고로 천문도법인 초능력 도통비법을 갑신 울유 천증수는 물과 불과 이름모를 괴질과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고로 윤달에 경신입문한 공덕은 평상시 삼년을 수행한 공덕보다 더 큰 힘을 얻는 대용맹정진 수행인 것이다. 이 상서러운 법회에 그대를 초대하오며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특별 달마 선물을 드립니다. 달마 면벽구년 근본인 것이다.

동양 미술 대전 특선 및 동경 국제 서화대전 준대상 당선작품
비림 문화예술 중국 일본 한국 문화상 수상 작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 만병의 근원인 당뇨병 및 비만증과 질병을 이기는 비법을 전수함

1. 지구촌 개벽이 시작되는 금년 五申이 시작되여 갑신년 7월과 8월 9일에는 경신이자 말복이 들어 물과 불이 기승을 부리고 지구촌 온난화로 이름모를 괴질과 질병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시작되는 지구촌 개벽시대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중생을 구할 자 누구인가? 그 주인공은 경신입문한진광대도진인이며 진광의 빛으로 인가 받은 당신이 주인공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삼시구충이 있어 육신에 병을 만드는 것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진태양법으로 천안통을 열어 의통능력과 퇴치능력법만이 삼시구충을 모두 제도하므로 지각이 변동되고 지구촌 개벽시대에는 6경신 도통회로 모아지는 것임을 명심할 지어다. 이 법은 역대도인들과 복희로부터 요순, 우탕, 선천, 후천, 진시왕, 환무제, 관운장, 진묵, 서산, 사명, 방한암, 탄허, 윤고암대선사들께서도 이 법으로써 ,원효,의상,도선 도를 통하여 중생도 구하고 각종 종교의 종주도 된 것이다.

2. 말법시대에는 너나 없이 도인 아님이 없으며, 스승과 문중을 배신하고 말과 글과 입으로 통한 자와 알지 못하고 스승인냥 도인인척 하는 자는 하늘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하늘의 도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로 오직 마음을 모두비운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요,
하늘빛 庚자와 귀신우두머리 申자에 귀의하여 이 기도는 60일에 한번씩 돌아오므로 마음을 비우고 하늘을 순종하며 이치에 따르는 자만이 진광대도에 들어 정신과 마음을 다바쳐 수행,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천안통진광대도법으로 천문을 열어 진태양진법으로 인가하여 지각이 변동되는 시대에 천하중생에게 기근에 맞는 경신도통으로 중생들이 가장 고통받는 육신에 병, 정신에 병, 잡신에 병, 마음에 병을제도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창생, 윤리관으로 사명자, 도통군자로 승화하노라.

지구촌에 천지 개벽시대가 오고 있다
경신도통비법으로 지구촌지각이 변동되는 개벽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 초능력자 되소서

경신도통이란 무엇인가
1)천안통 2)천이통 3)타심통 4)신족통 5)숙명통 6)누진통
경신이 돌아오는 것은 60일, 60년, 600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은 우리 인생도 60세 환갑이 돌아오는 것과 기도수행으로 수마, 병마, 색마, 번뇌마, 인마, 정신마를 이긴 자리인 만큼 모든 종교를 초월 생명이 있고 번식할 수 있는 자리에는 천주교, 기독교, 유교, 불교, 대순진리교,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들이 이 수행으로 오늘을 제도하고 있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수마만이기면 득도하는 수행이며, 이 도는 주문과 스승없이는 도저히 통할 수 없는 기도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 천이통경, 타심통경 등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이 빙의되여 허송세월만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일경 즉 천안통만 잘하면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 한 恨을 보고 알아 들을 수 있는 기도중의 기도이며 자아완성은 물론 도통하는 신비의 기도 경신 수행인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들에게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다.

마음이 넉넉하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사명자 도통군자지망생 선착순
● 입 제 : 갑신년 양 8월 8일 일요일(해시)
● 해 제 : 갑신년 양 8월 9일 월요일(해시)
02) 821-6622 /821-7767~8 / 016) 239-3110
010-2932-3110 FAX 02)821-7768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일반버스 구 85, 25, 105, 33-1, 26, 303, 142, 26-3, 102번모자원고개 하차.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연꽃 가득한 '한밭' 가꾸기 분주

20년 사이 사찰수 3배… '화합 구심점 필요' 인식 퍼져

스님마다 전문분야 포교 영역 개척, 재가 신행도 활발

충남 대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대전의 사찰들이 갖고 있는 구슬은 서 말이 아니라 그 몇 십 배, 아니 몇 백 배 쯤은 될 것이다. 그만큼 개별 사찰의 능력은 뛰어나다는 얘기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왠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구슬이 꿰지지 않은 탓이다. 다시 말해 개별 사찰의 활동은 활발하지만 그 활동이 지역불교발전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불교. 그런데 최근 들어 대전불교에 이전까지는 감지되지 않았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구슬을 꿸 수 있는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찰별로 포지션을 정하고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는 '슛'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결정력. 대전불교는 지금 뛰어난 개인기를 팀플레이로 승화시키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현재 대전의 사찰 수는 300여 곳. 교회 수 2,000여 곳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왜소하다. 하지만 양적으로 대전불교는 과거와 비교해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20년 전만해도 사찰 수는 100여 곳에 불과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200여 곳의 사찰이 늘어난 셈이다. 기독교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대전불교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가며 불교의 영역을 확대시켜 온 것이다.

이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대전의 사찰들은 각자의 분야를 개척하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

우선 어린이 포교 분야에서는 용화사, 연화사, 성불사, 세등선원, 통도사 대전포교원 등이 눈에 띈다. 20여 년 전 '맨 손'으로 시작해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이들 사찰이 운영하고 있는 여름불교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양질의 프로그램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도 성장이 두드러졌다. 우선 대전 지역에서 불교계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복지시설로는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구암사는 대전시 시범 납골당으로 지정돼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대전의 복지사업은 기독교의 몫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게다가 이제는 일부 스님들이 위탁시설 운영에서 벗어나 불교계가 힘을 모은 복지관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발전 가능성은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


지난해 여름 통도사 대전포교원 주최로 열린 중 · 고생 여름캠프에 참가한 대전지역 청소년들이 슬라이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통도사 대전포교원은 해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열고 있다.

도심 포교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대전지원과 광수사, 삼문사, 태전사, 통도사 대전포교원 등은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대전 불자들의 신행 요람으로 자리 잡았고, 복전암은 수행처로서, 자광사는 외국인을 위한 국제선원과 외국인 템플스테이 사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행단체 활동도 매우 활발해졌는데, 재가신행의 요람을 기치로 내걸고 2001년 문을 연 대전백제불교회관이 기폭제가 됐다. 백제불교회관이 개관하면서 대전정부청사 불자회가 창립됐고, 이어 시청불자회가 만들어지면서 5개 구청에서도 불자회가 태어났다. 2002년에는 충남지방경찰청 불자회가 구성됐으며, 연이어 각급 경찰서 불자회도 생겼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을 중심으로 모두 42개의 신행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백제불교회관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유기적인 체계 속에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전불교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곳의 불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찰별, 분야별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대전불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찰과 개인의 희생도 절실하다고 말한다.

"유명무실한 사암연합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의지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올해 봉축행사에 참가한 불자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적었던 적은 없었죠."

"사찰들 활동과 백제불교회관 활동이 따로 놀고 있어요. 한 지붕 두 가족인 셈이죠. 서로 연계해 움직일 수 있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렵습니다."

"(사찰들이)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그게 안돼요. 이런 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대전이 불교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라고들 하죠. 실제로 그래요. 뭐 하나 하려면 여기저기서 견제가 심하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한 현상이지만 여긴 특히 심해요."

대전불교는 지금 지역불교를 이끌고 나갈 리더를 찾고 있다. 전체를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바라고 있다. 멀리 내다보는 투자도 서로 돕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가 연기 · 공주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대전불교의 위상은 충청불교, 나아가 한국불교의 위상과도 직결된다. 대전불교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대전=한명우 기자


주변경치가 아름다운 복전암.


깔끔한 인상을 주는 용화사.


금강정사는 기도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돋보기

복전암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대웅전과 명부전, 복전선원과 삼성각이 마주보고 있어 친근감이 느껴지는 구조다. 주변 경치도 아름답고 등산로도 있어 가족과 함께 참배하기에 좋은 절이다. (042)271-0029

광수사 단일 법당 건물치고 광수사 만큼 큰 곳이 또 있을까.

이런 대규모의 법당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광수사에 가볼만한 가치가 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히 기도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사찰이다. (042)823-0333

용화사 아름답게 가꿔진 도량이 인상적이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돌과 한껏 멋을 낸 나무들, 그리고 아담한 법당이 친구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듯 하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절이다. (042)541-155

고산사 신라시대에 창건됐으며, 대전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로 알려져 있다. 옛 조상들의 숨결이 느낄 수 있는 곳. 대전에서 가장 높다는 식장산에 자리 잡고 있어 등산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042)282-2263

자광사 평화로우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절이다. 도량이 깨끗하게 정비돼 있고, 3층 규모의 큰 법당이 웅장함을 느끼게 한다. 조용한 분위기여서 수행과 사찰체험을 하기에는 그만이다. (042)822-9220

금강정사 절벽 같은 바위 옆에 서 있는 법당. 그 앞으로는 커다란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맑은 물. 산소리 바람소리가 아름다운 곳이다.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기도도량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042)822-5694

대흥사 절에 들어서면 먼저 대웅전 앞에 있는 둥근 연못이 눈에 들어온다. 계곡물을 모아 만든 연못 가운데에는 육모정이 있어 전원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연못 뒤로 마당을 사이에 두고 팔작지붕의 대웅전이 자리 잡고 있다. (042)584-4930

대전 불교를 이끄는 주역들

'전방위'로 포교활동 펴

만다 스님
통도사 대전포교원 불교대학장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이 소신으로 신도교육과 청소년 포교에 매진해 온 대전불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스님. 1992년 대전에 포교원을 내고 불교대학을 개설했다. 5년 전부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중 · 고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캠프를 여는가 하면, 10년째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전청소년 사회문화원을 설립해 지역 청소년 계도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도 빠뜨리지 않는다. 깊이 있는 법문으로도 유명하다. 한 달에 7~8회씩 전국 각지로부터 법문 요청을 받을 정도.

노인복지 새로운 원력

월해 스님
금강정사 주지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일에 대한 열정. 다른 수식어는 사족에 불과하다.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을 맡아 서울에서 이틀, 전주 봉서사 주지로서 전주에서 이틀, 태고종 대전교구종무원장으로서 지역의 종단 스님들과의 만남, 대전 소년원 종교지도법사 · 공주치료감호소 불자회 지도법사 · 둔산경찰서 경승실장으로서 한 달에 대여섯 차례 활동한다. 2001~2002년 대전 사암련 11대 회장을 맡아 사암련 사무실을 내고 서예, 다도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전불교 발전에도 기여했다. 오갈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충북 영동에 요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인 다역의 실력파

세운 스님
광수사 주지
대전사암연합회 부회장



이 지역 불교관계자들은 대전불교를 이끌고 나갈 차세대 리더로 세운 스님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대전의 사찰로는 가장 많은 신도를 자랑하는 광수사와 도심포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삼문사의 주지로서, 천태종 금강대학교 총무처장으로서 1인 다역을 하고 있다보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지난 6월 동국대 불교학과 석사학위를 딴 데 이어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대전에서뿐만 아니라 천태종에서도 실력있는 스님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전사암련 부회장, 둔산경찰서 경승, 대전교도소 종교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불교발전에도 기여했다.

세계를 향해 문 열고…

청아 스님
자광사 주지



자광사 주지로 부임한 지 2년 만에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국제선원을 개설하고, 매달 영어법회를 열고 있다. 또 무상사, 국제연등회관과 함께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겸한 선센터로 지정되는 성과도 얻어냈다. 외국인 수행자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해외포교를 위한 내국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강원을 개설하는 것이 꿈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물리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펜실베니아 대학 상임연구원과 동국대 중앙승가대에서 선학 및 포교사회학 강사를 맡기도 했다.

대전 불교를 이끄는 주역들

수행 철저 · 후학 지도

경순 스님
복전암 주지



대전 비구니계의 어른이다. 25살 때인 1950년 대전에 뿌리를 내린 뒤 비구니 수행도량인 복전암을 일궜다. 오랜 세월 동안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과 선학원 이사를 역임한 뒤 후진양성이 필요하다고 결심, 지금은 복전암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며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하나도 수행, 둘도 수행을 강조할 정도로 철저한 수행자의 길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전청소년 선도위원 및 충남도 자문위원 등을 맡아 지역발전에도 기여했다.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보이지 않게 복지활동도 펼치고 있다.

새싹포교에 매진

영진 스님
용화사 주지



대전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대모. 1984년 용화사를 짓고 어린이 · 중고생 · 청년 법회를 시작하면서 대전의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불을 지폈다. 지난 20년간 단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열었으며, 지금도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면서 새싹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1990년부터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전지부장을 맡아 지도교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전교도소 여성재소자 교화위원과 북부경찰서 경승을 지냈고, 용화사에서 군부대 법회를 여는 등 군 · 경 포교에도 적극적이다. 대전 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청림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포교의 거목

종실 스님
연화사 주지
연화어린이집원장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 바로 어린이다. 1994년부터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장, 연화어린이집 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1년에 만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수만도 5만 명 가량. 종실 스님 자체가 걸어 다니는 포교당인 셈이다. 그런데도 스님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불서와 찬불가를 싣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포교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 포교당'도 만들고, 복지시설을 설립해 지역복지 활동도 펼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대전맹학교에 불자회를 만들고, 점자성전을 발간해 장애인 포교에도 기여했다.

재가 불교운동 산 역사

사재동 거사
백제불교문화대학 대학원장



대전 재가불자를 대표하는 인물. 이 지역에서는 재가불교의 산 역사로 불린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41년 동안 불교학생회 활동에서부터 백제불교회관 창립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불교단체가 없을 정도. 충남대 교수불자회와 대불련 지도교수로 활동하면서 조계종 전법도량인 백제불교회관 창립의 산파역할을 했으며, 대전신행단체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백제불교문화대학 대학원장으로서 후학양성 및 신도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총지종 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취임

"불퇴전의 신심으로 포교 힘 모으자" 취임법어

효강(曉岡) 대종사가 총지종의 법통을 잇는 종령(宗領)에 취임했다.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7월 20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 서원당에서 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통이운과 전수, 법의 수의, 행장 소개, 추대사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효강 대종사는 "총지종은 교화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절한 교화방편을 실현해야 할 시기에 놓였다"며 "불법과 계율을 준해 타의 모범이 되는 청정종단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와 한사람의 중생이라도 건지겠다는 교화에 대한 정열, 불퇴전의 신심을 견지하라"고 법문했다.

앞서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종사는 봉행사를 통해 "효강 종령예하를 중심으로 종단발전은 물론 불교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총지종이 되도록 다함께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총지종은 종단의 재단법인화에 의한 투명한 종무행정으로 타종단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효강 종령님의 덕화와 지도력에 힘입어 전통과 혁신의 조화 위에서 총지종이 밀교중흥을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 한진수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192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효강 종령은 85년 총지종에 입문한 이래 중앙종의회 의원, 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법장원장, 통리원장, 종령 권한대행, 불교TV 대표이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효강 종령은 앞으로 서울 총지사에 주석하면서 종단의 사법(嗣法)과 전법(傳法)을 관장한다.



효강 대종사가 7월20일 서울 총지사에서 열린 추대법회에서 총지종의 종령을 상징하는 법의와 가사를 수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상 봉안 등 교화방편 재정립 의지

총지종, 종령취임 계기로 '제 2창종' 기치

총지종이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취임을 계기로 '제2창종'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특히 '불상 봉안' 등 기존의 밀교종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총지종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효강 종령은 추대법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고루한 과거의 유물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의 일환으로 효강 종령은 △시의 적절한 교화방편 시행 △청정교단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회향 △인재 양성 등의 종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교화방편'의 재정립이다. 이는 창종 30년이 지나면서 종단 기틀 확립과 조직 안정화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신도확보와 포교 등에 있어서는 답보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의 대안으로 불상 봉안과 같은 불단의 장엄이라는 방편을 제시했다.

효강 종령은 "종단내부에서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종풍 확립과 밀법 홍포를 위해 불상 봉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12월 총지사에 양부만다라를 봉안한 이후 불단 장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상 봉안은 종단내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는 구체적 실행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통리원 사무국장 법경 정사는 "교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혁신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효강 종령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종단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재단의 활성화와 도제양성을 위한 예산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종지 널리 펴자" 대각종 서울종무원 1주년

대각종 서울교구종무원이 있는 대각정사(주지 해각)는 종무원 개원 1주년을 맞아 7월 18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대구 여래선원장 해선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이강국 대각정사 총신도회장과 고수완 여신도회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은 "서울교구 종무원장 해각 스님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종도들이 단결하여 대각종지를 널리 펼 것"을 당부했다.



해인종 창종 5주년 세계평화 기원법회

대한불교 해인종(종정 혜지)은 7월 21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해인종 창종 5주년을 기념하며 세계평화 국운융창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원로원장 혜동 스님, 이강원 성재문화원장 등 5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종정 혜지 스님은 "청년불교, 대중불교, 한글불교를 표방하며 창종한 해인종 창종 이념에 걸맞게 정진과 포교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날 해인종 종도들은 세계불교도에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행자생활·재교육도 없다

우후죽순 종단 이대로 좋은가?

① 정체성 모호한 종단 많다
② **승려양성 · 수계체계 강화 시급하다**
③ 내실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자

30여년간 부산의 A사를 다닌 최진철 씨(51 · 부산 온천동)는 최근 주지가 바뀐 뒤 이 절이 일반기업에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주도한 새 주지 B스님은 주지를 맡은 직후 사찰을 팔기위해 은사를 양로원에 보내고 잘 운영되던 신도회를 해체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또 이에 항의하는 불자들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기도 했다. 뒤늦게 알고보니 B스님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근 ○○종에서 승려증을 발급 받아 단시일내(?) 승려가 된 것이었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삭발염의만 했다고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고 있는지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사찰재산을 빼돌려 사유화하거나 신도들에게 욕설, 폭행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도리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러한 스님답지 못한 이들의 행태가 승단과 불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불교에 대한 불신풍조로까지 확산될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고 있다. 또 이들은 각 종단 내에서 종단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라 할 수 있는 위계를 무시하는 등의 처사를 서슴지 않아 종단 기강을 해치는 폐해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일의 발생 근저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승려를 각 종단에서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일부 종단에서는 스님양성조차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스님 자격기준 없는 곳 수두룩
교육기관 공동 운영 등
종단간 협조체계 마련해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5개 종단만 놓고 보더라도 3년 이상의 행자, 사미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거쳐 수행자를 배출하는 종단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에 불과하다. 조계종과 더불어 한국불교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태고종도 1년의 행자기간과 4주의 수계산림을 거쳐 사미(니)를 배출한다. 정식적인 스님이라 할 수 있는 구족계를 받게 된 것도 올해부터다. 이 외에 관음종, 원융종, 법화종, 원효종 등 대부분의 종단들은 일정기간의 행자생활을 거쳐 사미계를 받도록 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종법에 준해 승려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사미(니)계 또는 구족계를 주는 종단은 보문종, 법륜종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종단협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종단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종단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과 교육에 의거해 승려를 배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자생활과 집체교육 과정을 생략한 채 계를 주고 승려증을 발급하는 종단도 있다.

소속 스님들의 재교육이 미진한 점도 승려의 자질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다. 각 종단마다 소속 스님들의 재교육제도를 두고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간단한 종무행정 및 행사 안내와 강의 등으로 짜여져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마저도 법계와 년차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종단은 조계종 등 일부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종단 자체에서 승려의 자격기준과 득도절차, 습의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재가불자들의 신행을 지도하려면 승려의 자질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승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행자 · 사미(니)의 교육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행자 · 사미(니) 기간은 승려로서의 인품과 덕행을 지녔는가를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배치와 이수의 의무화가 요구된다.

승려양성과 교육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작은 종단들의 경우 종단연합의 승려교육기관, 연수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조계종 등 교육여건을 갖춘 종단의 승려교육기관에 군소종단의 예비승려가 입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법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단을 옮기면서 승려를 유지하는 파렴치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범종단적 공시제도 도입, 승려의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단별 신고센터 설치, 뚜렷한 종지 확립 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승려양성 및 수계체계를 갖추지 못한 종단 예비승려와 스님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승려양성, 교육에 관련된 정보교류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종단간 협조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2004년도 신형 찜질팩 출시!!

기존 제품에 비해 두배반 이상의 희담석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됩니다!!

· 겉재질 : 항균PVC시트(기존 PVC시트가 항균작용에 취약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균작용을 위해 순금을 첨가 하여 항균 99.9%의 항균작용을 하여 희담석의 강력한 기운과 함께 시트의 항균작용이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생명에너지가 방사됩니다.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

희담원석 중에서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고 수건이나 헝겊에 싸서 사용하셔도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투과됩니다. 희담석 찜질팩을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시면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어 근육통,신경통,관절염 등 쑤시고 결리는 각종 지병 등이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희담석 찜질팩(신형)
39,800원

1.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2.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

지혜의 반지, 합격기원 반야심경 반지

반야심경 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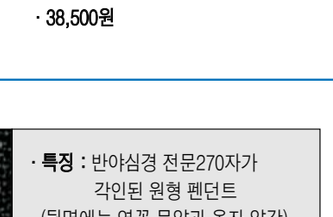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외부(外部)각인된 숍반지 폭 약 8mm
· 14K Gold : 245,000원
· 18K Gold : 352,000원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내부(內部)각인된 숍반지 폭 약 8mm
· 14K Gold : 150,000원
· 18K Gold : 198,000원

반야심경 은(銀)반지



반야심경 은(銀)반지
은 92.5% 로듐도금 크기 : 폭 약 8mm
· 38,500원

반야심경 목걸이(원형)



가로 18mm, 세로 33mm

반야심경 목걸이(사각)



가로 21mm, 세로 32mm

· 특징 :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각인된 원형 펜던트 (뒷면에는 연꽃 문양과 옴자 양각)
· 재질 : Silver 92.5%
※ 펜던트와 체인 포함
· 48,000원

희담석 좌복 출시기념 특별할인판매!!

딱 30개 한정 할인판매입니다.



· 크기 : 세로 720 mm X 가로 390 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베개겸용 고급휴대용 케이스 증정

희담석 좌복
~~360,000~~ → 298,000원

"희담석 좌복"은 살아 숨쉬는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이 일상생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직장인, 수험생, 스님, 운전자에게 매우 유익한 방석이 될 것입니다.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처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마하몰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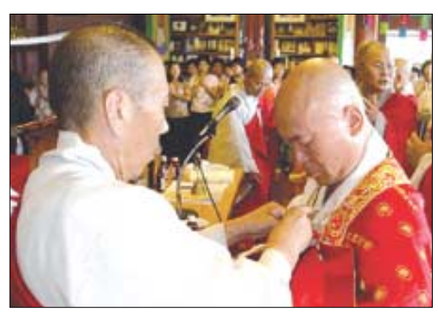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재단 후 마름질 하는 모습.


▶편수를 맡은 무봉 스님이 시침을 하고있다.


▶통문불(通門佛)을 염두에 두고 바느질.


▶가사가 만들어진 후 잘 되었는지 검수.


▶가사 점안 후 수진 스님(오른쪽)이 가사를 수하고 있다.

조각 조각 이으니 화엄세계 펼쳐지네

담양 용화사 전통가사 불사 회향 현장

자수가사 · 초대형 미륵불 가사 · 홍가사 81벌 제작

현존하는 의복 가운데 2500여년을 이어온 패션이 있다. 불교 수행자들이 입는 가사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창했고 기후와 풍습에 따라 사용하는 재질과 문양이 다를 뿐 이제껏 형태를 바꾸지 않고 내려온 옷이다. 더운 남방국가에서는 가사 한 벌이 그대로 옷이 되고,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추운 지역에서는 옷 위에 걸쳐 입어 수행자임을 나타낸다.

가사는 직사각형으로 천 조각을 조각조각(條) 이어 만든 대형 타월과도 같다. 수행자 옷이기에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가사가 만들어지기 까지에는 복잡함과 수작업 때문에 일반인은 만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스님들 간에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

그러한 전통 가사불사가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에서 6월 말부터 7월 18일까지 21일간 펼쳐졌다.

18일 용화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스님들과 신도 300여명이 참석해 가사불사의 원만 회향을 증명했다.

이날 가사점안과 함께 가로 25m 세로 15m 크기의 초대형 미륵불 가사를 선보였는데 용화사는 향후 미륵불을 조성해 불상 안에 이 가사를 복장할 예정으로 있다

"46년전 해동율맥을 이어온 묵담 스님이 전통 홍(紅)가사에 자수(刺繡)를 넣어 자수가사를 제작했습니다. 이 가사는 우주 삼라만상을 자수로 표현한 세계에 하나뿐인 가사인데 그 가사를 본(本)으로 하여 이번에 재현했습니다"

가사불사를 진두지휘한 수진 스님은 "이번 불사는 전통 자수가사뿐 아니라 홍가사 81령(領:가사 숫자 세는 단위)을 제작하는 가사불사 가운데 가장 큰 대고품 불사다"고 설명한다.

뜻깊은 불사 참여에 한땀 한땀 지극정성

가사 9벌을 만드는 것이 소고품, 27벌을 만드는 것이 중고품, 81벌을 만드는 것이 대고품으로 이번에 만든 것은 대고품인 홍가사 81벌에다, 묵담 스님의 자수가사를 그대로 재현한 자수가사, 그리고 내년 조성되는 미륵불 복장에 들어갈 가로 25m 세로 15m 크기의 가사도 함께 제작한 것이다.

가사불사가 시작되고 용화사는 한지로 금(禁)줄 두르듯 써놓은 증명당(가사불사 증명하는 처소), 가사당(袈裟幢:가사 짓는 곳), 금란소(禁亂所:정숙히 하는 곳), 한주실(閑住室:휴식장), 정재소(공양간) 등의 글귀를 써서 붙였다.

가사를 짓는 가사당은 조사당에 마련됐다. 매일 오전 작업에 앞서 주지 수진 스님과 편수(가사불사 총괄감독) 무봉 스님, 양공(바느질 담당) 정오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가사불사를 보조하는 재가신도들이 모여 가사당 예불을 올린다. 예불은 가사당 세계를 주관하는 스물한분의 부처님 전에 '가사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예불에 이어 수진 스님은 대웅전으로 자리를 옮겨 2시간에 걸친 특별정진기도를 하고, 가사당에서는 가사불사가 계속된다.

"가사는 복전으로, 각각의 조(條)가 바로 논 밭입니다. 따라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문불(通門佛)이라 하는데 전통가사는 통문불이 있어야 합니다. 행여 통문불없이 가사를 지으면 눈먼 과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생각없이 바느질 하다보면 통문불을 남겨놓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바느질 할 때는 염불로 정신통일을 합니다. 가사불사는 단순히 옷을 짓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행입니다."

20여년간 전국각처의 가사불사 현장을 지키고 있는 무봉 스님은 "바느질의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개념치 않으나 통문불없는 가사는 소각하거나 뜯어내 처음부터 다시 짓는다"고 말한다.

가사 모든 조각이 서로 통하는 '통문불' 돼야

통문불은 천조각을 기와 잇듯 이으면서 1cm가량은 겉면만 바느질을 해 생기는 구멍을 뜻한다. 실제 가사는 조각마다 위와 옆에 빈바느질(허공침)로 구멍이 나 있어 모든 조각이 서로 통하게끔 되어있다. 논이랑에 물꼬가 있어 넓은 논에 물이 골고루 흘러가는 이치이다. 재봉질로는 이러한 통문불을 만들 수 없어 손바느질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사불사는 재단과 마름질을 마치고 바느질에 들어서면서 절정에 이른다. 이때는 모두가 정신을 곤두세운다. 눈은 침침하고 손바느질 해본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은데 부처님 전에 공양올려야 하니 더욱 그러하다. 바느질 한땀에 불보살 명호가 저절로 나온다. 그래야 잡념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

바느질은 먼저 천조각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침을 한다. 바느질 모양은 고양이 눈모양으로 둥글둥글 정침으로 떠야한다. 남침(크게 뜬 것)이나 음침(작게 뜬 것)을 뜨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이렇다보니 아무리 솜씨있는 양공이라도 25조 상품 가사를 바느질하는 데만 꼬박 열흘이 걸린다. 바느질이 끝나면 한국 가사에만 있는 일월광(日月光)을 단다. 이번에 제작한 가사 가운데 수가사는 전통자수가 보성화 보살(45)이 3개월에 거쳐 수를 놓았다.

광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번 불사에 참석한 극락행 보살(74)은 "가사불사는 살아생전 만나기 어려운 불사로 용화사에서만 세 번 열린 불사에 모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바느질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예로부터 가사는 스님들이 한땀 한땀 손수 바느질하며 지었다. 신도들은 가사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서 보조역할만 담당했다. 극락행 보살은 "가사당에서 직접 바느질하는 공덕을 생각하면 이 또한 좋은 인연이다"면서도 "스님들 간에 전수되는 가사작법이, 참여하는 스님이 적어 행여 그 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사는 점안(點眼)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7월 18일 가사점안하던 날, 가사불사 동참대중들은 불사가 원만히 마치게 됨을 부처님 전에 감사드렸다.

글 · 사진 / 담양 = 이준엽 기자


21일간의 가사불사를 마친 담양 용화사는 7월18일 가사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가로 25m 세로 15m 크기의 초대형 미륵불 가사. 내년 조성되는 미륵불 복장에 봉안될 예정이다.


해인도와 10바라밀 자수.


46년전 묵담 스님이 제작한 전통자수가사를 수진 스님이 펼쳐 보이고 있다.

묵담 스님 전통 자수가사

25조 홍가사에 10바라밀·해인도 등 수놓아 5대3 황금비율, 125개 천조각 4장 1단 배열

묵담 스님(默潭, 1896~1981)은 1906년 장성 백양사에서 순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한 후 백양사 불교 전문강좌를 졸업하고 제방선원에서 70여 안거를 성만하며 근세불교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해동율맥 제9대 율사이고 태고종 제3 · 4대 종정을 지냈다.

스님은 81년 담양 용화사에서 세수 86세 법랍 75년으로 입적했는데 최근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이 법홍 스님에 이어 해동율맥을 이었다.

한국의 전통가사는 통문불이 있는 홍(紅)가사를 가리킨다. 가사는 9조에서 25조까지 홀수로 구분된다.

25조는 대종사가 입는 최고의 가사로 25유중생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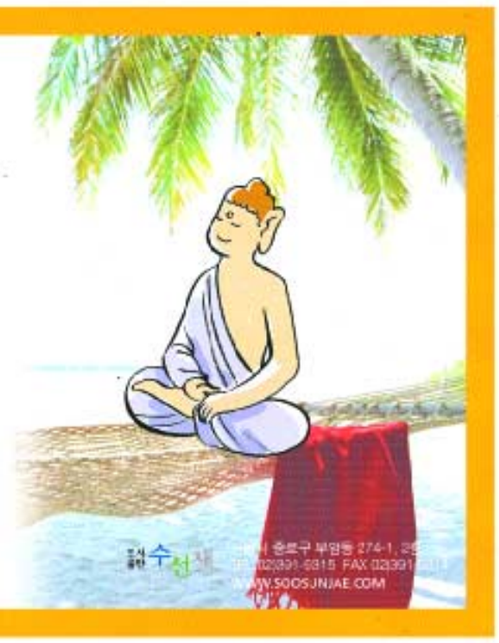
묵담 스님이 제작한 전통자수가사는 25조 승가리 홍가사에 10바라밀, 해인도, 불보살 명호, 용 문양, 사천왕을 손자수로 새겨놓은 것이다. 화려함은 물론 그 정성에 감동해 저절로 경배의 합장을 하게한다.

크기는 황금비율인 5대3(가로 2m 세로 1m20cm)으로 125개의 천조각이 4장1단으로 배열되어있다.

수진 스님은 "이 자수가사에는 불제자를 호위하고 모든 중생이 다같이 성불토록 하는 불교의 우주관이 들어있다"고 소개한다. 또 "가사는 헤졌다고 수선하거나, 더러워졌다고 세탁하면 안되고 소각해야 한다"며 "불 · 보살이 아니면 웃어른이라 할지라도 가사를 수하고 절해서는 안된다"는 가사에 대한 예절을 강조했다.

부처는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SBS-TV〉 "오픈스튜디오", 〈MBC-TV〉"즐거운 문화읽기" 에 소개된 화제의 베스트셀러 !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일하기!
수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맑고 시원한 경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재'에서
밭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심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MBC-TV & SBS-TV "오픈 스튜디오" 교재


수선재

효사 『육임래정비법』 시리즈 결정판 『육임대계전서』 전 60권 출시 예정
- CD도 『업그레이드』 되어 판매(교환) -

1. 저 고복자 효사는 전국 현인 · 기사 · 이인 각위께 삼가 문안 드리옵고
2.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을 애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후속 저술로 『육임대계전서』를 매일별(甲子日~癸亥日까지) 60일, 60권으로 만들어 매일 1권씩 꺼내 보도록 했습니다.
3.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인간사 30개 분야를 150여 항목으로 나누어 어김없는 판단이 되도록 하고 500질을 『한정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4. 그 외
   가. 시보법(왜 왔는가?)이 보완되어 온 시간만 보아도 전후 사정을 아는데 더욱 정확하게 했습니다.
   나. 래정(근황선지법)이 과전 · 천지반 · 과체 · 격 · 초사 · 현안사를 한데 묶어 한눈에 보이도록 조정시켜 먼저 말하는 우리의 판단을 빠져나갈 수 없게 했습니다.
   다. 귀신 · 빌미부정 · 산소탈을 좀더 세밀히 적시하고 수법 효과의 가 · 부를 명시하고 해소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라. 과전의 종합해설을 국수마다 달아놓아 판단의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여 놓았습니다.(광고 지면상 이 국수해설은 빠져 있으나 본 책에 큰 글씨로 해 놓았습니다.)
5. 종전의 책 크기를 16절지 크기로 줄여 간편히 휴대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그날치 한권이면 어느 장소 어느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6. 절찬리에 출시되고 있는 『CD』 역시 위 인사 30개 분야 150여 항목이 추가되어 판매 · 교환이 될 것입니다.
7. 종전 저의 육임서중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전12권, 『육임래정비법혁신판 휴대용』 전12권,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12권을 소지하신 분들께서 금번 출간되는 『육임대계전서』로 바꿔 보시려거든 금 1백3만원(1,030,000)을 오는 8월 15일까지 입금시켜 주십시오. 책은 오는 9월 중순경에 택배로 도착시켜 드리겠습니다.
8. 새로 구입하실 분은 금 삼백오십만원(3,500,000)을 입금하시고 구입 신청을 해 주십시오. 본 책은 『500질 한정본』입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정상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 저의 소신과 열정을 전국에 계시는 현인 · 기사 · 이인 각위께서 용납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0. 본 책 글씨는 본 광고와 달리 잘 보이도록 글씨가 키워져 있습니다.
11. 저는 8월5일 밤 12시에 한국경제TV(와우)에서 『동양철학 육임강의』를 3개월동안 합니다.

아래 내용들은 갑자일 한시간에 해당되는 12국수중 한국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방문(전화)시간				방문(전화)온 목적	월장(기후)별 해당국수
午 시	癸目	상관	沖	병제(病제) · 동요(動搖) · 불안건(不安件)이거나, 타인(他人)으로부터 침범사(侵犯事)이고, 유리전패사(流離顚廢事)가 있다.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운성	死	泄	자손사(子孫事), 또는 실직(失職) · 박관(剝官) · 불명예(不名譽)스러운 일에 관련된다.	정월 二월 三월 四월 五월 六월 七월 八월 九월 十월 十一월 十二월
	丑	지(支)		타향(他鄕)살이 하는 자(者)이고, 장병(長病)을 앓는다. 남녀(男女) 쟁투의 상(象), 동분서주(東奔西走), 모든일(諸事) 변전(變轉), 행동결함(行動缺陷)이 있다.	우수-춘분 춘분-곡우 곡우-소만 소만-하지 하지-대서 대서-처서 처서-추분 추분-상강 상강-소설 소설-동지 동지-대한 대한-우수
		刑			사이 제8국 사이 제9국 사이 제10국 사이 제11국 사이 제12국 사이 제1국 사이 제2국 사이 제3국 사이 제4국 사이 제5국 사이 제6국 사이 제7국
		害			
		破			

방문(전화)시간				방문(전화)온 목적	월장(기후)별 해당국수
未 시	癸目	정재	貴人	귀인사(貴人事)에 관여하거나, 수상존장(手上尊長)이 발탁하는 일, 또는 관직건(官職件)이다.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운성	墓	害	뜻밖의 방해(防害)를 받아 일이 지체(遲滯)되고 있다.	정월 二월 三월 四월 五월 六월 七월 八월 九월 十월 十一월 十二월
				전토(田土) · 분묘(墳墓) · 불사(佛事)에 관련된다.	우수-춘분 춘분-곡우 곡우-소만 소만-하지 하지-대서 대서-처서 처서-추분 추분-상강 상강-소설 소설-동지 동지-대한 대한-우수
	丑			관귀(官貴)의 재(財)가 있고, 또 타인(他人)에 의뢰한 일로 북(鞫)을 받는다. 병점(病占)은 죽는다. 구재불가(求財不可) · 감흉(吉凶)이 빠르다. 인색한 인(人)이다.	사이 제9국 사이 제10국 사이 제11국 사이 제12국 사이 제1국 사이 제2국 사이 제3국 사이 제4국 사이 제5국 사이 제6국 사이 제7국 사이 제8국
		刑			
		害	지(支)	수구(守舊)가 좋고 동(動)하면 실화(失錯)을 가져온다.	
		破			

방문(전화)시간				방문(전화)온 목적	월장(기후)별 해당국수
申 시	癸目	편관	殺	천강사상(天罡四張) : 초전(初傳)이 점시(占時)를 도우면, 모든 하고자 하는일(謀望事)은 불성(不成)하고, 만물(萬物)은 상(傷)한다.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운성	絶		병제(病제) · 관제(官제) · 침범사(侵犯事)로 서로 원수가 된다.	정월 二월 三월 四월 五월 六월 七월 八월 九월 十월 十一월 十二월
		日沖		이별사(離別事)가 있다.	우수-춘분 춘분-곡우 곡우-소만 소만-하지 하지-대서 대서-처서 처서-추분 추분-상강 상강-소설 소설-동지 동지-대한 대한-우수
	沖			외동(外動)이 있고, 타인(他人)과 다툼이 있다.	사이 제10국 사이 제11국 사이 제12국 사이 제1국 사이 제2국 사이 제3국 사이 제4국 사이 제5국 사이 제6국 사이 제7국 사이 제8국 사이 제9국
	刑				
	害				
	破				

甲子(갑자) 日 第 1 局 공 망(空亡) 戌亥(술해)

丙	己	壬	
青 寅 蛇	朱 巳 勾	后 申 白	
寅	巳	申	
丙	丙	甲	甲
青 寅 蛇	青 寅 蛇	白 子 后	白 子 后
甲 寅	寅	子	子

朱 巳 勾 / 蛇 午 青 / 貴 未 空 / 后 申 白
6巳 / 7午 / 8未 (+) / 9申
合 辰 合 / 陰 酉 常
5辰 / 10酉
朱 卯 朱 / 玄 戌 玄
4卯 / 11戌
朱 寅 朱 / 空 丑 貴 / 白 子 后 / 常 亥 陰
3寅 / 2丑 (+) / 1子 / 12亥

■ 본 복음과(伏吟課)로 판단되는 전체적 상황 : 이 사람은 지금,
통간(統艮)의 체(休), 수구대신(守舊待新)의 상(象)이다.
마음을 끙끙 앓고 있다.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시험 · 명예 · 승진 등에는 좋다.
①자임격 : 자기 과신의 일로 생긴 일이다.
②자신격 :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생긴 일이다. 몸이 부자연 하다.

위 두격은 삼전을 보아 형(刑)이 되면 관재로 알면 된다.
일간상신 12운성 절을 보아 수법(기도)을 쓴다.

■ 본 원태격(元胎格)으로 예측되는 특별한 정황 : 이 사람은 지금,
원태(元胎), 먼저는 길하고 나중에는 흉하다.
상류인(上流人)은 길(吉)하고, 하류인(下流人)은 흉(凶)하다.
회사원(會社員)은 승진(昇進)의 기쁨이 있다.

● 존장(尊長)의 이병자(罹病者)가 있다. 중병(重病)이면 반드시 죽는다.
● 선비나 공직자는 기쁨이 있다.
● 염병(炎病)이 일어난다.

■ 본 초사(初辭) : 가장 먼저 할 적중되는 말은?
앞장서지 말고 유순(柔順)하게 행동해야하겠군요.
상살(傷殺) 귀신이 붙었으니 다툼이나 쟁(爭) · 형(刑) · 송사(訟事)를 주의하세요.

낮 : 여자의 부정을 탔어.
밤 : 전사자(戰死者)나 흉사자(凶死者)의 귀신이 붙었네?

■ 본 래정(來情) :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 낮 시간 판단	제산 · 금전의 관송사이다.
● 밤 시간 판단	제산 · 금전의 허경 · 부실사이다.

甲子일 제1국 래정 판단항목의 복변(卜辯)

판 단 항 목	복 변 (卜辯) 내 용
1. 길흉속지 모망사 가부	이득가능 하다.
2. 아 · 타사 여부	아 발동사 이다.
3. 신 · 구사 여부	신사 이다.
4. 미 · 기사 여부	일어난 일 이다.
5. 피 · 아 이해득실 여부	상대는 이득된다.
6. 병 치료 가능 여부	병은 치료된다.(흉사귀의 침범이다)
7. 일 진행 과정의 길흉 여부	시작: 이외사 ○ 중간: 쟁투사 × 결과: 질병사 ×
8. 귀신침범 여부	전 · 흉사귀가 침범했다.
9. 빌미부정 침범 여부	辰 · 戌 · 丑 · 未 · 子 · 午 띠는 부정이 들었다.
10. 산소탈 침범 여부	음덕이 있다.
11. 귀신 · 부정 · 산소탈 해소방법	
■ 수법 효과 : 있다. 택일 하라.	■쓰는 오행지지: 午를 선택한다. ■쓰는 숫자 : 9자씩을 9장에 쓴다. ■사용 색상 : 적색종이를 사용한다. ■태울 방위 : 午 방위를 향하여 태운다. ■재 료 : 주사를 쓴다. ■기도일수 : 9일간 이다.
12. 가상 길흉 이사 가부	안정, 귀녀가 있다.
13. 이사 길방 길일 선택	子 · 未 · 午 방으로 하라. 이사는 위 육합일에 하라.
14. 빈 · 부 여부	春: 빈하다 夏: 빈하다 秋: 평하다 冬: 부하다
15. 소망사 되는 일 월	辰 · 巳 일 · 월이다.
16. 성품 선악 여부	보통인이다.
17. 가해자 방위 남녀 여부	寅방의 남자이다.
18. 결 구(結 句)	■이 국수자는, 이렵다. 침침산중이다. 능력을 알아주지 않고 할 일이 겁처 있다. 모든 일을 중지하라. 협력과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 변수를 기회로 삼을 뿐이다. 〈入 廟〉

甲子일 제1국 육임정단 길흉 성부 항목(占)별 단정(卜)

一 사 업 사	① 어떤 사업이 좋은가? 여부		
	② 신규사업(계획) 성패 여부	길하다.	
	③ 사업진행과정 길흉 여부	초는 길하고 나중은 흉하다.	
	④ 거래(관계)인 이해득실 여부	이득가능하다.	
	⑤ 거래(관계)인 가정사 파악 여부	낮 : 질병이 있다.	
		밤 : 貴女가 낫다.	
	⑥ 난사 교섭 성부 여부	길하나 서둘러라.	
	⑦ 교섭사 전후 난이 방침 여부	신속함이 좋다.	
	⑧ 공사 진행 처질 대비 지침 여부	초에는 길하나 서두르라.	
	⑨ 영업장 설치 성쇠 여부	길하다.	
	⑩ 사업(업무) 진퇴결심 여부	현상태 고수하라.	
	⑪ 계획사 늦고 빠른지 여부	신속하다.	
	⑫ 공적 · 사적 추진 길흉 여부	길하다.	
	⑬ 투자 득실 여부	이득가능하다.	
	⑭ 회의(안건)반대자 유무 여부	반대자가 있으나 무방하다.	
	⑮ 중요상담 승부 요령 여부	서북방을 등지라.	
	⑯ 행사예정일 청우 여부	개인다.	
	⑰ 개업 · 고사 · 행사일 택일 여부	유(酉)를 택하라.	
二 대 인 관 계 사	① 상하, 남녀 이해 득실 여부	동등하다.	
	② 시(始) · 종(終) 합 · 배신 여부	믿어도 좋다.	
	③ 래방자 빈 · 부 여부	春:빈하다	夏:빈하다 秋:부하다 冬:부하다
	④ 래방자 운세 여부		

띠 별		春	夏	秋	冬
子	낮	쇠퇴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근신, 자중하라.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장차 길해지나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부정 해소 요망
	밤	쇠퇴자 이다.	근신, 자중하라.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장차 길해진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丑	낮	쇠퇴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근신, 자중하라.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장차 길해지나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부정 해소 요망
	밤	쇠퇴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근신, 자중하라.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장차 길해지나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부정 해소 요망

띠 별		春	夏	秋	冬
寅	낮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쇠퇴자 이다.	근신, 자중하라.	장차 길해진다.
	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부정 해소 요망	쇠퇴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근신, 자중하라.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장차 길해진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卯	낮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쇠퇴자 이다.	근신, 자중하라.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장차 길해진다.
	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쇠퇴자 이다.	근신, 자중하라.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장차 길해진다.
辰	낮	지금 흉하면 장차 길해지고 길하면 흉해진다. 부정해소요망	지금 흉하면 장차 길해지고 길하면 흉해진다. 부정해소요망	지금 흉하면 장차 길해지고 길하면 흉해진다. 부정해소요망	지금 흉하면 장차 길해지고 길하면 흉해진다.부정해소요망
	밤	지금 흉하면 장차 길해지고 길하면 흉해진다. 부정해소요망	지금 흉하면 장차 길해지고 길하면 흉해진다. 부정해소요망	지금 흉하면 장차 길해지고 길하면 흉해진다. 부정해소요망	지금 흉하면 장차 길해지고 길하면 흉해진다.부정해소요망
巳	낮	장차 길해진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쇠퇴자 이다.	근신, 자중하라.
	밤	장차 길해진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쇠퇴자 이다.	근신, 자중하라.
午	낮	장차 길해지나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부정 해소 요망	쇠퇴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근신, 자중하라. 부정 해소 요망 된다.
	밤	장차 길해진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쇠퇴자 이다.	근신, 자중하라. 부정 해소 요망 된다.
未	낮	장차 길해지나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부정 해소 요망	쇠퇴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근신, 자중하라. 부정 해소 요망 된다.
	밤	장차 길해지나 부정 해소 요망 된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부정 해소 요망	쇠퇴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근신, 자중하라. 부정 해소 요망 된다.
申	낮	근신, 자중하라. 병제, 관제가 있다	장차 길해지나 병제, 관제가 있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병제, 관제가 있다	쇠퇴자 이다. 병제, 관제가 있다.
	밤	근신, 자중하라. 병제, 관제가 있다 부정 해소 요망	장차 길해지나 병제, 관제가 있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부정 해소 요망	쇠퇴자 이다. 병제, 관제가 있다.

띠별		春	夏	秋	冬
酉	낮	근신, 자중하라. 병제, 관제가 있다 부정 해소 요망	장차 길해지나 병제, 관제가 있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병제, 관제가 있다	쇠퇴자 이다. 병제, 관제가 있다.
	밤	근신, 자중하라. 병제, 관제가 있다 부정 해소 요망	장차 길해지나 병제, 관제가 있다	최상이나 장차의 하향세 대비하라. 병제, 관제가 있다	쇠퇴자 이다. 병제, 관제가 있다.
戌	낮	무력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무력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무력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무력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밤	무력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무력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무력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무력자 이다. 부정 해소 요망 된다.
亥	낮	무력자 이다.	무력자 이다.	무력자 이다.	무력자 이다.
	밤	무력자 이다.	무력자 이다.	무력자 이다.	무력자 이다.

	⑤ 래방자 선 · 악 여부	보통인이다.	
	⑥ 래방자 소송 · 관재 여부	없다.	
	⑦ 약속인 도착 여부	곧 도착한다.	
	⑧ 관계인 걸별 걸심 여부	관계 지속한다.	
	⑨ 래방자 손익 · 피해 · 무능 여부	이익이 있다.	
	⑩ 래방자 기숙 · 축출 필요 여부	무방하다.	
三 직 원 채 용 사	① 직원채용 가부 여부	남자는 채용 불가, 여자는 채용 가능하다.	
	② 현직원 동태 알기 여부	남자는 음흉하다. 여자는 예교가 있다.	
	③ 충성 · 배신 · 갈등 판단 여부	충성한다.	
	④ 여러명중 적합자 선택 결정 여부	쥐 띠 여자 이다.	
四 진 위 파 악 사	① 부탁 · 위임사 성부 길흉 여부		
	② 뇌물증여 가납효과 여부		
	③ 중개(소개)자 허실 여부		
	④ 소문진위 여부		

五소송승패사

① 소송 승패 여부	원고가 승소한다.
② 구속 · 불구속 여부	구속되지 않는다.
③ 처벌 · 무혐의 여부	혐의가 없다.
④ 중죄 · 경죄 여부	경죄이다.
⑤ 도망 길 방위는?	卯 방향, 정동쪽으로 가라.

六주식투자사

계 절	春		夏		秋		冬	
①이익되는 품목 선택 여부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채권	의약품	문화 예술	군수품 부동산	여성 용품	금 속 운수업	채권	의약품
②구입가격 고 · 하 여부	높다.		높다.		낮다.		높다.	
③ 팔까? 기다릴까? 여부	팔아라.		팔아라.		기다려라.		팔아라.	

七상품구별사

① 상품(물건)신 · 구 품질 여부	신품이다.
② 안건(사건)신 · 구 반복 여부	신사이다.

八낙찰사

① 낙찰 가능 불가 여부	불가능하다.
② 입찰 참가자 선정 여부	아래 표를 기준하라.
③ 낙찰 가능액 유리한 숫자 여부	아래 표를 기준하라.

정단계절	정단시간	좋은 운세자 참가시킬 띠	좋은 운세 참가자 선정 거주 방위	참가자 선택 남 · 녀	유리한 숫 자
春	낮	寅 띠	동쪽 거주자를 선정하라.	男	7수
	밤	卯 띠	동쪽 거주자를 선정하라.	男	6수
夏	낮	丑 띠	북쪽 거주자를 선정하라.	男	8수
	밤	丑 띠	북쪽 거주자를 선정하라.	男	8수
秋	낮	子 띠	북쪽 거주자를 선정하라.	男	9수
	밤	子 띠	북쪽 거주자를 선정하라.	男	9수
冬	낮	子 띠	북쪽 거주자를 선정하라.	男	9수
	밤	子 띠	북쪽 거주자를 선정하라.	男	9수

九구재사

① 구재 가능 여부	가능하다.
② 구재 상대는 누구?	낮: 귀인 지주 밤: 부인, 공장인
③ 구재 날짜는 언제?	寅月, 또는 寅日이다.
④ 구재 금액의 다 · 소 여부	春: 多 夏: 小 秋: 小 冬: 多
⑤ 금융재 차용가부 여부	가능하다.
⑤ 구재 가능한 띠 여부	용띠, 양띠, 개띠, 소띠 이다.

十매매사

① 매매 가능 여부	
② 가격 절충 여부	
③ 매매 성사 시기 여부	

十一사건심리사

① 아(자의) · 타(타의)사 여부	자의사이다.
② 미(미발현) · 기(발현)사 여부	발현사이다.
③ 내(내사出) · 외(외사入)사 여부	외사이다.
④ 길 · 흉 예지 내외발생 여부	吉은 外, 凶은 內신에 있다.

十二공명사(선거시험취직)

① 선거 당선 · 탈락 여부				
② 시험 합격 · 탈락 여부				
③ 학과 적합 여부				
④ 맞는 학교는? (二十九항의 학교표를 참고하라)				
⑤ 승진 · 누락 여부	春:	夏:	秋:	冬:
⑥ 직장 안부 여부	春:	夏:	秋:	冬:
⑦ 취직 가능 여부	春:	夏:	秋:	冬:

十三가택가정사

① 가택 선악 길흉 여부	善상이다.
② 가정 길흉 예측 여부	병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다.
③ 이사 여부	이사는 불가능하다.
④ 이사 길방 여부	酉 東方으로 가라.
⑤ 이사 택일 여부	子日이다.
⑥ 육친 길흉 예지 여부	존장에게 질병이 있다.
⑦ 가택 악상일때의 비방법 (방위: 子方 색상: 검정 숫자: 子 수법회수: 9 재료: 주사)	

十四길흉예측사

① 흉사 일어나는 날?	申 日 · 月 이다.
② 흉사 해소되는 날?	寅 日 · 月 이다.
③ 길사 일어나는 날?	子 (亥ㅇ)
④ 길사 완성되는 날?	巳 日 · 月 이다.
⑤ 불행사 해소되는 기간 여부	
⑥ 길흉 동정 여부	辰 日 · 月 이다. 운세반전 부정해소 필요

十五질병사

① 무슨질병인가?	간, 신장 이다.
② 질병발단 이유?	재물의 근심 있다.
③ 치료가능 여부	낫는다.
④ 치료 길방위 지정 여부	子方으로 가라.
⑤ 효과있는 치료방법 여부	약물 이다.
⑥ 교통사고 생사 예측 여부	산다.
⑦ 비방법 (방위: 물상: 숫자: 수법회수: 방법:)	

十六형이상사

① 귀신침범 여부	밤점: 시집 · 친가의 어귀 밤점: 전사귀 · 흉사귀
② 비방법 (방위: 북방 색상: 흑색 숫자: 9 수법회수: 9 재료: 주사)	
③ 부정빌미 사승 여부	낮점은 가택에 상문부정이 들었다.
④ 비방법 (방위: 북방 색상: 검정 숫자: 9 수법회수: 9 재료:)	
⑤ 산소탈 · 음덕 여부	
⑥ 비방법 (방위: 물상: 숫자: 수법회수: 방법:)	
⑦ 길지인가? 흉지인가?	보통이다.(양호하다.)
⑧ 후손 종사 생업 분야 여부	

오 행	계 절 점	강력여부	
木	겨 울, 봄	旺相	도 · 군 관직자, 교육자, 학자, 정치가
	여름, 가을	休囚	죽목장인, 토목업 종사

⑨ 후손 영고성쇠 여부	
1 代	자손이 현달한다.
2 代	성패 기복이 많다.
3 代	성패 기복이 많다.

十七도난사

① 도난사실 허위 유무 여부	분실 하였다.
② 도둑 체포 여부	
③ 도둑 상모(相貌) 여부	
④ 도둑 남녀 · 장노 여부	
⑤ 여러 인 중 범인 단정 여부	
⑥ 도난품 회수 여부	어렵다.
⑦ 도망 안전 방위 여부	서쪽 이다.
⑧ 도둑 잠복방위 여부	

十八가출사

내용 / 육친	① 귀가여부	② 귀가일시 (일·월·년)	③ 어디로 갔는가				④ 어떻게 지내는가	⑤ 생사여부 (년명기준)
			행년	방위	행년	방위		
행년 · 점시 기준	서두르면 귀가한다. 찾을 수도 있다.	子 · 午 王 · 癸 丙 · 子	子	子	午	午	죽지는 않았다.	午 · 未 · 申 띠는 불행이 예상된다.
			丑	丑	未	未		
			寅	寅	申	申		
			卯	卯	酉	酉		
			辰	辰	戌	戌		
			巳	巳	亥	亥		
귀인 · 존장		낮: 未에 온다	낮: 서남방					
		밤: 丑에 온다	밤: 동북방					
부모		낮: 亥에 온다	낮: 서북방					
		밤: 酉에 온다	밤: 서방					
자손		낮: 辰에 온다	낮: 동남방					
		밤: 辰에 온다	밤: 동남방					
남편 · 사위		낮: 寅에 온다	낮: 동방					
		밤: 午에 온다	밤: 남방					
형제		낮: 酉에 온다	낮: 서방					
		밤: 亥에 온다	밤: 서북방					
부인		낮: 申에 온다	낮: 서남방					
		밤: 子에 온다	밤: 북방					
종업원(남)		낮: 戌에 온다	낮: 서북방					
		밤: 戌에 온다	밤: 서북방					
종업원(여)		낮: 酉에 온다	낮: 서방					
		밤: 酉에 온다	밤: 서방					
시 체		낮: 子에 온다	낮: 북방					
		밤: 申에 온다	밤: 서남방					

十九혼인사

내 용	男	女
① 궁합 길흉 여부	길하지 않다.	길하지 않다.
② 혼인 성부 여부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③ 혼인 시기 여부	寅년이나 寅월이다.	申년이나 申월이다.
④ 혼담 다중인 중 선택 여부	북북서쪽이다.	동남쪽이다.
⑤ 중매인 허실 여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⑥ 자식 유무 여부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⑦ 용모 · 성정 여부		

용 모	
낮	밤
貴:	
蛇:	
朱:	
合:	
勾:	
靑:	
空:	
白:	추악한 여자이다.
常:	
玄:	
陰:	
后: 아름다운 여성이다.	

성	정
子: 지혜가 깊다.	午: 일의 끝맺음이 없다.
丑: 인격이 높다.	未: 인격이 높다.
寅: 마음이 어질다.	申: 잔인하다.
卯: 지성적이다.	酉: 욕망이 너무 많다.
辰: 신용을 중히 여긴다.	戌: 신용을 중히 여긴다.
巳: 난폭하다.	亥: 정의가 두텁다.

二十임신사

① 임신 여부 — 된 다.

띠	春	夏	秋	冬	띠	春	夏	秋	冬
子	불가	불가	불가	가능	午	가능	가능	불가	불가
丑	불가	불가	불가	가능	未	가능	가능	불가	불가
寅	가능	불가	불가	가능	申	불가	가능	가능	불가
卯	가능	불가	불가	가능	酉	불가	가능	가능	불가
辰	가능	불가	불가	가능	戌	공망	공망	공망	공망
巳	가능	가능	불가	불가	亥	공망	공망	공망	공망

二十一이혼사

① 이혼 성부 여부	이혼 불가이다.
② 이혼 길흉 여부	낮정단: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밤정단: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손익 남녀 여부	남녀 상호 비긴다.
② 남녀아 구별 여부	여아 이다.
③ 쌍둥이 구별 여부	아니다.
④ 출생일시 예측 여부	낮점: 寅일 밤점: 申일 시간: 卯시
⑤ 임신시기 예측 여부	

월장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음력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12월	11월
월일	11일	10일	10일	6일	6일	4일	3일	2일	30일	29일	11일	10일
시간	08시 21분	10시 48분	01시 29분	03시 53분	20시 49분	09시 56분	01시 58분	02시 50분	15시 48분	16시 49분	08시 21분	21시 41분
子띠	亥월	戌월	巳월	辰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亥월	戌월	丑월	子월
丑띠	亥월	戌월	午월	巳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子월	亥월	丑월	子월
寅띠	亥월	戌월	未월	午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丑월	子월	丑월	子월
卯띠	亥월	戌월	申월	未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寅월	丑월	丑월	子월
辰띠	亥월	戌월	酉월	申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卯월	寅월	丑월	子월
巳띠	亥월	戌월	戌월	酉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辰월	卯월	丑월	子월
午띠	亥월	戌월	亥월	戌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巳월	辰월	丑월	子월
未띠	亥월	戌월	子월	亥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午월	巳월	丑월	子월
申띠	亥월	戌월	丑월	子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未월	午월	丑월	子월
酉띠	亥월	戌월	寅월	丑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申월	未월	丑월	子월
戌띠	亥월	戌월	卯월	寅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酉월	申월	丑월	子월
亥띠	亥월	戌월	辰월	卯월	未월	午월	巳월	辰월	戌월	酉월	丑월	子월
양력 월일	11月 22日	10月 24日	9月 23日	8月 23日	7月 22日	6月 22日	5月 21日	4月 20日	3月 21日	2月 19日	12月 22日	1月 23日
	12月 22日	11月 22日	10月 24日	9月 23日	8月 23日	7月 22日	6月 22日	5月 21日	4月 20日	3月 21日	1月 20日	2月 19日

二十二몽중사

① 꿈 길? ② 꿈 흉? ③ 개 꿈? 여부									
띠	낮정단	밤정단	띠	낮정단	밤정단	띠	낮정단	밤정단
子	吉하다	吉하다	辰	凶하다	凶하다	申	凶하다	吉하다
丑	吉하다	吉하다	巳	吉하다	凶하다	酉	吉하다	吉하다
寅	吉하다	凶하다	午	吉하다	吉하다	戌	개꿈이다	개꿈이다
卯	凶하다	凶하다	未	凶하다	吉하다	亥	개꿈이다	개꿈이다

二十三농경사

년 도	① 기후예시 여부	② 피해 작물 여부
子	평년이다.	金 의 작물이 흔하다
丑	군사분쟁, 도둑이 있다.	火 의 작물이 흔하다 木 의 작물이 귀하다
寅	평년이다.	金 의 작물이 귀하다
卯	군사분쟁, 도둑이 있다.	金 의 작물이 귀하다
辰	평년이다.	火 의 작물이 흔하다 木 의 작물이 귀하다
巳	군사분쟁, 도둑이 있다.	木 의 작물이 흔하다
午	평년이다.	木 의 작물이 흔하다
未	군사분쟁, 도둑이 있다.	火 의 작물이 흔하다 木 의 작물이 귀하다
申	평년이다.	火 의 작물이 흔하다
酉	군사분쟁, 도둑이 있다.	火 의 작물이 귀하다
戌	평년이다.	火 의 작물이 흔하다 水 의 작물이 귀하다
亥	군사분쟁, 도둑이 있다.	金 의 작물이 흔하다

二十四축산사

①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인가 여부	
② 이익이 큰가, 작은가 여부	이익이 크다: 春 吉하다 / 夏 吉하다 / 秋 凶하다 / 冬 흉하다
③ 어떤 육축이 좋은가 여부	
④ 피해를 줄 가축은?	
⑤ 양축이 쉬운가, 힘이 드는가 여부	

二十五수렵사

포획내용 / 정단계절	春	夏	秋	冬
① 짐승을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				
② 무엇을 잡는가?				
③ 짐승의 피해 유무 여부				
④ 잠복이 유리한가? 나서는게 유리한가?				

二十六어획사

① 고기(생선)를 잡는가? 못잡는가? 여부

② 사고 유무 여부

년 도	사 고	년 도	사 고
子		午	
丑		未	
寅		申	
卯		酉	
辰		戌	
巳		亥	

二十七도박사

① 유리한 좌석은?	
㉮ 子 下 지지 방위 여부	
㉯ 공망 방위 여부	
② 따는가 잃는가?	
㉮ 승패 여부	

승패 / 정단계절	春	夏	秋	冬
대 응 성				
전 웅 성				

㉯ 잃는 띠

띠		띠	
子		午	
丑		未	
寅		申	
卯		酉	
辰		戌	
巳		亥	

二十八사복사(射覆)

(작단된 공간속의 내용물을알아맞추는 법)

① 무 · 유물 여부	낮귀: 유물 밤귀: 유물
② 생 · 사물 여부	春: 생물 夏: 사물 秋: 사물 冬: 생물
③ 어떤 형상인가?	원형이다.
④ 형태 여부	손발이 있다.
⑤ 무엇인가?	春: 土파충류 夏: 화과, 표백 秋: 화과, 표백 冬: 土파충류
⑥ 신 · 구, 장 · 노 여부	春: 新物 · 壯 夏: 新物 · 壯 秋: 舊物 · 老 冬: 舊物 · 老
⑦ 지난철, 제철 것 여부	제철 것이다.
⑧ 먹을 수 있을까 여부	먹을 수 있다.
⑨ 무슨 맛의 것인가?	신맛이다.
⑩ 무슨 색인가?	春:청색 夏:흑색 秋:황색 冬:적색 季:백색
⑪ 몇 수(數) 인가?	春: 98 夏: 14 秋: 7 冬: 49
⑫ 좌우 어느쪽에 들었는지?	左측이다.

책 · CD 구입 · 교환 문의 **전화 02-993-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813-041583-13-101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출고정가 400만원(책 · CD 할인 구입금액 350만원 ※8월15일까지 / 책 · CD 교환 · 교체 금액 103만원) ■전60권 각권 크기 4×6배판 각권 564 페이지 양장제본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강원 강릉
- 법당:15평
- 요사:15평
- 부지:1200평
- 가액:3,500만원

- 위치:경남
- 법당:10평
- 요사:15평
- 부지:33,000평
- 가액:7억

- 위치 : 경남
- 법당 : 46평
- 요사 : 80평
- 부지 : 10,000평
- 가액 : 7억5천(급매)
- 납골당 1000기 시설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최요지
- 평수 : 30평 3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급한 사정상 최저 양도

011-202-220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범어사 입구
- 평수 : 400평
- 현재포교당운영중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교활동을 하실 인연있는분을 찾습니다

011-848-0006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양재동 (전철역 1분거리) 최고 중심지
- 법당1, 거실1
- 전세 : 6천500백만원
- 시설비:절충가능
- 철학관 운영하실 분 환영

011-358-425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 부지: 1000평
- 법당: 30평 목조
- 요사: 30평
- 가액: 9억

- 위치: 서울
- 대지: 25평
- 인법당: 23평
- 가액: 8천
- 포교요충지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 면적: 500평, 700평 (두필지)
- 가액: 평당 5만원 (가격절충)
- 산중조용한곳 수행만하실분

011-538-726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천혜의 자연조경(소나무)에 명당 시내 10분거리
- 부지 500평, 노천미륵법당
- 법당 30평, 요사 30평, 산신각 3평
- 가액 : 2억(융자6천포함)

033)644-3149
011-452-8374

포교당안내

- 경기도 고양시 시청근처 3층건물 중 3층 80평
- 법당, 요사채, 주방, 방5개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011-307-3473

포교원안내

- 마산시 산호4거리 시장입구 3층건물 중 2층
- 건평 : 30평, 법당 11평, 방2개, 주방, 화장실
- 보증금 1000평, 월 45평 권리금 : 답사 후 결정

055)243-3758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02)481-3635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남 창원 시내
- 평수 : 28평
- 요사 : 방 2개
- 상가건물 매각임
- 양도가 : 9500만원 (융자가능)

- 위치 : 강원도
- 부지 : 1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5억5천만원
- 산세 및 계곡 절경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 기도정진할 스님 특별조건
- 납골탑만 매매가능

011-9415-6831

포교당안내

- 대전 서구 도마동 3층건물 중 2층
- 평수 50평, 법당 25평,방3개 주방, 창고, 화장실
- 가액 : 전세 2200만원 시설비 1400만원

019-688-1989
010-4405-716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반구동 (최고적지)
- 시설 완벽 최고급
- 내부 실평수 약 5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2500만원, 월 50만원

010-4871-8577

신축사찰안내

- 대구 파계사 옆 2차선 포장도
- 대205평 텃밭110평 건물70평
- 목조형 철근조 02년말 준공 남향 1층 방5 거실, 욕실, 주방, 보일러 2층 큰법당, 주지실, 거실, 조무실
- 요산 요수 자연 앞냇물 뒷山竹林
- 가액: 2억5천(답사후 절충)

016-875-983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온천3동
- 71평 3층, 법회즉시가능
- 가액: 전세 7천만원 (5천만원에 월20만원)
- 포교당 15년 됐음
- 시설비 없음

011-9571-1710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서창
- 부지 : 216평
- 법당 : 5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3억3천

※부산시내버스 통행

- 위치 : 구룡포
- 대지 : 1500평
- 법당 : 50평
- 요사채 : 150평
- 가액 : 20억

※동해바다 접한 대도량

- 위치 : 해운대
- 대지 : 2천평(지상권)
- 법당 : 15평
- 요사채 : 15평
- 가액 : 3억3천

※전망최고 별장식 토굴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매물(50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부여 (산세수려하고 경관 최고)
- 평수 : 대지 200평,건평30평 (방4,부엌,거실,욕실) 건물20평
- 임법당1, 정원, 창고, 텃밭, 지하수2
- 신축건물, 벽돌, 기와
- 가액 : 1억5천만원(절충가능)

011-792-6910

사찰안내

- 위치: 대구
- 대지: 102평(신축건물)
- 금액 : 3억 1천만원 (융자 4천만원 포함)
- 법당 : 28평 ● 요사채 : 45평
- 방5개, 구조편리, 화장실4개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수정2동 법륜사
- 평수 : 25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 바로 법회 가능

055)672-2689
011-816-3289

사찰(급)안내

- 위치: 정동진(바다바로옆 위치) 전망최고
- 오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1동은 건물등기 되있음
- 가액 : 55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033)644-5797
011-9918-5251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산 국립공원 입구
- 기도정진,포교적합지
- 대지 : 153평,건평18평, 임법당, 창고10평
- 가액 : 3천7백만원

011-9116-6605
043)652-0383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4층 중 2층
- 방3, 부엌1, 화장실1, 법당30평(총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1-822-6104

사찰(급)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9천만원(전세 5천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 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서구 정류장 근처
- 75평 방3개, 법당,
- 부엌, 화장실, 집기 일체
- 주차장 있음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시설 일체 완비)

011-308-4225

전통사찰안내

- 위치 : 원주
- 부지 : 1,036평 ● 법당 : 30평
- 삼성각 : 6평 ● 요사채 : 2동(30평,15평) (목조 및 단청)
- 산자수려하고 치악의 영지가 뻗어 이 도량에 분출함이 아! 아! 여기가 천하기도 영험도량이로다. (전화로 길만 물으시고 가액은 스님과 직접 면담합니다)

* 신문에 처음 게재함

033)731-6612

도심의 사찰

- 위치: 원주시내 (40년된 사찰로 조그마한 야산에 있음)
- 대지 : 200평
-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각, 요사채2동, 스님방 별도
- 가액 : 2억 5천만원

011-327-5863

토굴안내

- 위치: 대구권
- 대지: 170평
- 임법당: 20평
- 요사: 30평
- 주차장 포장, 그림같은 토굴
- 모든시설 현대식 몸만으면됨
- 가액: 전부 1억9천만원

011-803-6962

암자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 법당, 요사, 산신각, 용화전, 용왕전, 정각2
- 물좋고 산세 경관 수려
- 실버타운 가능

011-9126-2266

인도성지사찰운영하실분

-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 고려사
- 평수 : 2400평
- 법당, 요사 40평
- 사무실, 화장실 15평
- 경비실 10평

011-307-3473

사찰.연수원.실버타운부지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여건 : 해발 300m3차선도로접 오염안된 좌우계곡 합수머리 주변 맹지,국유지 12000평
- 면적 : 대지 1110평(근생270평포함) 전460평 국유임대. 2,350평 건물3동 방가로2동 원두막2동 앞마당 연못 300평 ● 가액 : 10억원

011-318-0838

탈종공고

- 사찰명 : 용주사
- 성 명 : 임창균
- 법 명 : 경 오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 242-16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 탈종을 공고함

서기 2004년 7월 22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노법철)법하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산현리
- 대지 : 108평
- 법당 : 21평
- 요사 : 20평
- 주방,욕실,보일러 시설완비
- 가액 : 7천 5백만원

054)533-1477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산동 약수마을
- 대지 : 150평(독채)
- 법당(목조)25평, 삼존불, 약사여래불, 신중단,영가단
- 스님방6평, 요사채10평
- 산신용왕당, 텃밭
- 전세 양도 : 2천3백만원

018-550-7260
016-429-2820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 전체 3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5만원 권리금 1천만원

011-489-3758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동래온천시장 내
- 총 45평(3층건물 중 2층)
- 호불500불, 인등500, 연등 1000개
- 원목 닫집 단청 필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절충(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포교원안내

- 마산시 부림시장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절충가능)
- 도심포교 최적지
- 노송과 대나무가 있는 토굴
- 남원 광한루에서 5분거리
- 현대식 20평(방2, 거, 주, 화)
- 가액 : 4000만원(절충가능)

016-424-0500

사찰(급)안내

- 위치: 대전 상가주택
- 2층 최신시설 요사채 50평. 3층 27평 법당
- 대전 안영 IC 부근 아파트 밀집 지역
- 방문환영, 비구니스님 환영
- 보증금 3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42)583-9839

암자(급)안내

- 위치 : 전남 (최적지) 시내중심시장에서 걸어서 3분거리
- 대지 : 110평
- 30년된 안정적인 사찰
- 가액 : 1억3천만원

011-9667-9067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왜관 칠곡 산세수려, 고지 350
- 평수 : 800평
- 선불 : 200만원 1년 : 300만원

011-550-8180
055)335-8188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시화 신도시
- 시설완벽 최고급
- 내부실평수 53평, 베란다 약 20평
- 난방 전기 큰방2, 거실겸주방 1, 샤워실겸화장실2, 엘리베이터, 주차장완비
- 가액: 보증금2천 시설비3000만원, 월60만원

031)432-7406

토굴 겸 팬션안내

- 위치 : 남덕유산자락
- 부지 : 1630평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가액 : 5억(대출가능)
- 특징 : 맑은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016-367-2112

사찰용도안내

- 위치 : 아산 천안역 40분 온양 도고온천 15분 포장 도로접
- 대지 : 200평 건물 30평 2동 유실수 조경 합 773평 727평(감나무 포도나무 포함) 106평(대지 돌담 감나무 등 오래된 집)
- 가액 : 상담 후 결정

042)332-1069
019-9141-875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운양면
- 건물: 일반 한옥 사찰
- 요사채, 총건평 45평 대지 159평 삼존불, 각단 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교통편리 (거창에서 김천방향 국도변)
- 모든시설 사용이 편리함
- 가액: 8천만원

019-503-7959
055)942-915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 건물: 5층건물 3층(56평)
- 법당(20평), 요사채
- 방2개, 큰거실, 공양간, 화장실 별도
- 비로자나불 부처님 모셔져 있음 후불탱화 3점
- 비품: 대형냉장고, 에어컨 시설, 정수기
- 기존 신도로 즉시법회가능
- 가액: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053)756-7339
011-9599-6996

포교당안내

포교당 운영하실분

- 스님 의 건강상으로...
- 역세권 70평
- 5층에 5층 건물
- 법당, 요사채 분리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70만원 시설비는 절충가능
- 불교대학 현재 운영중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1-750-5424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550만원

032)511-4974

부전스님 필요하신곳 연락바랍니다

“발굴전담기구가 고고학 앞길 막아”

부산대 박물관 신경철 관장



“문화재 발굴전담기구의 상당수는 돈벌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고학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영남고고학보> 제34호에서 ‘발굴전담기구, 이대로 좋은가!’라는 시론에서 현 문화재 발굴전담기구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부산대 박물관 신경철(53 · 사진) 관장. 지금의 유적 발굴 체제 하에서는 젊은 연구자들이 의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없음을 알기에 혹 닥칠지 모를 불이익을 무릅쓰고 문화재청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신 교수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설립된 발굴전담기구들은 고고학계의 건강성과 학문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한다”며 그 같은 발굴전담기구가 난립하게 된 것은 문화재청 탓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발굴전담기구들을 감독하고 육성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에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설립, 퇴임관료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한편 재단의 재정적자를 발굴조사비를 활용해 충당하는 등 변칙 운영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발굴작업 부실
보호재단 허점
문화재청 잘못

이와 같은 문화재청의 행태를 지자체들도 그대로 답습해 자체 발전연구원 산하에 발굴조사단을 두고 발굴조사비의 상당 부분을 발전연구원 적자 보전에 전용하고 있다고 신 교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구조는 젊은 연구자에게 기득권자를 위한 희생을 강요해 고고학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신 교수는 “먼저 문화재청이 비정상적인 산하단체들을 개선하거나 정리하고, 문화재청은 발굴기구의 감독 및 육성에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야 “한국의 발굴전담기구가 정상적으로 육성되고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익순 기자

“공안 공부 등한시하는 경향”

‘선과 교’ 관계설정 · 지도방법 등 뜨거운 토론

제15회 전승련학술대회 주요 논점 요약

“강원 과정을 마치고도 손에 올바른 수행의 지도를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인에게 명확한 수행체계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날 간화 종문은 보편적 개념과 살아 있는 언어로 최상승의 간화 종지를 재구성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언어와 화석이 된 전통문화로 덧칠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7월 20 · 21일 양일간 제9교구본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전국승가학인연합 주최로 열린 ‘제15회 전승련 불교학술대회’.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사미승 200여명이 참가, ‘교학과 선의 관계’, ‘간화선 수행과 공안 공부의 문제’ 등을 논제로 토론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조계종의 수행법인 간화선의 중요성은 대개 인정하면서도 교학과의 관계 설정, 지도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첫째 논제인 ‘교학과 선의 관계’와 관련, 논주인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에서 공안적 요소를 찾아내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님을 밝혔다. 또 강원을 학불장(學佛場)으로, 선방을 선불장(選佛場)이라 불러온 예를 들며 수험생이 공부를 하고 시험에 응시하듯, 교는 선의 예비과정이며, 선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월호 스님(해인사 강원 강사)은 “경학이나 참선 중 하나만 택해 계속 공부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양관 스님(통도사 강원 강사)은 “강원(승가대) · 동국대와 아울러 기본 교육기관 중 하나인 기본선원은 학불장을 뛰어넘어 선불장으로 나아간 경향이 있다”며 교학과 선의 선후관계 주장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묻기도 했다.

둘째 논제인 ‘간화선수행과 공안공부의 문제’에 대해 논주로 나선 성본 스님(동국대 교수)은 “선불교의 수행체계는 조주의 무자화두 참구를 통한 사마타 수행(止)과 공안 공부를 통한 위빠사나 수행(觀)을 골격으로 하는데, 한국불교에서는 공안 공부가 등한시 돼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간화선의 수행은 중생심에서 무자(無子) 공안을 참구하는 방편적인 시각(始覺)을 본각(깨달음)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라며 “‘이 뭣고’로써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참구한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전향하는 본래심의 참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눌 · 혜심 · 보우 · 경봉 스님이 무자 화두 참구를 강조했고, 대혜 스님이 조주의 무자 화두만을 유일하게 강조했다는 점을 들며 무자 화두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혜원 스님(동국대 교수)은 “납자의 안목에 맞는 공안을 내리면 되지 굳이 송대의 선법인 무자공안에 천착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고, 지환 스님은 ‘이 뭣고’에 대한 성본 스님의 주장이 “학인 스님에게 혼란만 주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술대회의 주제가 오랜 수행 경험이 있는 선 수좌들에게나 적합한 것”이라며 학인 스님들에게는 “참선 수행 준비 방법 또는 구체적인 선수행 방안 등이 더 절실한 주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등이 참석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은 기조법어를 통해 “간화선의 특징인 활구참선을 통해서 여러 생이 걸릴 성불을 금생에 마칠 수 있다”며 간화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활구참선을 위해서는 선지식 스님을 찾아가서 화두를 바로 간택 받고 일상 속에서 오매불망 의심과 화두제목을 같이 챙겨야 한다.”고 법문했다.

박익순 · 배지선 기자 ufo@buddhapia.com



200여 학인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동화사에서 열린 전승련 학술대회 모습.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3>

존재의 의미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는 동물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의미한 것에 대해 참지 못한다. 같은 맥락에서 심심하고 따분한 것 또한 견디지 못한다.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된 이상 사람은 의미를 찾아 헤매게 되며, 이로 인해 수많은 구도자가 등장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표현이란 형태로서 많은 예술가가 탄생하기도 했다. 과연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지구상에 태어난 수많은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여 사라져 간다. 출생의 숫자만큼 죽음의 숫자가 기록되는 것이다.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우리는 이것을 생존본능이라 부른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 이러한 인간의 지적 욕구는 생존 본능과 연결돼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늘리고자 하는 애처로운 몸짓마저 하게 만든다. 생명체라는 개체를 조금이나마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현대의 생명과학도 역시 이러한 애처로운 몸짓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인간은 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는가?
생존본능 따른 애처로운 몸짓 일뿐…

아무리 생명과학의 발달로 각 개체의 형상을 유지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난다 해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기에 주위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자그마한 곤충과 우리 인간들과 결국은 서로 다를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렇듯 동일한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구도자가 해왔던 것처럼 굳이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 행위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미를 묻는 행위는 마치 지금 비 오는 바닷가에서 내리는 빗줄기와 바람을 향해 몸의 방향을 바꿔가며 웅크리고 떨고 있는 갈매기에게 너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같다. 그 갈매기는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 갈 것이고, 또 다른 갈매기가 태어나 그 자리를 대신 할 뿐.

자신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구도의 끝은 그 출발점이 된 의미를 내려놓음으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마무리 된다. 다시 말하면 마치 갈매기가 태어나 열심히 살다가 특별한 의미 없이 그저 죽어 가듯이 사람도 자신의 무의미성을 받아들이게 될 때 스스로 부여해서 그토록 자신을 얽매고 가두고 있던 의미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무의미한 것은 참으로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것이다. 심심한 것이야 말로 참으로 충만한 것이다. 끝임 없이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헐떡임으로부터 놓여나 생명의 다양함으로 가득 찬 이 화엄의 세상에서 그동안 하찮게 생각하던 미물과 더불어 내가 이대로 평등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빛내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인간만의 특별한 의미 부여는 전혀 필요 없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의 열반이 적멸(寂滅)을 뜻하듯, 그래서 불제자라면 우리 시대의 생명과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바빠지고 있음을 알아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그게 내 열반송이다’라고 하신 서암스님의 담담한 말씀을 새겨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 / 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행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제할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경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암사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9月경 제2회 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수륙재 산신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마(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스님분은 보시금.100만원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49재,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부설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명상의 말씀과
불시낭송 테이프 제작 및
전국 사찰의 각종행사 및
의식에 낭독하실 여성우구함
<초보자로 3개월 합숙 훈련 가능자>
017-409-9599

서울 중심부에 있는
작은 암자입니다
운영하실분
연락주십시오
02)391-8579

실버하우스 오픈
쾌적한 산중도량
신축 주거공간
호스피스(간병)제공
입주 보시 3천만원
연락처 031)867-1801~2
016-703-6648

영산재,49재,
천도재,점안식,
시다림,각행사 불공
▷바라,나비무를 겸한 우리말의식
016-9414-1525
02)2212-0686

풍기정품홍삼액골드
100g × 60포
100g × 30포
※ 공장직거래..(선물용, 단체주문 환영)
풍기홍삼정품유통상사
● 주문처 : 054)634-3429
● 휴대폰 : 011-9373-3778

백련꽃차
(생화)
백련잎차
(덖음)
041)542-4594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 2~3일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 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일주문



'불교근본교설의 이해' 강좌 개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삼학원장 지관 스님은 7월 31일 근본경전 강독을 통한 '불교근본교설의 이해' 강좌를 개설한다. (02)765-9602



삼광사서 제2회 청소년 기원제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7월 25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인 '제2회 청소년 기원제'를 봉행했다.



9기 원각불교대 졸업식

부산 원각선원 주지 성각 스님은 7월 20일 대연동 원각선원 법당에서 제 9기 원각불교대학 졸업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도피안사서 관법명상 수련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목정배 총장은 8월 7~15일 안성 도피안사 보현당에서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 12차 관법명상 수련회를 개최한다. (02)808-6582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 수계법회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 송병국 회장은 7월 30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11-9576-2884



'북녘역사유적' 청년대표 참석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옥 회장은 8월 3~7일 북한 묘향산 일대에서 열리는 민추본 청년학생위원회 주최 '북녘역사 유적답사'에 불교청년대표로 참석한다.



'달마사행론' 불전강좌 개설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이사장은 7월 30일 문화원 강당에서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 상임연구원 원광 스님을 강사로 '달마사행론' 불전 강좌를 개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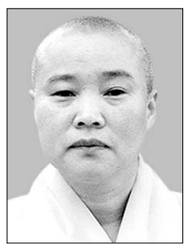


부안 내소사 일대 순례

인터넷 불교여행 카페 동호회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상희 회장은 7월 31~8월 2일 부안 내소사 일대에서 16회 정기순례를 갖는다. 017-343-2759

소승불교권 한국승가교육 '선망'

태국 대 · 소승불교국제대회 참가 해주 스님



"한국 불교의 훌륭한 승가교육체계가 테라바다 불교권 국가들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사진)은 7월 16일~20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대 · 소승불교 국제대회에서 '한국불교 승가의 비구니 및 사미니교육'을 주제 발표했다. 스님의 이번 발표는, 이 지역의 비구니 승단 복원 운동이 기지개를 켜면서 한국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해주 스님을 비롯 아산병원 법사 지홍 스님이 '한국 비구니의 병원봉사 현황'을, 진명 스님이 '한국 여성불자들의 대중매체포교 현황'을 발표했다. 해주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을 중심으로 참가했는데도 주최 측은 우리를 공식 한국 대표단으로 깍듯하게 예우했다"며 달라진 한국불교 위상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화합'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대회는 태국왕립 마하 출라롱컨대(총장 프라 텝소혼)과 대만 불교단체가 공동 주최한 대규모 행사로 올해가 첫 대회였지만 26개국에서 1000명의 불자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주최 측은 대회기간 동안 대승과 소승불교의 화합, 국제적 연대, 협력을 통해 최근 거세지고 있는 타종교인들의 도전에 전세계 불자들이 좀더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승불교의 사회구제와 복지분야에 대한 대승불교권의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주 스님은 "한국불교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남방불교 비구니 승단 복원 운동 지원은 물론 개도국 불교권 국가들에 대한 종단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20일 결의문을 통해 내년 5월 15일(음력 4월 8일) 'Vesac(남방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2차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동국역경원 40주년 기념법회

7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서



7월 21일 조계사에서 열린 동국역경원 40주년 기념법회.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은 개원 40주년을 맞아 7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역경원 후원회장 석주 스님(칠보사 조실)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동국학원 이사 영담 스님, 홍기삼 동국대 총장, 국회정각회 이용희(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상물 상영, 각계의 격려와 축사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석주 스님은 "어둠 속에 무궁한 보물이 있어도 등불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듯이 부처님말씀을 전해주는 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알아볼 길 없다"는 <화엄경> 구절을 인용하며 역경사업을 '부처님말씀을 전해주는 이'에 비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월운 스님은 "그간 도와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역경 사업에 매진하겠다"며 적극적인 후원 동참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한글대장경 개역 전산화 불사를 완성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활발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재학생 · 동문 불심 하나로 모을터"

대불련 경북지구동문회 초대회장 임해수 씨



"각 대학별로 구성된 대불련 활성화가 큰 목적입니다."

7월 15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문회 초대회장에 취임한 임해수 씨(67학번, 곽병원 마취과장 · 사진)는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문회 창립 목적을 단호히 한마디로 잘라말했다.

"대불련 동문들 사이에서 그간 대불련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한 임 회장은 "불자들의 힘이 모여야 대불련 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에 한 몫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별 · 연령별 흩어진 동문조직을 하나로 결성하는 것을 올해 과제로 삼았다.

임 회장은 이를 위해 대학별 2명씩 뽑은 부회장들과 함께 각 대학별 동문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또 대불련 재학생들과 합동법회를 봉행하거나 사찰순례 등산, 문화유적 고적 답사 등 테마가 있는 각종 행사를 마련해 잦은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한국 불교음악 유럽에 메아리

백명숙 나르바나합창단장



"불교 음악과 한국 전통 음악의 멋을 유럽의 음악인들에게 전하고 상까지 받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7월 8~18일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제 3회 브레멘 합창올림픽' 종교음악 종목에서 동메달을 수상하고 돌아온 부산 니르바나 합창단 백명숙(단장 대일심 · 사진)의 말이다.

50여 단원들과 함께 합창 올림픽에 참가한 백 단장은 총 26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되는 합창제에서 종교음악 부분은 본선에서 동메달을, 반주 민요부분은 예선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돌아왔다. 이찬우 씨의 지휘로 종교음악에선 '예불', '화청', '길', '영산회상' 등 찬불가를, 반주민요 종목에 '새야 새야', '오돌또기' 등 전통 민요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백 단장은 "불교 음악을 위한 후원회가 결성돼 그 깊은 멋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문광부 장관 초청 7대 종교 지도자 오찬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 7대 종교 지도자 오찬이 7월 19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길자연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조규만 천주교주교회의 사무처장, 원불교 이혜정 교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 펼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종로구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등과 함께 7월 20일 종로구청 회의실에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 조인식을 열고 전통적인 3대 가정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은 한 가족 3대가 함께 식당, 영화관 등 서비스업종을 이용할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로, 종로구내 음식점 11개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조인식에는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체부동 소재 음식점 '토속촌'에서 3대사랑 실천 1호점 개점 현판식을 거행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15년치 '달마회보' 합본집 제작

김경복 달마회장 1주기 추모사업



거사불교 운동에 앞장섰던 故 김경복(사진) 대한불교 달마회장 추모 1주기를 맞아 <달마회보> 15년치 합본집이 제작됐다.

8월 7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능인선원에서 거행될 김 회장 1주기 추모재에 봉정될 달마회보 합본집은 A4용지 크기의 원래 판형 그대로 지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근세 거사불교의 큰 축의 하나인 달마회의 활동상 등이 담긴 이 합본집은 각 대학 도서실을 비롯한 일반 도서실과 불교대학, 사찰에 기증된다. (02)923-4756

육군 제22사단 율곡부대 수계법회



강원도 고성 육군 율곡부대는 7월 18일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을 계사로 부대내 제훈관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600여명의 장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도문 스님은 "철저하게 계를 지키라"고 당부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 / 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등우의 영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행학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경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백집, 유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눈 ● 충혈, 눈물, 피로, 눈꼽, 눈이 백백함 ● 침침함, 가려움, 기타 불편증세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눈에 좋은 물질 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
일본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50세이상 부전스님 모십니다 45~55세이상 공양주보살님, 행자모집 보지않는 현책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1-259-5989

사무장 구합니다 신심있는 불자로서 사찰에서 거주하며 컴퓨터 사용가능 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보문사 011-422-6757 041)542-7843

모 집 부전스님 한분(25세~45세) 행자 약간명(25~35세 고졸이상) 공양주 한분(25세~50세) 054)383-8032 011-307-3473

부산 중심지에 있는 조계종스님의 포교당입니다 조계종 비구니스님 및 종파 초월한 비구니스님께 관리 운영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양주(40~50대)구함 051)441-1430 (설법원)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010-6384-7557

조용한 암자에서 기도나 공부하실 스님 또는 처사님을 모십니다 031)582-0635

출가학교-모집(21일간)
▶ 자격 16세~41세, 남녀, 완전무료 ▶ 8월 16일 - 9월 4일(1기)
▶ 남자는 삭발, 여자는 자유
▶ 행자복 지급등, 모든지원 (교육후 출가, 환속자유) 산중분원 및 대구큰절 이동교육
문의 : 011-9852-0075(충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천만원 미만의 시주금으로 평생 절에서 함께 기도하며 지내실 보살님,처사님 모십니다 남여노소 관계없음 ▷서울 강동구 포교원 016-261-206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212-9810

남,여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모심 ▷법비오는곳 기도영험도량 동해사 강원도양양 011-696-8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태안 바닷가 사찰 041)673-1888

기도스님 구합니다 054)834-6934

부전스님 구합니다 011-509-0124

神典건축
• 사찰, 암자, 사당 • 한옥 리모델링
• 명상, 요가센타 • 조경과 조형물
• 다도방, 황토방 • 디자인 & 미술까지
두레우물
031)771-932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 삼존불, 산신탱화, 후불탱화 등 모든시설 완비
● 평수 : 40평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 스님 몸 안좋은 관계로 급 안내 모든집기 일체 포함
041)337-8078/011-332-8079

암자안내
● 위치 : 서울 상계4동 (수락산, 4호선 당고개역 종점부근)
● 법당채, 방5개, 거실, 주방, 요사채, 방2개, 창고, 기름보일러, 밭 30평
● 가액: 전세 2000만원+110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월세도 가능함
011-9960-0620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소설가 · 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살인기계'를 보며…

"당신보다 힘들었지만 난 살인을 하지 않았다." 11개월 동안 2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를 향해 평범한 사람들이 던지는 분노의 항변이다. 어려운 환경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또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범죄를 안 저지르지도 않는다.

엽기란 말을 함부로 써댄 업보인가. 잔혹의 사육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두, 지존파, 막가파 다음에 그가 놓인다. 미술과 문학에 재능을 가졌던 섬세한 소년이 희대의 살인 기계가 되었다. 그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정식적 삶을 위해 노력한다. 세상은 부조리한 아수라장이기도 하지만 인내와 노력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서 낙오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내심에 져서 망가진 것이다.

혼돈의 시대이다. 가치와 질서의 올곧은 가닥이 없다. 현실과 게임을 동일시한다. 충동과 자극은 기하급수적으로 단위를 높여간다. '양들의 침묵'에서 시작된 불특정 대상을 살해하는 영화는 숨가쁘게 자극의 강도를 높여간다. 맹목적 증오, 맹목적 살인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

"'한 인간이 품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증오심이 연쇄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공격 행위로 표출된 것'"이라는 학자의 정의가 감동적이기보다는 허탈하다. 무엇을 잃었기에 극단의 증오가 범람하는가.

흘러간 옛 노래처럼 맥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행복의 최소 단위를 다시 점검하고 수리해야 한다. 증오와 파괴의 수렁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구출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다. 모든 문제아, 범죄자의 뒤에는 불우한 가정 환경이 있다. 물론 그것이 일탈 행위의 면제부가 될 수 없다.

처참한 살인의 광란을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상기한다.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이라는 무책임한 농담은 철회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도 면책 특권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아내도,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남편도 어느 한 부분은 미덕이 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지 않은가.

두 달 전 미국인 무량스님과 며칠 간 동행한 적이 있다. 이혼과 가족 해체가 수저 바꾸듯이 쉽고 자유로운 곳이 미국이 아니냐고 물었다. 스님의 대답은 나를 심히 부끄럽게 했다. 그것은 잘못 알려진 미국의 모습이다. 이혼율 50% 정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심지어 권장할 만한 일인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손 가정의 미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는가. 마약과 범죄가 일상 깊숙이 침투한 것은 부모의 불화와 가정의 붕괴에 기인한 것이다. 스님의 출가도 가정사와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 시절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는 용감무쌍하게 1년만에 재혼 그후 삼혼을 했다. 스님은 세상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출가수행으로 승화시켰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한다. 익명과 단절이라는 시대의 어두운 초상을 탄식한다고 범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사회의 인프라가 가정이다. 가정이라고 해서 저절로 건강성과 행복이 보장되는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때로는 서로 가위질을 하며 가꾸어 나가야하는 나무이다. 건강한 나무가 많아지면 건강한 숲이 된다. 수행 공간이 천하절경의 명당에만 있는가. 번잡한 저자 거리 역시 수행터이다. 얼굴도 이름도 남기지 않고 비명에 간 넋들에게 명복을 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정부통계에 따르면 현재 20세 이상 국민의 15%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2002년 기준 무려 3조6천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선진도상국에서 자원봉사는 이제 개인적 취향을 넘어서서 국민적 생활의 한 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정부가 인식을 달리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을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 지원도 이뤄진다고 한다. 또 자원봉사자가 봉사도중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면 보상도 받게 된다고 한다.

최근 공청회를 통해 선보인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고 전국단위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설립,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국력'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에 대해 우리 불교계에서도 발빠른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 불교계는 자원봉사부분에 있어 항상 타종교에 뒤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원봉사란 글자그대로 스스로 나서서 남을 돕는 행위다. 불교가 아무리 보살행, 보시행을 역설하고 실천불교를 주창한다 해도 자원봉사가 미흡하면 불교는 구두선, 공염불의 종교로 전락하고 날이 갈수록 포교의 영역이 좁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이번 기회가 불교가 종교로서 사회적 호감과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불교계는 다함께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단위사찰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뛰어넘어 종단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극대화, 지속화할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아울러 자원봉사전문가와 지도자 육성, 비영리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타종교 배척

"모든 중생을 보되 부모와 같이 하라" 〈우바새계경〉

희대의 연쇄살인범이 검거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인간 세상의 각박함에 몸서리친다. 나를 아끼듯 다른 생명을 아끼는 도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골고루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은 언제나 1순위이지만 다른 생명을 대하는 마음은 언제나 '나' 다음에 놓여지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을 자신과 하나로 보고 부모처럼 공경하는 세상은 올 수 없는 것일까?

얼마전, 대학 입시를 앞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가 특정한 예식에 강제적으로 참가시키는데 이의를 제기 했다가 제적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두고 불교계는 물론이고 기독교계에서도 학교 측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비난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당학교의 교목이 직위해제를 당했다. 학교 측의 제적 조치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 까닭이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고구정녕 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차라리 배타적인 신앙이 옳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지나친 배타성이 개신교의 본래 교의와 인식을 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개신교의 배타성이 지속되는 한 지성사회의 눈총을 피해갈 길도 없을 것이라 믿고 있는 그의 결론은 '기독교 의식 개혁 운동'의 필요성으로 닿고 있다.

종교는 종교 바깥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한다. 불교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으로 철저한 상생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종교든 그 가르침의 본의를 얼마나 바르게 실천하여 인간 세상의 '오늘'을 가꾸어 가느냐에 있겠다.

■ 임연태(편집부장)

열린마당 사형제 폐지

사형제도 폐지 찬반 논쟁에 불이 다시 붙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7월 15일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종교계와 정부간 사형제도 존폐 찬반의견이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사형제도, 사법적 살인인가.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악인가?" 찬반의견을 들어봤다.

사형제는 곧 '사법 살인 행위'

진관(조계종 사형제도폐지위원장)



사형이란 죄악이다. 어떻게 인간의 귀중한 목숨을 법이란 이름으로 죽일 수 있나. 사형은 사법의 살인이다. 관제의 살인이다. 법이란 인간이 만든 법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의 존엄이다.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법도 소중한 법이라 할 수 없다. 법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법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이 됐다.

오늘에 있어서 종교는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을 합법화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대 서양 사회에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종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불살생의 이념을 근본으로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명도 살생해서는 아니된다고 말씀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존중의 나라로 한 계단 오르게 하기 위하여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을 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만일에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법이란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 사회는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지키려는 법의 존엄성을 성찰할 수 있다. 인간이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기에, 인간을 존중하라는 법의 정신의 실현이 중요하다. 인간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국가질서 유지 위해 존속돼야

제성호(중앙대 법학과 교수)



국가경영 차원과 공공의 관점에서 사형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우선 사형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범죄 억제 효과를 들 수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 가정파괴범 등 강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사형제도가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국민의 법감정도 사형제도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자업자득의 이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형제도 존치의 입장은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재는 사형제도 존치는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도 다른 생명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된다고 판결했다.

법 집행 기관인 법무부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형제도는 형사정책적으로 흉악범죄 억제 기능이 크고 범인을 영구 격리해야 하므로 사형제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최근 종교계가 사형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종교를 떠난 원칙과 제도로 국가질서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큰 틀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현대'만평 심 민 섭



오대산 월정사 불교대학 제 1기생 모집

선남자야, 누가 가장 높고 착한 이인가? 먼저 부처님과 법을 믿어야 하며,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배운 대로 행하여야 하며, 자기안의 해탈을 구하지 말고 대승에 회향하여 일체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는 자이다.《대반열반경》

월정사 불교대학은 '찾아가는 포교, 지역사회로의 회향'이라는 불교의 시대적 요청을 실현할 신도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계 대덕스님과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강좌를 개설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선근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1. 개 강 일 : 2004. 9. 4. 오후 2시(음력 7. 20. 토요일) 2. 교육과정 : 1년과정(2004. 9. 4 ~ 2005. 8. 31)
3. 교육시간 : 주 1회(매주 토요일 14:00 ~ 18:00 총 4시간)
4. 교 과 목

번 호	분 류	교 과 목 명	학 기	총강의시간	주당수업시간
1	선 택	불교입문	1	16	2
2	필 수	불교교리(근본불교)	1	16	2
3	필 수	불교문화	1	16	2
4	선 택	자원봉사론	1	16	2
5	필 수	불교사(조계종사 포함)	1	16	2
6	선 택	리더쉽과 지도자론	2	16	2
7	선 택	계율론	2	16	2
8	필 수	포교방법 및 상담론	2	16	2
9	선 택	불교사상사	2	16	2
10	필 수	선의 이해와 실참	2	16	2
11	선 택	경전의 이해	2	16	2

※특강 : 청소년 포교론, 불교사회복지 등

5. 수 강 료 : 연 240,000원(월 2만원, 입학금 포함, 교재대 별도) ※매학기 장학금(성적우수자) 지급
6. 모집인원 : 70명(선착순) 7.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매, 사진(3×4㎝) 3매
8. 원서접수 : 2004. 8. 1 ~ 8. 31
9. 문 의 처 : 오대산 월정사 종무소 (☎ 033)332-6664 ~ 5 / fax 033)332-6915, 담당 : 박재현)
10.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를 참조하십시오.

※ 불교대학 입학생의 경우 원하신다면 '산사의 하루'라는 사찰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말에 가족과 함께 월정사, 상원사에서 산사의 하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불기 2548(2004)년 7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불교대학학장 원행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제 1기생 모집

"이 세상에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는 불법 만나기 더욱 어렵다."고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의 숲길로 아름다운 민족의 성지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한 달 동안의 단기 출가자를 모집합니다. 삭발염의 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초심자(행자)생활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불법에 대한 신심고취는 물론, 밖으로만 치닫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삶을 돌이켜 점검해보는 일생에 있어 단 한번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일반인에게 삭발염의하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출가수행자로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의 도량인 단기출가학교를 열고자 하니 수희 동참하시어 겹겹이 쌓여 있는 무명 업장을 벗겨내시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체험하고자 하는 심신이 건강한 만 40세 이하의 일반 남녀
2. 모집인원 : 30명 이상 3. 수행기간 : 불기2548(2004). 9. 13. ~ 10. 12.(1개월)
4. 수행과정 ※ 수료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식행자로서 등록 및 인정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시	기상 및 예불						
5시	좌선, 원각경 독송, 백팔대참회						
6시 30분	아침 발우공양						
7시	운력 및 전나무 숲길 자연관찰						
8시	좌 선						
9시	교 육						
10시	소임 및 사시예불						
11시 30분	법 공 양						
12시~14시	포 행			보궁참배 산 행	포 행		
14시	좌 선				좌 선		
15시	교 육		특 강		교 육		
16시	소임별 운력						
17시 30분	저녁 발우공양						
18시 30분	저녁예불 및 기도(초발심자경문 독송)						
19시	교 육(소림무술 · 태극권 · 요가)						
20시	청규암송	소림무술 · 태극권 · 요가					
21시	취 침						

5. 수행경비 : 10만원 6. 신청기간 : 8월 1일 ~ 9월 4일
7. 문 의 처 : 오대산 월정사 종무소 (☎ 033)332-6664 ~ 5 / fax 033)332-6915, 담당 : 박재현)
8. 기 타 : 수행프로그램 및 자세한 내용은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를 참조하십시오.

불기 2548(2004)년 7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학교장 퇴우 정념

“피를 나누면 세상사람 모두 형제죠”

복지법인 ‘불국토’ 설립 10주년 맞아 자비의 헌혈행사



“혈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부산 양정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이 7월20일 헌혈차에서 자비의 헌혈을 하고 있다.

헌혈량 급감으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혈액 수급 파동은 날로 심각해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고 혈소판 공급이 필요한 백혈병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7월 20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 기관의 직원,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이 참여한 백혈병 심장병 어린이 돕기 불국토 자비의 헌혈 행사가 더욱 의미를 더하는 이유다.

직원·주민 등 200여명 참가

초복이었던 7월20일 오전 10시, 양정청소년수련원 앞에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버스가 세워졌다. 양정청소년수련원, 컴넷 하우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헌혈을 위해 차례로 버스에 올랐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헌혈에 앞서 외국여행 여부, 병력 등을 기재하고 나면 피검사가 이어진다. 헌혈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신분 조회까지 마쳐야 비로소 헌혈이 가능하다. 평소 헌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엄두를 못 내던 직원들도 용기를 냈는데 몸무게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여직원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꽤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고 헌혈을 할 수 있게 된 직원들은 의기양양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헌혈대로 오른다.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처음인데 혈액이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간염, 혈압 검사 등 건강도 점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잖아요.” 최인숙(컴넷 하우스)

“장기기증까지는 조금 고민이 되지만 헌혈은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헌혈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장봉주(양정청소년수련원)

“나도 헌혈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어서 기쁘다” “꼭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등 불국토 직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다.

헌혈 행사 막바지 즈음, 양정청소년수련원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헌혈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아들 현호의 손을 잡고 헌혈을 위해 달려온 조래성씨는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헌혈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참여했다”며 “아이들이 헌혈하는 것을 보고자라야 나중에 커서도 헌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서”라고 덧붙였다. 헌혈을 마친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지금은 피를 뽑는 게 무섭고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새로운 피가 또 생기니까 걱정 없어. 내 피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주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인 현호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에 그저 웃기만 한다.

헌혈 행사는 주민과 강좌를 듣는 수강생까지 동참하면서 2시간 남짓 이어졌다. 불국토 자비의 헌혈 행사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이수민씨는 “지난 4월 이후 헌혈자수가 많이 줄어들어 혈액재고량이 바닥상태다. 최소 3일치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하루 분량도 안 남아 있다.”며 “불국토의 헌혈 행사가 더욱 고맙고 값지다”고 말했다.

“생명 살리는 일 기뻐요”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피를 나눠주며 보살의 길을 서원한 불국토 직원들은 이번 자비의 헌혈 행사를 계기로 혈액 수급 파동이 잠재워지길 희망했다. 만 16세 이상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헌혈이 가능하다.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실천,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불국토 자비의 헌혈 행사에는 양정청소년수련원, 영주암 자비원, 개금복지관, 용호복지관, 컴넷 하우스, 부산시청소년쉼터, 보현어린이집, 용호어린이집 직원 및 지역 주민 등 2백 여명이 동참했다. 헌혈 적합 판정을 받아 헌혈에 동참한 사람의 헌혈증서는 모두 95장. 이 헌혈증서는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 운동 본부에 전달됐다. 현대불교신문은 이 헌혈증서를 생명나눔실천회로 전달, 백혈병이나 심장병 어린이를 돕게 된다.

부산= 천미희 기자

헌혈증서 95장 ‘현대불교’에 전달



불국토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혜총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사 서정만 이사에게 헌혈증을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겠다는 불국토 설립 이념을 펴는 작은 실천이 헌혈입니다. 피가 없어 죽는 이웃은 없어야 합니다. 불국토 전 직원, 봉사자들이 참여한 헌혈증서를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 운동 본부에 전달하게 돼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7월22일 부산 대림오페라 웨딩홀에서 열린 불국토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불국토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혜총 스님은 헌혈 증서 기탁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헌혈 증서를 전해 받는 서정만 이사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은 불교의 보시 정신을 사회에 확산하고 불자들의 나눔 실천을 이끌어내는 창구”라며 “불국토 자비의 헌혈은 보살행의 본보기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앞당기는 값진 보살행”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1994년 정관, 혜총, 정련, 수불, 범산, 지현 스님이 주축이 돼 설립된 사단법인 불국토는 이듬해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설립으로 폭넓은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해 왔다. 98년에는 재단법인 불국토 청소년 도량을 설립해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청소년 법인으로 자리잡았다.

지역 복지관을 통한 복지 실천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컴넷하우스, 실비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의 복지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단법인 불국토에서는 불교사회복지의 이론적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를 운영중이며,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를 통한 어린이포교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재단법인 청소년 도량은 2001년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청소년 수련시설로 선정됐으며 2004년에는 청소년쉼터를 위탁받아 청소년 사회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2일 열린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불국토 10주년을 돌아보며 2004 우수 프로그램 당선자 포상금 지급과 2004 우수 프로그램 당선 자료집 발간 행사도 함께 가졌다.

새생명광명회 의료봉사

(사)새생명광명회(이사장 김기원)는 7월16일 경남 진주시 지수면 일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새생명광명회는 2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의료 검진, 눈시력및 심장병 검사, 안경 나눔, 이발미용, 기침술, 상담등의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에는 경상의대 이상호 교수, 송준경 교수, 원영 스님(세심정사 주지), 채경영 사장(중앙당 안경점) 우덕기 원장(현대미용전문학원), 진주산업대

탁환호 교수, 천성호 국장(청교련 진주지부)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김원우 기자

▌나눔의 스티커 신청

충남 천안시 성정1동 부루나 데이케어 어린이집(원장 광현 스님)
저금통– 90개, 스티커– 100장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정순 보살
저금통– 10개, 스티커– 20장

대전시 용운동 박동렬 거사
저금통– 10개, 스티커– 10장

▌나눔의 성금

한마음선원 대전지원, 이경호 오용근 박정란씨 등 총 23만 190원

총 누적금액 17,895,54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오방색 · 기하무늬의 절묘한 조화
부처님의 마음으로 그려야…

12년간 8만4천문양 개발한 단청장 김윤오 씨



"단청은 고(苦)에서 벗어나 참 나를 찾는 몸부림입니다. 8만개의 문양을 모아 한 채의 건물을 완성하는 단청작업은 곧 수행입니다"

인류가 내면의 세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기위해 다양한 기호와 문자 등을 사용한 것에서 연원한 단청(丹靑). 5가지 색과 기하학의 절묘한 조화는 만다라의 세계를 표현한다.

50kg밖에 안되는 깡마른 체구, 앞 이빨 일곱개가 없는 단청장 김윤오 씨(51세). 30여년 올곧게 단청작업에 전념해온 그는 초도 없이 단청문양을 그려낸다. 붓 가는대로 움직여서 새로운 단청문양을 만들어내는 김 씨는 한여름의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 옆 손곡리 폐교 한켠에서 8만4천여 창작 단청문양의 채색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약 12년간 국내의 단청공사 현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었다. 그러던 그가 8만 4천여장의 단청문양을 들고 최근 우리곁에 나타났다.

한석성 선생에게 단청 배워 33년째
송광사 · 불국사 · 무녕왕릉 등 작업
'나' 놓는 과정통해 창작의 고통 극복
주변 일상 모습이 문양으로 이어져

그가 그린 단청문양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모사한 것이 아니다. 전통문양에 바탕하여 새로 창작한 것들이다. 그의 곁에는 금머리초 3만장, 금문양 5만장, 지장보살, 학, 천수천안, 봉황, 귀면 4천여장 등 대부분 뚜렷한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단청 문양들이 즐비하다.

그가 12년간 단청문양을 창작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는 18세 되던 1971년, 불국사에서 작업하던 국내 단청계의 거장 故 한석성(韓奭成) 선생 문하에 들어갔다. 그를 본 스승은 "맨손으로는 용을 잡을 수가 없으며, 선 자리에서 성불(成佛)할 수 없다. 끊임없는 자기수행을 통해서만 '도'를 얻을 수 있다"는 화두(話頭)를 준 뒤 8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알아서 화공들의 심부름을 하며, 어깨너머로 단청을 배우는 고된 생활 끝에 1979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사찰을 떠나 화승(畵僧)의 길을 접고 단청기술자로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도 했다. 기술을 인정받은 김 씨는 20년간 월정사 송광사 불국사 마곡사를 비롯 천마총, 무녕왕릉, 김유신 사당 등의 작업에 참여했다.

일에 어려움이 없고, 가정은 행복했지만 1991년부터 허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에게 다가온 의문은 '왜 한국불교 1700여년에 단청문양이 200~300여가지로 한정돼 있는가. 더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인가' 였다.

그에게 있어 이 화두는 끊을 수 없는 고행으로 이어졌다. 일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밥을 먹을 때까지 의문은 항상 붙어 다녔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려 보았지만 막상 문양의 난해함과 색깔배합의 어려움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럴수록 답답함은 가중됐지요."

그는 2년동안 새로운 단청문양 창작을 염원하며, 그야말로 단청문양과 사투를 벌였다.

옛 화승(畵僧)들이 선과 도를 닦고 경지에 이르기 위해 하나의 화두를 선택했듯이….

그러던 어느날 그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단청문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원(願)을 세운 뒤 자신의 몸뚱이를 버리기로 부처님전에 다짐했다.

그러자 주위의 어려운 모습들이 보였다. 그들을 보며 단청문양을 생각했다. 그가 본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소망을 담은 단청문양을 만들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문양이 자유자재로 그려졌다.

그때부터 10여평 남짓한 지하셋방에 작은 밥상을 놓고 단청문양을 완성해 나갔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종이에 발원문을 쓰고, 기도하면서 문양을 그려나갔다. 곳곳의 어려움은 새로운 단청문양으로 만들어졌다. 어떤 날은 '문양의 세계화' '싸움하는 옆집 부부의 행복'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학합격' 등을 기원하는 단청문양으로 등장했다.

두문불출하며,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밥도 하루 한끼를 먹는 둥 마는 둥 단청의 세계에 빠져있는 그를 보고 이웃사람들과 지인들까지 혀를 끌끌 찼다. 그렇게 흘러버린 12년의 세월. 그에게 남은 것은 45kg의 몸무게와 빠져버린 앞이빨 7개, 그리고 8만4천개의 단청문양….

"옛날 화승들이 그렇게 살았어요.단청의 세계는 기하학적 무늬와 귀한 자연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곳은 깨끗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세계는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8만 4천여장의 단청문양을 어렵게 완성했지만 그는 요즘 외톨이다. 집에 쌀이 없어, 형제들에게 의탁해야 할 정도다. 12년의 공백은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서울 삼성암 주지였던 동원 스님, 한석성 선생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대표적 3대 단청계맥을 이은 그를 따르는 10여명의 문하생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가족들의 볼멘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그는 이것도 수행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는 현재 후진들에 의해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등록이 신청된 상태다.

한편 김윤오 씨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제 1회 창작단청문양전시회를 연다. (033) 732-0538~9

글=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동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品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의 특징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림.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구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농 협 053-02-109450 윤재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재승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 화 : 02)732-2403~4 / 팩 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7>



진실한 믿음이 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대승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승을 표방하는 종파라면 어떤 수행문에서든지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며 염불 수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에서 정토에 왕생하는 정인(正因)은 보리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에서 말씀하신 정인이란 보리심(菩提心)을 말한다. 무상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세간의 부(富)와 즐거움(樂) 및 이승(二乘)의 열반을 돌아보지 않고 한결 같이 삼신보리(三身菩提)를 원하는 것이니 이를 무상보리의 마음이라 부른다. 총괄적으로 표시하면 비록 그러하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을 따라 발심하는 수사발심(隨事發心)이요, 둘째는 이치를 따라 발심하는 순리발심(順理發心)이다. 수사발심은 해야 할 일을 따라 발심하는 것이다. '번뇌가 무수하지만 모두 끊기를 원하고 선법이 무량하지만 모두 닦기를 원하고 중생이 무변하지만 모두 제도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일을 결정하여 기약하고 원하는 것이다. 처음의 원은 여래의 단덕정인(斷德正因)이요, 다음의 원은 여래의 지덕정인(智德正因)이요, 세 번째 원은 여래의 은덕정인(恩德正因)이다. 삼덕이 합하여 무상보리의 과(果)가 된다. 곧 이 삼심은 모두가 무상보리의 인(因)이 되는 것이다. 인과 과가 비록 다르지만 넓고 긴 양은 나란하고 평등하여 남음이 없으니 포괄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저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발심과 필경은 둘이 차별이 없으나 이와 같은 두 마음 가운데 앞의 마음이 어렵다. 스스로는 제도하지 못했지만 먼저 남을 제도하니 이러한 때문에 나는 초발심에 경례하노라' 하신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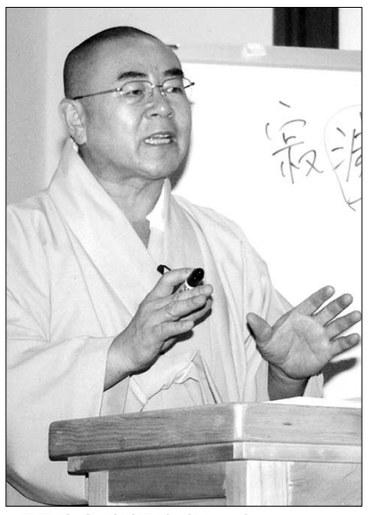
발심의 차원을 말하자면 공의 도리를 알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리발심,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사발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와 공에 대한 이해가 요원할 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도 일으키지 못하는 우매한 범부는 어떻게 발심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이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효는 <아미타경소>에서, "<경>에서 '가히 적은 선근복덕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한 것은 대보리심으로 많은 선근을 섭수하여 그것을 인연으로 삼아 정토에 왕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저 <보살지지경> '발심품'의 글과 같다. 또한 모든 보살이 최초로 발심하여 능히 일체의 보리분법(菩提分法)을 섭수하고 수승한 선근으로 상수제자가 되기 때문이다. 능히 일체 유정의 처소에서 삼업의 악행을 멀리해야 공덕이 상응한다는 것이다. 살펴 보건데, 보살이 처음 일으킨 보리의 마음이 능히 일체의 수승한 선근을 섭수하고, 능히 악업을 끊으며, 공덕이 상응(相應)하게 한다. 때문에 "적은 선근복덕 인연으로는 저 정토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연기·공 이해 못하는 범부라도 참된 믿음 일으키면 정토왕생

보리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범부일지라도 염불법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에 보리심이 포함되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자비 방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염불수행은 발심의 모습에 따라 칭명염불과 염불선으로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양산 정토원 원장



<무문관>을 강의중인 성본 스님.

직장인·교수 등 수강층 다양 대부분 20년 이상 참선 수행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는 그 당처(當處)에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이 모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불성이 전체작용되는 그 곳에 본래면목이 전부 제기된 것입니다. 가섭은 그러한 부처님의 참된 교화를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은 것입니다."

서울 성북동 산기슭에 위치한 한국선문화연구원(원장 성본, 02-765-6539) 법당.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이곳은 선어록 공부에 관심 있는 40여 명의 스님과 재가자들이 모여 성본 스님의 강의를 듣는다. 선종사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강의해 온 동국대 교수 성본 스님이 2002년 겨울부터 이곳에서 직접 선의 원리와 사상에 대한 해설은 물론 생활 속의 실참과 연관시켜 선어록을 강의하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 진행되는 강의는 <무문관>. 간화선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어록이다.

7월 10일, 강의에 참석한 대중들은 직장인, 가정주부에서부터 대학원 석·박사, 교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몇몇 초심자도 있지만 대부분 수십년 간 참선하고 있는 스님과 불교학자, 재가 수행자들이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상주 관음사 주지 정관 스님을 비롯 매주 지방에서 올라와 수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법회가 단순한 강의차원이 아닌 마음 공부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부분 20여년 이상의 참선수행 경험을 가진 참석자들은 '이뭣고' 화두 등을 들고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초심자의 마음으로 선 공부를 다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선어록을 공부하면서 선에 대한 안목이 생겨 비로소 막힌 부분이 해결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송인성(49·선어록연구소장) 박사는 "경전과 어록에 대한 이해 없이 수행할 경우 편협함에 빠지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며 "바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 수행의 기준과 방향을 잡는 설법과 강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1970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탄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본 스님은 제방에서 정진하다가 일본 고마자와대학으로 유학해 89년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했다. 현재 동국대 (경주) 불교문화대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스님은 선종사 분야 최고권위의 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육조단경> <임제어록>에 이어 <무문관> 등 선어록을 잇달아 역주한 성본 스님은 향후 10년에 걸쳐 <달마어록> <마조어록> <황벽어록> <벽암록> <조당집> 등 '선어록 총서' 18권을 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불교개설> <좌선수행법> <소승선과 대승선> 등 15권의 '선불교 총서'도 틈틈이 발간할 방침이다. 스님에게 선어록 공부를 비롯한 조사선의 수행법에 대해 질문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어록 술술 풀어내니 막힌 곳 확~ 뚫려요"

한국선문화연구원 선어록 강의 현장



성본 스님의 선어록 강의는 본래심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둔다.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주인되어 살자"

조사선 수행법 일문일답

▲선어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조사선의 선승들은 경전을 읽는 간경(看經)과 선어록을 읽는 간화(看話)로 불법의 대의와 다양한 지혜를 체득하도록 했고, 주지는 정기적인 상당법문(示衆)으로 수행자의 안목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어록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개된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불법의 정신과 사상을 생활 속에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조사선의 수행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선은 깨달음의 평상심(平常心)으로 부처의 경지를 전개하는 즉심시불(卽心是佛)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조사선의 기본적인 수행체계는 크게 좌선과 선문답(禪問答), 노동(作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종선(南宗禪)에서 일부 스님들은 좌선을 부정하는 듯한 문답을 남기기도 했는데, 조사선에서 좌선의 실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남종선에서 가르치는 좌선의 실천이란 일체의 경계에 걸림없이(無碍) 하는 것입니다. 즉 밖으로 일체의 경계에 대하여 망념(妄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坐)라 하며, 자기의 불성을 깨달아 산란됨이 없는 것을 선(禪)이라고 합니다. 육조 스님의 '오염(汚染)없는 수증(修證)', 마조 스님의 '오염없는 평상심'은 좌선수행을 기본으로 하면서 좌선의 모양과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좌선인 것입니다. 또한 좌선하여 부처가 되려고 하는 조작심(造作心)이나 취사 선택의 분별심, 차별심, 생사의 번뇌심이 없는 본래심의 좌선 수행을 주장합니다. 조사선에서 좌선을 부정하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해도 좌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의 전제아래 말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선문답은 조사선의 독특한 가풍인데요.

-선불교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을 주장합니다. '직지인심'은 스승이 질문하는 제자의 본래심(평상심)을 곧바로 가리켜 깨닫도록 하는 구체적인 선교육의 정신을 말합니다. 선불교의 독창적인 교육과 수행체계라고 할 수 있죠. 인간 생활의 매사 가운데 언어와 대화를 통해서 본래심을 상실하지 않고, 불법의 안목을 여법하게 전개할 수 있는 참선 수행이 선문답이라는 독특한 수행방법입니다."

▲조사선에서는 '노동 속의 수행'도 강조하는데,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조사선은 각자의 불성이 평등하고 청정하다는 경전의 말씀에 입각해서 천박한 노비나 행자의 신분은 물론 일상 잡무와 노동을 분별없이 받아들이면서, 이를 불법수행의 새로운 기반으로 삼아 참선수행의 길로 만들었습니다. 선은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의 일상 생활속에서 참된 자기의 본래심을 상실하지 않고 진실(道)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선'을 '생활 속의 수행'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겠군요.

-조사선의 기본 정신은 평상심을 일상 생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의 생활 그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참선은 자기 자신을 참문(參問)하는 일입니다. 각자가 자기자신의 본래심을 깨달아 지혜와 인격을 형성하여, 부처나 조사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인 것입니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5일간의 체험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 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고, 오늘날 중국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찰나에 깨치는 3일간의 충격적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열의와 소망만 있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해도 얻기 힘든 무심과 깨침을 5일간 체험해 보십시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론없는 수행은 위험, 수련없는 이론은 공허

빈마음수련원 (구, 대광사)
문의 : 033-435-8166 / master@binmaum.org
www.binmaum.org / 한글인터넷주소 : 빈마음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5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정업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학과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6월 20일~ 2004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4년 8월 7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장례학과 : 2004년 9월 7, 8,9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신라천년의 숨결, 화랑이 나를 부른다~

선무도 청소년 화랑(여름) 수련회

골굴사 선무도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조선일보-2001.12)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사찰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 언 제 : 하 계 - 7월 ~ 8월(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위탁연수
※ 동참금은 청소년 - 1일 2만원, 한달 60만원, 성인 - 1일 3만원,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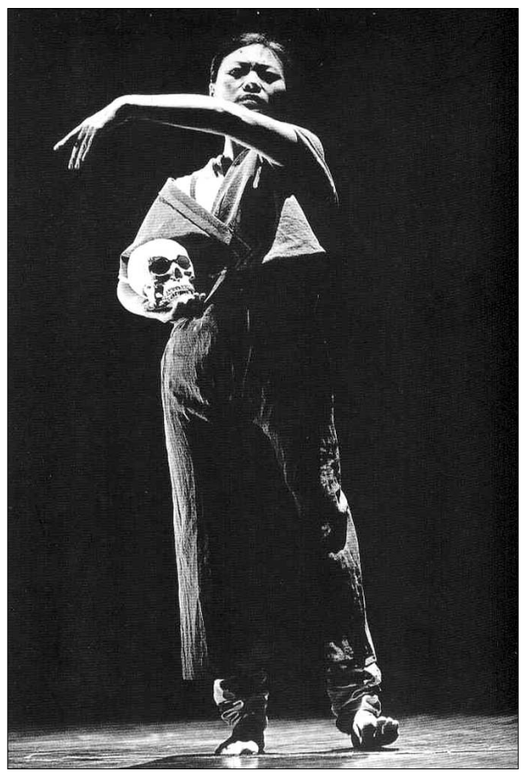
- 수련내용 -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 지도진 : 스님·사범 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전공자), 다도강사 2명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 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 선무도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탬플스테이 지정 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선무도 대학

깨달음으로 가는 춤이 있네



'나선형의 대각선' 무대에 선 홍신자씨.

각종 문화공연과 여름캠프 등에 명상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응용되는 추세다. 그 중에서도 좌선 등의 정적인 명상보다는 움직임이 뒤따르는 동적인 명상, 특히 '춤명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요가수련회, 예술제 등은 물론이고 일반 학회나 대학교 강좌에까지 춤명상 프로그램이 그 발판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춤과 명상이 어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자간에는 어떤 접합점이 있으며, 춤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 춤과 명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가인 홍신자(65) · 이선옥(59) · 박태이 (45)씨에게 춤명상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본다.

춤명상 대가 3人3色 토크



이선옥 씨



홍신자 씨



박태이 씨

▣ 이선옥

'氣·이뭐꼬·동작'이 하나로

이뭐꼬(이것이 무엇인고?). 이는 참선의 근본적인 화두로, "지금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듣는 이 주인공은 무엇인고?"라는 물음이다. 그 답을 위해 하나 둘 근본으로 소급해가다 보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의심이 꽉 들어찬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자 생각 이전의 자리다. 그 자리가 '이뭐꼬'다.

이뭐꼬가 살아있는 움직임이 바로 '선무(禪舞)'다. 이선옥 포천중문의대 교수가 72년 창안한 대표적인 춤명상 기법. 그는 송담 스님, 숭산 스님 등에게 참선지도를 받은 이후 '행선(行禪)'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선무를 고안해 냈다.

"선무의 모든 동작은 단전부위에 이뭐꼬를 집관한 상태에서 이뤄집니다. 동작 중 잡념이 일어나도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를 이뭐꼬로 대치시킵니다."

이 교수는 "선무는 기와 이뭐꼬, 그리고 동작이 하나가 되는 명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곧 움직이는 禪이요, 동작으로 풀어가는 화두이다.

▣ 홍신자

정적 명상보다 잡념 덜 들어

"춤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라, 춤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라. 그것이 너의 길이다."

오쇼 라즈니쉬는 첫 번째 한국인 제자인 홍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계 무용사를 만든 18인'에 꼽히는 걸출한 무용가인 홍 씨는 '동양 전통미학에 뿌리를 둔 서양 전위무용의 꽃'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의 몸짓은 명상에서 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즈니쉬를 만나기 전에는 춤과 명상이 별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후 명상수행에 몰입하며 춤추는 상태가 곧 명상임을 깨닫게 됐죠. 춤과 명상이 일체를 이루게 되면 '춤추는 자는 없고 오직 춤 그 자체만 있을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움직임에 몰입하는 춤명상의 기법이 심신의 정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홍 씨는 춤명상은 정적인 명상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잡념의 개입 등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하고 에고(ego)를 털어낸 동작에 몰입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깨달음의 길이 멀지 않다. 춤명상은 '점수(漸修)'로서 구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박태이

에고 걷어낸 본래 나 드러나

2004년 명상 · 예술계에 '춤명상'의 화두를 내던진 박태이 씨. 무용전공자도 아니고 배움을 얻은 스승도 없지만, 인도 뿌나의 명상가들은 그녀를 두고 "미라(힌두교 춤의 여신)의 화신같다"며 놀라워했다. 그는 인도에서 명상을 배우며 '춤을 터트렸고' 이후 하루 13시간이 넘도록 춤을 추기도 했다.

"내 안의 춤을 일깨워가는 과정이 곧 명상이었어요. '춤추는 나를 잊은' 춤을 추면서 막혀 있던 생체에너지가 흘러나왔고, 춤의 흐름으로 존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됐지요. 그 때 에고를 걷어낸 '본래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더군요.

그가 말하는 춤명상에는 특별한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몸 감각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온몸을 미친 듯이 내던지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깨울 수 있을 때 춤명상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박 씨는 말한다. 강신재 기자

경희사이버대 국내 첫 '웰빙 명상&요가' 과목 개설

경희사이버대학교(www.khcu.ac.kr, 총장 박건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웰빙 명상&요가' 과목을 개설한다.

2004년 2학기부터 개설되는 수업에서는 명상의 십계명과 호흡법을 지도하는 '웰빙 명상 및 호흡법', 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파워 기체조',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아침 및 잠자리 요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요가 기초동작', '다이어트 호흡과 요가', '웰빙 기체조' 등의 오프라인 실기수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김창수 교수는 "동양의 명상과 요가를 생활화할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이라며 "여러 명상법들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광대에서 요가학과 기공학을 전공했으며 최근 <웰빙명상>(명상신문사)을 출간한 바 있다.

강신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禪과 21세기

선의 세계 53

교외별전(敎外別傳)- 13

앞의 글에서 서양학자들은 우상타파적(iconoclastic)인 점을 선종의 특성으로 꼽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기에서 우상타파란 불상, 보살상, 신상 같은 것을 때려 부순다는 뜻이 아니라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여 애지중지하는 그릇된 숭배를 타파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선종에서 어떤 우상을 그토록 강력하게 타파하기에 선종을 두고 우상타파적이라고 하는 걸까? 선종에서 가장 강력하게 타파하고자 하는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분별이다. 분별이 우상이라고? 그렇다. 중생은 세상의 진상인 불이법(不二法)에 어긋나는 분별, 구별, 차별을 지어내고는 진리인 양 숭배하고 살아가니 그것을 두고 우상숭배라고 할 만하다. 그리고 선사들이 가장 힘주어 경계하는 분별은 나 자신과 부처는 다르다고 하는 분별이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부처가 아니며 부처는 나와는 별개의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다.

반드시 타파해야 할 우상은 '분별'
나와 남 구별하는 아집·망상 부숴라

<임제록(臨濟錄)>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하도 유명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았으리라 짐작된다. "도를 닦는 이들이여! 참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사람에 속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대로 죽여 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권속을 만나면 친척권속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말 그대로 보자면 섬뜩한 얘기이다. 특히 요즘처럼 자기 친척뿐 아니라 심지어 부모까지 살해하는 패륜까지 제법 흔히 저질러지는 흉흉한 세태에서는 정말 섬뜩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살인을 하라는 뜻이 물론 아니다. 부처, 조사, 아라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어내는 온갖 분별을 떨쳐버리라는 뜻이다. 부모는 부모이고 나는 나이며, 친척은 친척이고 나는 나라는 분별을 떨쳐버리라는 뜻이다. 고유한 개체로서의 나(아我)를 전제하고 보면 부처고 조사고 아라한이고 부모고 친척권속이고 간에 모두가 남이다. 하지만 그 모두가 서로 다른 개체, 즉 불일(不一)일 뿐만 아니라 연기(緣起)의 관계, 즉 불이(不二)의 존재라는 것이 불교에서 역설하는 세상의 진상이다. 그 진상을 보려면 부처, 조사, 아라한, 부모, 친척권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어내는 분별의 허상, 분별의 우상을 타파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임제록>의 그 구절은 부처, 조사, 아라한, 부모, 친척권속을 정말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 그들을 구별하는 내 속의 아집, 망상을 부수라는 뜻이다.

선사들은 특히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힘주어 하였다. 여기에서 부처라 함은 그 말의 원래 뜻대로 깨달은 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나아가 깨달음 그 자체라든가 깨달음의 내용이 되는 세상의 진상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부처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 밖에다가 어떤 휘황찬란한 인물의 이미지를 그려놓고는 숭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부처라는 불이법을 깨달으라는 얘기이다.

그러니까 선에서 내리는 모든 진단과 처방이 다 분별의 문제로 수렴된다. 경전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태도도 바로 그 분별 때문에 어그러져 버린다고 보는 것이 선의 입장이다. 부처니 조사니 아라한이니 하는 개념도 그렇거니와 경전에서 개진되는 모든 가르침이 불이법을 가르치기 위해 짐짓 설한 방편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분별만 일으키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것이 교외별전의 구호에 담긴 또 하나의 뜻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1]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8월 8일-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2004년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2]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3]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2004년 8월 15일-8월 22일(만7일간)

금주의 발원

[재가자의 마음가짐-2]
여러가지 놀이로써 모일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법으로써 스스로를 즐길줄알고
오락이란 참아님을 알아지이다

혹은만일 궁실안에 있을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성자들의 높은지위 훌쩍들어가
더러움과 욕심모두 없어지이다

아름다운 보배영락 걸칠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쓸데없는 거짓단장 모두버리고
진실한곳 이르르게 하여지이다

높이솟은 누각위에 오를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부처님법 누각위에 함께올라가
온갖것을 철저하게 보아지이다
[華嚴經淨行品] 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서언(5) 금강(金剛), 다이아몬드 혹은 벼락에 대하여

"당신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쓰는 글이, 단도직입,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창 뜸을 들이거나, 괜스레 에두른다는 핀잔을 자주 듣습니다. 선사(禪師)인 함허가 <금강경>의 주석을 모으고, 거기다가 자신의 장황한 해설(說誼)까지 덧붙이는 그 지극히 반정통적(?) 작업을 두고, 한 말씀 더 해 두려다가, 나중으로 미루고, 그만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갈까 합니다.

당장 마주치는 것이 제목입니다. 제목의 뜻부터 살펴보겠는데, 그런데 사실이지 제일 어려운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목의 짧은 몇 마디에는 경전의 전 내용과 취지가 압축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아하,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경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더듬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책을 펴면 본문부터 코를 박습니다. 그러나 때로 본문을 일일이 더듬어 놓고도 제목의 취지가 사무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아직 책을 충분하고도 완전히 읽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어려운 책일수록 그렇습니다. 저는 해설서들이 서문이나 개요에서 이 지점을 적절히 찌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아서, 저자의 안목과 책의 가치를 따져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 또한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소>에서 지적하듯, '잎을 따느라 줄기를 놓치는(把葉而亡幹)' 우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승이 기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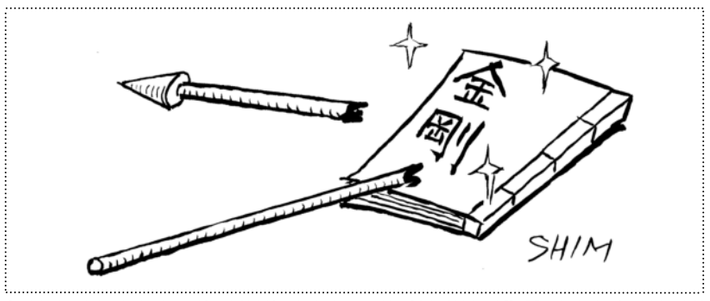
지난해 원효 스님의 저술 영역 사업의 중간보고를 겸한 학술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지난해 11월이군요. 뉴욕 스토니부룩의 박성배 교수님께서 하신 일갈, 사자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인즉슨, 수많은 석학 교수들과 스님 선지식들이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을 해석하고 해설해 왔는데, 정작 '대승(大乘)'이 무엇인지를, 그 당체(當體)를 아무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추어라 반쯤만 얼굴이 따가웠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역시 근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 말이 나온 김에 외람되이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어, 그 '대승'의 진면목을 '깨닫는' 정도로는 안 되고, '깨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순전히 제 식으로, 아마도 지눌 스님이 말씀하신 해오(解悟)와 증오(證悟)의 간격을 강조하시나 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대승기신론>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달리, 파격적으로, "대승이 믿음을 일으킨다"로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마도, 대승기신을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로 읽게 되면, 자연히 능소(能所), 즉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안팎도 너와 나도 없는 소식인 '깨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십분 고려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 딜레마의 해법으로 그분은 대승(大乘)과 기신(起信)을 체용(體用)으로, 다시 말하면 기신을 대승이라는 본체의 '자연적 활동'으로 읽으셨습니다. 이 해석은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후학의 눈에는 정말 지나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논(論)'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승이 '중생들의 마음'이라고는 하나, 다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사(生死)의 바다를 부침 윤회하고 있기에, 그 진실을 일깨우고 믿음을 증장(增長)시켜 주기 위해 이 '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원효 스님 자신이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논문에 의지하여 중생들의 믿음을 일으킨다(依此論文 起衆生信)"라고요. 박 교수님은 구경(究竟)에 초점을 맞추느라 <대승기신론>을 위시한 경전들이 갖고 있는 방편(方便)의 역할을 너무 도외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강의 도중 본격적인 토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벼락을 가리킨다?

얘기가 곁가지로 흘렀습니다. 제목과의 대결을 피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던 중이었지요. <금강경>은 약칭이고, 정식명칭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여기 능단(能斷)을 덧붙여 <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하기도 합니다. 제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이 그것입니다. 첫 항목부터 차례차례 살펴보기로 합시다.



금강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는 <금강경>을 영역하면서 'Diamond Sutra'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번역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다들 금강석(金剛石)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과시 금중최강(金中最剛), 무엇이든 부수지만, 그 자신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석의 속성이 지금 이 경전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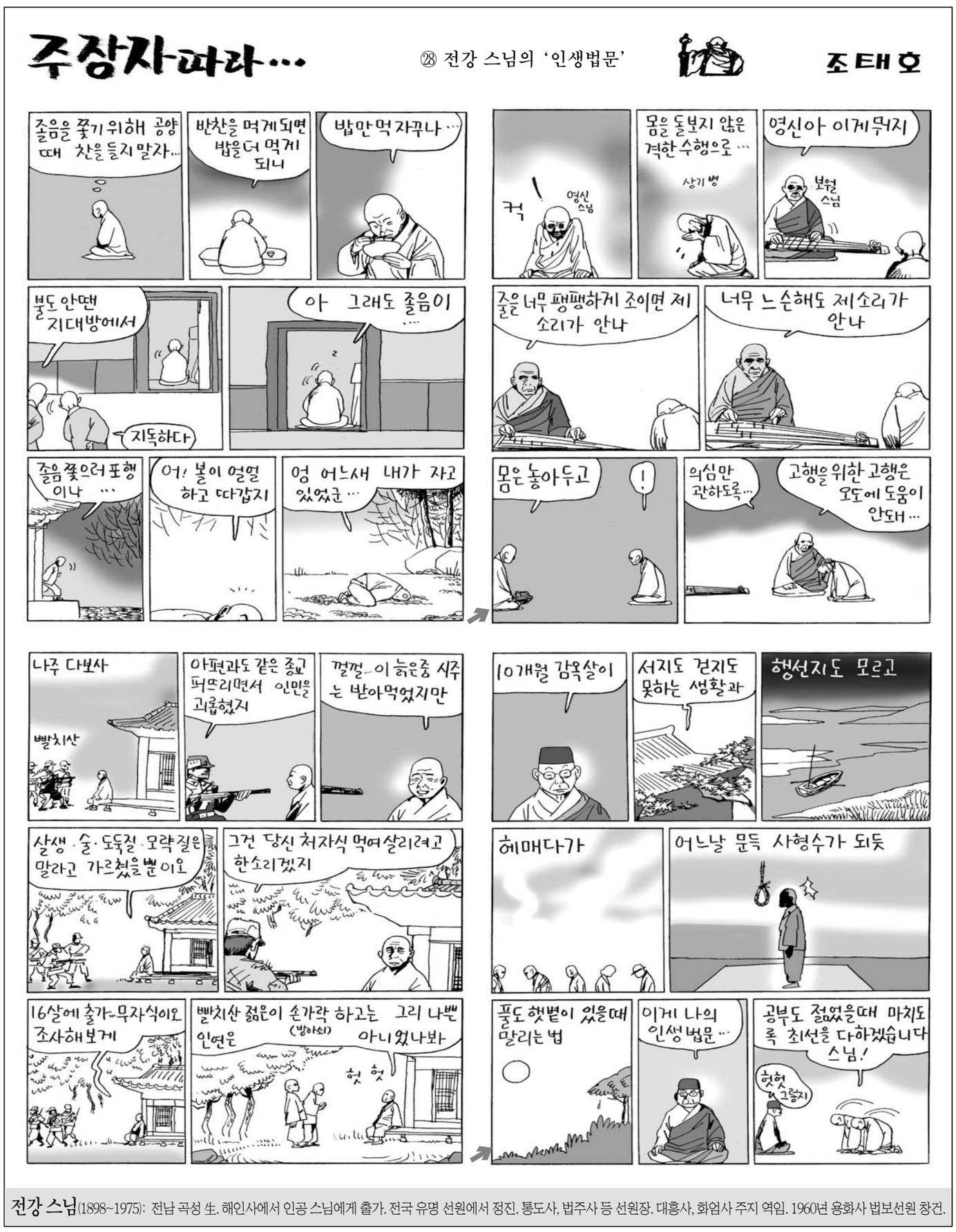
금강이, 즉 산스크리트어의 '바즈라 Vajra)'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즈라는 인드라 신이 갖고 다니는 무기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벼락'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금강저(金剛杵)입니다. 이 물건을 한번씩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손잡이 양끝에 예리한 칼날이 달려있는 방망이로, 둘레에 연꽃과 금강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밀교에서 특히 중시한 의식용 도구인데, 지금도 호신부로 팔고 있습니다. 전재성 교수님의 대역본 <금강경>은 이 견해에 입각해 '번개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 책 안에서 위대한 찬불시인이었던 마뜨릿체따가 금강을 두고 "무지의 어둠을 쫓아버리는 태양, 교만의 산맥을 부수는 인드라신의 무기"라고 읊은 노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부수면서 동시에 세워야 한다

둘 가운데 어느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일거에 깨뜨린다"는 속성을 갖고 있으니, 어느 편이냐를 굳이 따지지 말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이 이들을 비유로 쓸 때, 단순히 '자른다'는 한 가지 특성에만 유의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다른 측면까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와 '벼락'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깨뜨리는 기능을 제하고도 남는 무엇이 있지요. 굵어 흠집 하나 가지 않는 값비싼 보석이고, 또 오랜 시간을 변하지 않는 빛과 광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벼락은 칠흑의 어둠을 일거에 몰아내고, 고목을 한방에 박살내는 희유(稀有)한 기능을 발휘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순간적 일회적이고, 이윽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벼락으로는 집을 살 수도 밥을 사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억지를 부리고 지나치게 천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짐짓 원효 스님의 어법을 빌리자면, 불교는 '부수기'도 해야 하지만, '세우기'도 해야 합니다. 벼락은 부수는 쪽의 비유로는 적절하지만, 세우는 쪽의 비유로는 걸맞지 않습니다. 부수고 세우는 양면을 포괄하기로는 역시 '다이아몬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어원은 어떤지 몰라도, '한문 불교'의 전 번역과 주석이 금강을 '다이아몬드'로 읽고 해석해 나간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강 스님(1898~1975): 전남 곡성 生. 해인사에서 인공 스님에게 출가. 전국 유명 선원에서 정진. 통도사, 법주사 등 선원장. 대흥사, 화엄사 주지 역임. 1960년 용화사 법보선원 창건.

네티즌 교리문답

'판치한'이란 무엇인가요?

문 선어록에서 종종보이는 '판치한(板齒漢)'이란 말은 사전에도 안나오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인지요. (ID '판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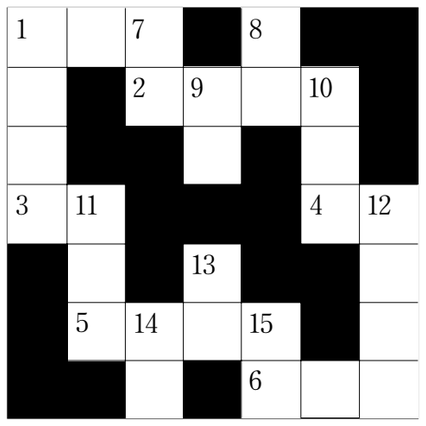
답1 : 판치한은 담판한(擔板漢)을 말합니다. 담판한은 판자(板子)를 어깨에 매면 한 면 밖에 볼 수 없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선종에서 편견을 보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곧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문에서 쓰이는 이 말은 꼭 상대를 낮추어 비꼬는 말이라기 보다는 상대에게 네가 지금 편견에 빠졌으니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 그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경책의 말입니다.

선문답을 보면 스승과 제자 도반 간의 선문답 중에 스승이 제자를 경책할 때 좀 심하다 싶은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담판한, 속한, 소금을 암 거래로 파는 놈, 절름발이 자라 같은 자, 눈 먼 거북이 같은 자, 도둑 놈, 야호(여우), 천치, 일천제, 바보 녀석, 멍텅구리, 이놈!, 방, 할 등등 그 예는 사람에 따라 참 다양합니다. 이런 말들은 스승이 제자를 일방적으로 비하하거나 꾸짖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답 중에 일어난 제자의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강하게 지적하거나 또 일전어(一轉語)를 듣고도 감을 잡을 듯 말 듯 아리송해 있을 때, 이를 경책하여 그 문답의 낙처(落處)를 강하게 각인시켜줌으로써 제자가 이 말에 따라 즉시 또는 차후에라도 깨닫게 하려는 스승의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이런 말들은 대게 스승이 제자의 근기를 보아 그럴 만한 때가 이르렀음에도 스스로 관문을 넘지 못하고 넘을락 말락하며 헤매일 때 마치 알을 품던 어미 닭이 병아리 알 껍질을 밖에서 툭 쪼아 주어 부화를 돕듯이 툭 던지는 행위입니다. 공부가 익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인2')

답2 : '판치생모'는 '조사서래의(如何是祖師西來意)'를 묻는 제자에게 '판치생모(板齒生毛)니라'라고 응답한 고인의 선문답으로 선문의 화두로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판치생모라 하면 흔히 '판대기 이빨에 털이 났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고대 속어를 잘 모르고 그냥 글자를 직역한 잘못된 말입니다. 중국 고대 속어 연구서에 따르면 '판치'란 판대기 이빨이 아니라 '앞 이빨' 특히 어린 아이의 넓적한 앞 이빨을 일컷는 옛날 중국의 속어입니다. 그러므로 '판치생모'의 옳은 해석은 '앞 이빨에 털이 났다'라고 해야 됩니다만 '판대기 이빨에 털이 났다'라는 해석이 오히려 화두 참구에 더 큰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해 사용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판치한이라면 아직 유치(젖니; 생후 7~8세 까지 사용되다 빠져버리는 이)를 가진 녀석이라는 뜻입니다. ('학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32면에

가로 1. 수국과 비슷하며 꽃송이가 큼지막한 꽃으로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음, 부처님 머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음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 때의 차례, 방법, 형식, 의미, 내용 따위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일 3. 생선을 소금에 절여 만든 반찬감 4. 작은 절 5.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 6.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과 느낌을 적은 글.

세로 1. 불도의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라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 7. 외국에서 사는 중국 사람 8. 그릇된 판단 9. 시체를 실어 묘지까지 옮기는, 가마 모양의 도구 10. 경주 토함산에 있는 대표적인 석굴사원 11. 어떤 물체를 통해 반대편을 볼 때 투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보임 12. 스스로 포기함 13. 집게 손가락 14. 축하할 만한 기쁜 일 15. 상장, 훈장 따위를 줌.

30년 에돌아 토해낸
오대산 예찬



아하! 절에 불상이 없네 윤범모 지음 | 다할미디어 | 1만원



월정사 전나무 숲길 사이에 있는 고승들의 부도탑은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해준다.

"나의 어머니가 문둥이라 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이다. 오대산이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대산은 나의 영원한 고향이다. 비록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오대산 예찬론자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오대산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오대산과 20대부터 맺어온 인연의 끈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이 이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아하! 절에 불상이 없네>는 윤 교수가 20대부터 오대산을 방문해 보고 느낀 것과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찾은 오대산, 여기에 문수신앙과 보현신앙의 성지인 중국 오대산과 아미산 등을 둘러본 감회를 종교미술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일종의 기행산문집이다. 여기서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불상 없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오대산 적멸보궁을 뜻한다.

저자는 오대산이 자연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와 불교, 그리고 민족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찬한다. 그래서 오대산은 관광지라기보다는 하나의 성지이고, 우리민족의 도량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유물이나 유적을 안내할 목적에서 보다 우리의 삶을 안내할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이에 걸맞게 책의 시작도 주인공 석우가 오대산에서 띄우는 편지 형태로 스무 살 언저리의 치기와 객기, 그리고 성찰을 깊고 담담하게 토로하고 있다. 소설도 아닌데 편지의 주인공인 석우가 누구일까 한편으론 의구심이 들지만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오대산 시절 추억속의 이름일 뿐 굳이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라고 일침을 놓는다.

저자에게 있어 20대 시절의 오대산은 자연과 역사와 불교, 민족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귀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하산 이후 오대산에서의 귀중한 체험과 깨달음은 뇌리에서 사라지고 30년 동안 그 추억의 현장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다.

평론가 답게 '자살하기 좋은 곳입니다, 서대수정암에서'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도 눈에 띈다. 너와지붕으로 만든 오대산 서대 수정암의 아름다움이 너무도 아름다워 죽음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는 반어법을 쓴 것이다.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우면 영원한 안식처로 느껴져 자살하고픈 충동이 드는 모양이다. 태평양 연안의 휴양지인 괌에 가도 일명 '자살바위'라는 절경의 관광지가 있으니 말이다.

또한 이 책에는 탄허 스님을 만난 일화도 적혀 있다. '당당한 체구에 둥그런 얼굴…' 로 묘사되는 탄허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경전의 원문을 줄줄히 외워대는 대학자였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학식을 뽐내고자 하는 현학적인 모습이 아닌 중생의 번뇌를 깨우치려는 법문이었으며, 저자 인생에 있어 큰 가르침으로 남겨져 있다고 고백한다.

30년이 지난 뒤 저자는 강원도 오대산의 원형인 중국 오대산과 함께 세속의 실천적 구도신앙인 보현신앙의 성지 아미산을 찾았다. 문수와 보현은 항상 짝을 이루며 거론되기 때문이다. 미술사학자답게 중국쪽 종교 · 미술사적인 유적과 유물에 대한 짤막한 촌평과 감상도 쏠쏠한 재미를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30년 후 오대산을 다시 찾아 젊은 시절 방황의 흔적들을 되짚어간다. 그리고 다시 용기와 지혜를 얻는다. "산은 여전했으나 사람들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으며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미래이다"라고. 산이 마음의 정화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새로운 나날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한다.

1부 '오대산 통신' 2부 '문수신앙의 성지 중국 오대산을 가다' 로 구성된 책에는 문수성지인 오대산과 한국전란으로 소실됐던 월정사, 그리고 한국불교의 상징인 한암 · 탄허 스님 등 고승들에 얽힌 이야기를 50여편의 글편으로 담아냈다. 또한 60여점의 사진자료도 함께 실려 있어 오대산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꿈꾸는 여유, 그리스
권삼윤 지음 | 푸른숲 | 1만3천원

척박함 즐긴 낙천적인 그리스인
우주와 신화에 몰두했던 자유 느껴봐

파르테논 신전과 하얀색 돔 모양의 건물들이 즐비한 에게해의 나라 그리스. 최근 이 그리스란 나라의 이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한 달 후로 다가온 올림픽과 얼마 전 끝난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우승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 정도로만 기억되던 나라가 색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는 자산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자연이다.

유럽문명의 원류이면서도 지역적으로는 변방에 있던 이유로 그리스 문화는 다른 유럽과는 구별된다. 물론 사람들 성향도 그렇다. 그리스 사람들은 고집이 세지만 매우 순수하고 낙천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다.

<꿈꾸는 여유, 그리스>는 20여년간 고대 문명 발상지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세계 유명 박물관 · 미술관 등을 찾아 60개국을 답사한 프리랜서 여행작가가 화려한 풍광과 여유로움을 포착해 전하는 '그리스적 삶의 방식' 이다. 아름다운 산과 해변, 낯선 사람들조차 환대하는 따스함, 집착하지 않지만 대의를 존중하는 문화와 전통의 힘을 그린다.

"이 섬에 발을 디디는 모든 사람은 피 속으로 따스하고 온화하게 퍼지는 신비한 힘을 의식하고 영혼이 자라기 시작함을 깨닫는다"는 저자 권삼윤 씨의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저자는 그리스를 왜 '꿈꾸는 여유' 라고 생각했을까. 그리스 땅은 척박하기 그지없다. 메마르고 볼품없는 땅에 기댈 것이 없던 그들은 대신 다른 곳에 애정을 쏟았다. 우주를 가장 먼저 탐구하기 시작한 것도 그리스인이었고 사람과 신과의 관계를 고민한 것도 그들이었다. 땅 위에 대리석으로 역사적인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것 또한 그리스인들 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유' 를 선택했다. 척박한 것을 척박한 대로 즐기는 여유. 거기서 얻어낸 것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말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대자유였으리라.

그리스에 가면 이 나라를 단순히 TV 광고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행지로만 볼 게 아니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그리스 곳곳을 단순히 '아름답다' '멋있다' 로만 표현한다면 분명 2% 부족하다. 그리스는 평범한 길, 조그만 시장에도 문명이 스며 있는 '인류의 고전' 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그리스 베테랑인 저자는 자칫 따분해 질 수 있는 그리스 문화 이야기를 여행기에 잘 비벼 맛있게 풀어냈다.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여행을 앞둔 사람들에게 알찬 정보도 제공한다.

꼭 그리스에 가지 않더라도 휴가지에 옆에 끼고가서 그리스를 꿈꾸며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이 책을 즐기는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김말순(여행작가)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5만 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 · 儒 · 仙 · 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40분 전주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앵글에 담은 연꽃세상

부처의 미소 선암 스님 글 · 사진 | 시공사 | 1만8천원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일깨워주는 연꽃. 선암 스님 작품.

선암 스님 사진집
蓮 110컷 · 시 40편 수록

연꽃의 계절, 여름을 맞아 불교사진가 선암 스님(서울 봉원사)의 연꽃 사진집 <부처의 미소>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30년 전 카메라와 인연을 맺은 후 국내는 물론 동남아시아 곳곳을 찾아다니며 연꽃을 카메라에 담아온 선암 스님은 국내외에서 아홉 차례나 전시회를 연 연꽃 사진 전문가. 스님이 사진집을 펴낸 것은 <영산재 사진집>(1989)과 <연(蓮)>(1998)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찍어온 연꽃 사진을 집대성한 사진집 <부처의 미소>에는 110여 컷의 아름다운 연꽃 사진과 40수의 짧은 시가 담겨 있다. 스님은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촬영해 온 연꽃 사진을 현대인들에게 보시하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러운 진흙 속에 피면서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을 통해 번뇌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만 올바로 닦으면 자신과 주위를 맑게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부처의 미소>를 접한 이애주 교수(서울대 ·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살풀이 기능보유자)는 "이 책은 청정함을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평화의 서원"이라며 "사진집을 통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나아가 주위를 맑고 향기롭게 정화할 수 있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엄경>에 나오는 청련(靑蓮), 황련(黃蓮), 백련(白蓮), 적련(赤蓮) 중 아직 구경도 하지 못한 청련을 카메라에 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스님은 사찰 사진을 찍기 위해 7월 말 몽골로 떠난다. 8월말에는 황산(黃山)을 촬영하러 중국에도 갈 예정이다.

한편 8월 16일부터 열리는 서울 봉원사 연꽃축제에서는 이번 사진집에 실린 사진을 볼 수 있는 연꽃 사진 전시회가 마련될 계획이다.



22년간 매일 1000배 정진
뇌성마비 이겨낸 화가의 '꿈'



오체투지

한경혜 지음 | 반디미디어 | 9천원

죽음 앞두고 성철 스님 만나 절수행 시작
보통사람도 오르기 힘든 히말라야 등정

뇌성마비라는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 다섯 살까지 걷지도 못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말은 입안에서 맴돌고 사지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허우적거리며 걸어야 했던 아이는 끊임없이 동네 꼬마들의 놀림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고열과 심한 경련에 시달리게 됐고 병원에서는 부모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죽어가는 딸아이를 데리고 해인사 백련암으로 향한다.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 이틀 밤낮에 걸쳐 3천배를 마친 아이에게 스님은 화선지에 원 하나를 그려 건네준다. "네 몸을 건사하려거든 매일 천 배를 하라"는 말과 함께.

그때부터 '무너지듯 앉아서 머리가 바닥에 닿으면 일배(一拜)'인 절을 22년 동안 매일같이 천배 씩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동양화가 한경혜(29 · 사진) 씨다. 한 씨가 최근 펴낸 <오체투지>는 그의 힘겨운 성장기록이자 '절 체험기'다.

어린 시절, 몸이 성치 않다는 이유로 동네 아이들의 돌 세례를 받았던 기억, 끝없이 절을 하며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듯이 절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끝없는 회의와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야 했던 기억들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 동생 등에 업혀 등하교를 하던 한 씨는 절을 시작한 뒤로 증세가 조금씩 호전되어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됐다. 또한 화가의 꿈을 키워 온 한 씨는 뒤늦게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그림을 배웠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2번의 특선과 5번의 입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1996년 대학을 졸업한 한 씨는 또 다른 '고행'을 자처한다. 매일 만배를 하는 백일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하루 4시간만 자며 17시간씩 절을 해야 하는 수행이었다.

"절 수행의 극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 배 백일기도를 하면 육체적 정신적 껍질이 번데기처럼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짜를 헤아리지 않기 위해 달력도 떼어버린 후 오직 절에만 집중했다. 몸은 매를 맞는 듯한 통증과 온몸을 뒤덮은 땀띠에 시달리며 백일기도를 마친 후 한 씨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이후 일반인도 하기 힘들다는 히말라야 등정과 두 번에 걸친 만배 기도를 통해 그는 점차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걷어내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됐다.

한 씨는 요즘 경남 진영에서 '작가의 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말한다.

"저는 절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절은 나를 낮추기도 하지만 저를 우뚝 서게도 만들어준 지혜이며 자유였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장애를 안고 있는 많은 이들이 저의 '절 체험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현대사회에 던지는 선사들의 주장자



道나 먹어라 이외수 엮음 | 김만규 그림 | 북인 | 9천5백원

<장수하늘소>와 <벽오금학도> <괴물> 등의 베스트셀러를 낳은 소설가 이외수 씨가 '개떡 같은 세상'에 '선사들의 주장자'를 던진다.

기인, 도사 등의 이미지가 강한 이 씨가 최근 펴낸 <道나 먹어라>는 선의 시조로 불리는 달마 대사와 선의 황금시대를 열어젖힌 6조 혜능 선사, 평생 청렴한 생활을 실천한 백장 선사 등 중국 60여 선사의 일화 94편을 담은 책이다.

"진정한 불법이 무엇인가"를 묻는 제자의 뺨을 후려친 임제 선사,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질문에 "자네 발끝을 보라"고 답한 구도자 등 선사들의 깨달음의 순간을 풀어썼다. 서문도 없고 일화에 덧붙이는 역자의 해석도 없는 이 책에서 이 씨는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 온 정신세계의 본류가 바로 선(禪)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중앙미술학원 중국화계 대학원에서 6년간 공부한 김만규 교수(홍익대 미술대)가 각 이야기에 어울리는 수묵화를 곁들였고, <전등록>과 <선가귀감> 등에서 가려 뽑은 글귀도 담았다. 담백한 글과 그림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선사들의 깨달음을 조금은 맛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 **<불교와 문화>**(대한불교진흥원 펴냄, 7천원)=7 · 8월호에서는 '한국불교학 영문서적 발간,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특집을 엮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영문서적 발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불교학 관계 저술의 영역 문제를 점검해 본다. 명상수행가 최연철 씨의 기고문 '불교의식음악이란 무엇인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의 명상, 의식음악 11곡을 담은 음악 CD도 부록으로 마련되어 있다.

■ **<불교문예>**(현대불교문인협회 펴냄, 8천원)=2004년 여름호는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으로 꾸며졌다. 민영, 이성부, 유안진, 홍신선 시인 등 20여 시인의 봉축시와 회원 봉축시 30여 편이 담겨 있다. '제9회 현대불교문학상' 시부문 수상자인 이시영 시인의 대표시와 박남희(고려대 강사) 씨의 시인론 '인위와 무위의 변증법'도 볼 수 있다.

■ **<대학강의>**(남회근 지음, 설순남 옮김, 씨앗을뿌리는사람, 3만8천원)=1918년 중국 절강성에서 태어나 20대 초반 불교에 귀의한 후 유 · 불 · 도교를 넘나들며 대중에 전통사상을 설파해 온 남회근(南懷瑾) 거사가 <대학(大學)>을 풀어썼다. 중국역사상 여러 제왕을 실례로 들며 '수신'에서 '치국 · 평천하'에 이르는 리더십론이 눈길을 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2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3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시아문
4	영가천도	우룡 스님	효림
5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6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7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림
8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이용범	수희재
9	청정도론	붓다고사	초기불전연구원
10	숫타니파타	지현 스님	민족사

도서 안내 :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쪼은칼라지붕공사

이젠 1시간 만 투자하면 완벽한 절이 됩니다!!!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흡흡호 호흡법의 최첨단 건강 비법 공개 수련회)
● 입은 숨을 쉬는 곳이 아니고 코 입니다.
● 세치의 혀를 잘못 놀려 망신 당하는 것 보다 입 벌리고 숨을 쉬어 병나고 망하는게 더 무섭다.
● 절, 영불, 독경, 주력 수행하고, 노래 할때 어깨, 가슴을 들먹거리며 입으로 숨을 들이 쉬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병고액난의 어리석은 짓이다.
○ 합장하고 일어설 때 저절로 단전 호흡이 되어져 우주의 밝은 에너지가 꽉 차는 경지!!!
● 절할 때 힘이 빠지고 몸살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정신 사납고, 발, 무릎, 허리 아픈게 호흡을 잘못한 것
○ 접족례에서 숨을 내쉴때 날숨이 길어져 나쁜 기운은 순간 빠져 나가고 엔돌핀, 쾌락 호르몬인 토파민은 끊임 없이 나와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환희로우며 언제나 생생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험하는 경지!!!
○ 헐떡거리며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은 불행과 병고액난의 직접 원인!!!
● 상기병, 냉병, 소화불량, 당뇨병, 고혈압, 비만, 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아토피, 비염, 축농증, 우울증, 불면증, 감기몸살, 만성피로, 자궁근종, 변비, 자폐증, 치매 환자는 100%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으로 찬바람, 먼지, 세균, 병균이 직접 입으로 들어와 몸이 차가와 지며 성인병의 원인! 공부, TV 시청, 컴퓨터, 잠잘 때 입벌리고 있으면 바보나 병자,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니 빠른시일내에 수련에 동참하여 치유 하십시요.
★ 호흡에 맞춰 절하는 수행으로 단시일에 극복된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
▶ 수련일시 : 매주 화요일 낮 : 2시, 저녁 : 7시
▶ 수 련 비 : 입회비(만원), 수련비(2만원 : 3회 교육 가능)
▶ 오시는 길 : 지하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천호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 02)456-4994,0035 http://cafe.daum.net/sorisan
"숨을 氣차게 잘 쉬는법" 책 9월 출간 예정

국제보살수계대법회
(8월 20일 - 22일, 3일간)
팔공산 갓바위 약사암은 한국불교의 최대 기도처로 널리 알려진 갓바위 부처님의 정기를 이어 받은 청정 기도도량입니다. 이곳 약사암에서는 다섯 번에 걸쳐 환생한 생불로 널리 알려진 티벳 잠보스님을 비롯하여 왕겔스님, 수지스님, 누루보스님, 고리스님 일행을 초청하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국제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좋은 인연 지으시길 바랍니다.
약사암 주지 일여 합장
수계법회 일정
● 첫째마당 - 8월 20일 금요일(음 7. 5) 오전 11시 ~ 오후 3시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 타묵 (打墨) 퍼포먼스 (율산 리홍재)
● 둘째마당 - 8월 21일 토요일(음 7.6) 오전 11시 ~ 오후 3시
- 마정수기 법회
- 관음예찬 독송 (일중 큰스님)
● 셋째 마당 - 8월 22일 일요일(음 7.7) 오전 11시 ~ 오후 3시
-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 법어 (법화종 종정)
- 타묵 (打墨) 퍼포먼스 (율산 리홍재)
- 신시음악회 오후 3시 ~ 5시
- 장태민 (갓바위 가수)
- 김용빈 (천재소년 트롯트 가수)
- 너훈아 (나훈아 모창가수), 박미화 外
동참안내 및 문의
■ 문 의 : 갓바위 약사암 053)852-0803
■ 동참비 : 한 가정 5만원 (가족 전원 축원, 수계 2명)
※ 컨 가족이 수계를 받을 경우에는 금강경(특수본) 한 질을 무료로 드립니다
부전(행자)스님을 모십니다. 연락처 011-9585-4908 혜봉스님
팔공산 갓바위 약사암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부처' 통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

'니르바나 생과 사의 경계' 展
모란미술관(8월 28일 까지)

백련사 개원 기념 중견 불교미술 12인 한자리
브론즈 · 테라코타 · 수묵채화 등 표현 다양
현대적 기법에 부처의 정신세계 까지 담아내


고명근씨의 '2면 관음'.

중견 불교미술인들이 한데 모여 불교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8월 28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모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니르바나 생과 사의 경계' 展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이번 특별전은 모란미술관내 사찰인 백련사 개원을 기념하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참여 작가로는 강용면 고명근 김세일 김종구 노주환 안성금 이호신 이흥덕 정광호 천성명 최태훈 홍성담 등 12명이다. 작품 장르도 브론즈, 테라코타, 수묵채색, 유화 등 다양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강용면씨의 '부처'.

모자이크 작품인 '부처'를 내놓은 강용면씨는 아름다운 한국의 오색 단청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우선 가부좌를 튼 부처의 모습을 동(銅)으로 뼈대만 세웠다. 그안에 형형색색의 단청색을 조화롭게 활용해 속살(?)을 모자이크로 채워 넣었다. 얼핏보면 투명인간을 연상케 하지만 분명 무변광대한 부처님의 모습이다.

김세일 씨의 '미륵'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중인 국보 제 83호 미륵반가상을 보는 듯 하다. 얼굴은 풍만하며, 가는 눈에 눈썹은 아름다운 반원을 그리고, 눈과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었다. 왼발은 내려 작은 연좌(蓮座)를 밟고 오른발을 그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왼손은 그 발목을 잡았으며, 오른손은 팔꿈치를 무릎에 얹어 손가락으로 턱을 괸 모습이 국보 미륵반가상과 흡사 쌍둥이 불상 같다.

또 이호신씨의 '생사(生死)의 우(雨)'는 염색한지에 수묵 채색을 한 것으로 열반에 든 한 선사와 무심하게 그를 따라가는 사부대중들의 행렬을 사실감 있게 표현했다.

브론즈(동)를 사용해 부처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고명근 씨의 '2면 관음'도 눈여겨 볼만하다. 큰 부처의 얼굴 가운데 하나의 작은 부처를 조각해 놓은 2명의 부처가 경건하고 자애롭게 느껴진다. 서양화가 홍성담 씨의 '물속에서 스무날' 연작 네편도 연꽃과 물의 이미지를 통해 삶과 죽음의 진지한 성찰의 경계를 보여준다. 안성금씨의 '부처의 소리'는 부처의 본질에 대한 파격적인 화면을 캔버스 위에 펼쳐 놓았다.

이외에도 캔버스에 유화를 그린 이흥덕씨의 '붓다, 예수 서울에 입성하다'와 정광호씨의 '더포트 42120', 최태훈씨의 '숲-부처' 등도 불교의 상징을 통해 인간의 이기와 탐욕의 끝을 표현하고 있다.

김세일 학예실장은 "불교미술하면 으레 사찰이나 박물관 안의 봉헌물로서 불화나 불상, 공예 등에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불교미술의 발전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을 갈망하는 불교의 특성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 기획 전시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031)594-8001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최태훈씨의 '숲-부처1'.

고즈넉한 산사에 흐르는 시선율…

백담사 '만해축전' 열어
대동제 · 유명시인 초청 등 행사 다양
직지사 '여름 우리시 대축제' 개최
백일장 · 시조암송대회 등 특성화

한여름밤 산사에서 아름다운 우리 문학을 주제로 한 축제가 잇달아 펼쳐진다. 인제 백담사(회주 오현)에서는 '만해축전', 직지사(주지 자광)에서는 '여름 우리시 대축제'가 열린다.

'2004 만해축전'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된다.

만해 스님 입적 60주년을 맞아 올해는 만해대상 시상식, 유심문학상 · 유심신인문학상 시상, 전국고교백일장, 시인학교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이중 특별히 마련된 '만해 서거 60주년 심포지엄'은 한국시사랑회를 비롯해 한국문인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현대불교문인협회 등 한국문학계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각각 개별 행사를 주관해 만해 스님의 민족관과 문학세계를 재조명한다. 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동제 축전, '문화마을 들소리' 공연, 문예 전시 행사 등은 올해 새롭게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히 대동제에는 백담계곡 전국하프마라톤대회와 축구경기, 씨름대회, 도청소년 댄싱대회 등이 포함돼 있다.

12일 오전 10시 한국시사랑회 심포지엄으로 문을 여는 만해축전은 오후 2시 시인학교 입제식에 이어 오후 6시에는 축전 입제식 및 만해대상 시상식을 갖는다. 특히 3박4일 일정으로 마련되는 만해시인학교는 시를 사랑하는 이들은 누구나가 참가할 수 있는 문학교실이다. 정진규 신달자 최동호 이상국 신승근 도종환 박영희 이언빈 시인과 소설가 송기원씨가 강사로 초청됐다.

다음날인 13일에는 오후 2시부터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최하는 '제 6회 만해축전 전국고교생백일장'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31일 오후 1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anhae.com)를 비롯해 우편 접수와 민족문학작가회의 강원지회(033-636-6787)로 문의 하면 된다.

직지사도 만덕전에서 8월 7 · 8일 양일간 '제 2회 여름 우리시 대축제(시인학교)'를 연다. 특히 올해는 '시인학교'를 비롯해 '시조백일장' '시조암송 경연대회' 등 영역을 특성화 했으며, 유명 시인들이 초청돼 '우리시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시인학교'는 △문학특강: 정완영 시인(시와 인생), 정일근 시인(시의 입문) △현대시조창작법: (김주석 시인) △동시조 창작지도(임성화 · 박희정 시인) △현대 명시조 이해와 감상(문무학 시인)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자작시 낭송과 시조 백일장, 시인과의 대화, 산사음악회 등도 함께 열린다.(054)436-6174

김주일 기자

마하몰단체행사용품특별기획전


펼치면 멋진 썬캡으로 변신!! 접으면 명함사이즈로 보관이 간편 다양한 이미지 및 로고 삽입 가능
▮ 카드썬캡 1,800원(다량구매시 할인)


▮ 연꽃저금통 3,000원


▮ 동자저금통 5,000원


▮ 코끼리저금통 5,000원


▮ 2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4,000원
유색 4,500원
▮ 3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3,200원
유색 3,800원
▮ 2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500원
유색 4,000원
▮ 3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3,500원
유색 4,000원
▮ 20수 이중 라운드티
6,000원


▮ 면 반바지(아동용)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 면 반바지
백색 5,000원 유색 5,500원


▮ 여름불교학교현수막(실사) 높이 90cm
6m 60,000원 7m 70,000원
※기타사이즈 및 이미지 변경가능


▮ 풍경차걸이 4,000원


▮ 황금달마핸드폰걸이 15,000원


▮ 목탁핸드폰걸이 3,000원

유기농 재배한 통불사 연향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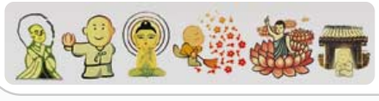
▮ 연향차(연꽃잎차)
~~38,000원~~ → 30,000원
연잎 100% , 40g

지리산 전통 수제녹차

▮ 불성차 (100g)
중작 35,000원
세작 50,000원
우전100,000원


※ 100장이상 사찰명 무료인쇄


▮ 다포(39x50)
기도포(39X80)
다포(백색) 900원
다포(회색) 1,300원
기도포(백색) 1,700원
기도포(회색) 1,900원

* 마하몰 T-셔츠 캐릭터 *

* 사이즈 : 아동용 14호~19호, 성인용 90~110
* 나염비(1도당) 15,000원 추가
(인쇄색상 추가시 인쇄비용 별도)
* 최초 주문 수량50장
* 기타 색상 및 로고제작은 전화상담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Mahamall.co.kr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0>



붓다 가르침에도 집착 말라

지난 달 김선일 씨의 참수를 보고 국민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테러리스트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한국군의 파병을 막기 위해 무고한 한 젊은이를 희생시킨 테러리스트의 잔인한 행위에 분노하였다. 그런데 김 씨를 살해한 '일신과 성전' 단체의 아랍어 홈페지이엔 김 씨가 이라크에서 개신교를 전파하려고 해서 살해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국제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종교적인 측면이 더 우선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 씨가 개신교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신학을 전공한 자로서 이슬람 세계에서 개신교 선교 활동을 하려는 후보자였기 때문에 죽였다고 한다. 이 종교 단체는 김 씨를 '카피르(이교도)'로 규정하고 신의 존재와 의미를 부정하는 자이므로 무슬림(이슬람교 신자)은 카피르를 죽일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김 씨의 죽음은 종교간의 충돌에서 야기된 것이다.

영국의 BBC방송은 한국 개신교인의 중동 지역 선교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지난 5월 지적했다고 한다. 더구나 한달 전인 4월엔 한국인 목사 등 9명이 납치되어 풀려난 일도 있다. 지금 중동엔 선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 있는 한국의 개신교 단체 및 선교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중동의 이슬람교도는 개신교의 선교에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개신교와 이슬람교의 두 절대신은 서로 다른 존재로 각기 신봉된다. 개신교도는 여호와를 최고의 신으로, 이슬람교도는 알라를 최고신으로 찬양한다. 서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불교는 이런 종류의 신들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고 평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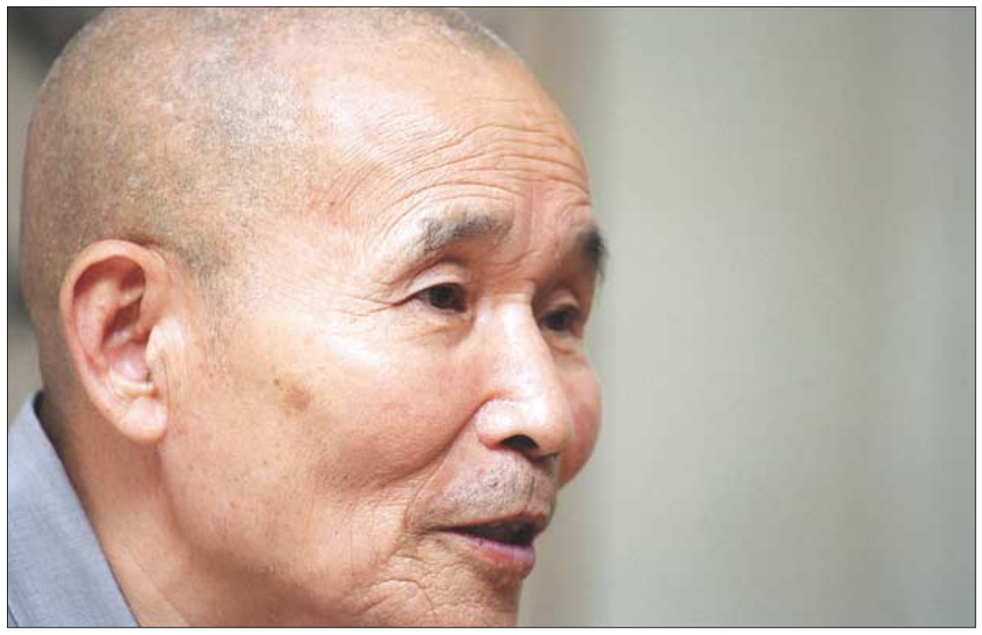
불교의 이런 태도는 붓다의 가르침에 기인한다. 붓다는 당신의 가르침마저도 집착해선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아리타경>에서 뗏목의 비유를 설하여 법조차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물이 매우 깊고 지극히 넓으며, 물살은 빠르고 긴데, 거기에는 배도 없고 또한 다리도 없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쪽 언덕에 볼 일이 있어서 그 곳을 건너고자 하였다. 그는 건너려 하다가 곧 생각하였다. '이 물은 매우 깊고, 물살은 빨라 헤엄쳐 건너갈 수 없다. 건너갈 수 있는 배도 없고 다리도 없다. 그러니 나는 저쪽 언덕에 일이 있어 꼭 건너가야 한다. 어떤 방편을 써야 내가 저쪽 언덕까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이쪽 언덕에서 풀과 나무를 끌어 모아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 그것을 타고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야 하겠다.' 그는 곧 이쪽 언덕에서 풀과 나무를 끌어 모아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 그것을 타고 안전하게 저쪽으로 건너갔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뗏목은 나에게 이익이 많았다. 나는 이 뗏목을 타고서야 안전하게 저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으로 건너올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이것을 오른쪽 어깨에 메거나 혹은 머리에 이고 가리라.' 그래서 그는 곧 이 뗏목을 오른쪽 어깨에 메거나 혹은 머리에 이고 간다면, 과연 그 뗏목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뗏목을 위해 유익한 일이 되겠는가? 그 사람이 이 뗏목에 대해 감사하지만 이 뗏목을 도로 물에 두거나 혹은 언덕 가에 버리고 가는 것이 그 뗏목을 위해 유익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만일 너희들이 내가 설한 뗏목의 비유에 대해 잘 안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이 법도 버려야 하겠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랴."

뗏목은 강을 건너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강을 건너고 나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강변에 놓아두면 된다. 그런데 그 뗏목을 계속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붓다의 가르침도 뗏목과 같아 고통의 강을 건너고 나면 더 이상 힘들게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 아무리 유익하고 고마운 법일지라도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불법을 알리는 것은 불법 자체의 우수성을 알리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불법 포교라는 것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전도선언에서 부처님은 가르치고 있다. 사찰이나 신도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 조직을 더 키우기 위한 포교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로지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유익한 법도 집착 과하면 다툼 일어나
포교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

한국의 개신교 전도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의 선교 열정에 대해선 부럽다. 우리 불교인은 불법을 알리는데 너무 소극적이어서 절에 스스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한 사지에 가서 무리하게 포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고희를 훌쩍 넘긴 세수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서 서울로, 의정부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도윤 스님. 법명인 '도윤(道允)'처럼 길을 걷고 있는 '길 위의 수행자'다.

남 흉내내지 않는 것도 道

지상 백고좌

도윤 스님

(설악산 영시암 회주)

"먹을것 스스로 해결하자"
40여년간 주경야선하며
'일과 수행은 하나' 실천

길 위에 있었다. 설악산에서 서울로 의정부로 늘 '포교길' 위에 있었다.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세수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도윤 스님(인제 영시암 회주)을 서울 충정사에서 만났다.

"요즘도 바쁘게 지내십니까?"

"의정부 쌍용사에는 한달에 두 번 가고 충정사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옵니다. 그래도 영시암에 있는 때가 제일 많지."

스님은 인제 백담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오세암과 봉정암을 복원했다. 백담사 주지 소임 후 의정부 쌍용사에서 의정부지역 포교활동에 주력하면서 '불교 새마을운동'과 '경제생활 개선 운동' 등을 펼쳤다. 1988년부터는 영시암을 복원해 회주로 있다. 예비역 장성들이 불사를 한 충정사에는 무진장 스님, 석주 스님 뒤를 이어 주지직을 맡고 있다.

"그렇게 살다보니 제 법명인 도윤(道允) 중 '도(道)'자처럼 길에서 사는 사람이 돼 버렸죠. 허허."

말끝에 웃음을 터트린다. 그 웃음 속에 길에서 사는 사람 특유의 허허로움도 느껴진다.

"그런데 걷는 게 느려졌어. 예전에 부지런히 걸으면 4km 정도는 13분에서 15분이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돼.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못가서 그런 것 같아."

교통이 발달해 이제는 4시간 정도면 서울에서 설악산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 중 불쑥 꺼낸 한마디. 단순히 육체의 쇠약해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덧붙인다.

"먼저 가고 뒤에 가고 하는 것도 거기서 거깁니다. 쓸데없는 일들이지."

속도경쟁의 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속도를 기준으로 우열을 나누고 순위를 매기는 우리 사회. '빠름'이 곧 '선(善)'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쓸데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데 사람들 모두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그렇겠지요. 내가 나대로 사는 것, 그게 즐거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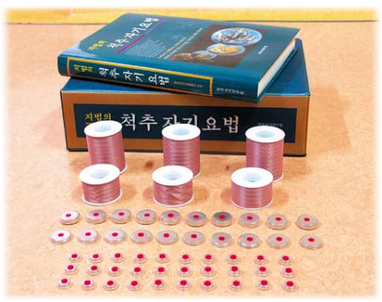
그렇다면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얘긴가. 진정한 나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나대로' 살 수 있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말인가. 스님의 말을 곱씹어본다.

"남 흉내를 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도(道)'가 아닌가 싶어요. 요새 사람들은 모조품을 많이 만들고 또 그걸 좋아해. 틀 하나만 만들면 똑같은 모습이 나오거든. 보통 천편일률이라고 하지. 천편의 글이 모두 같은 율이라고 하면 밋밋하고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동의를 구하는 듯한 스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쳐다보는 스님 눈길을 그대로 받을 수 없어서였다. 잠시 탁자를 내려다봤다.

"내가 올해 74살이에요. 요새 나이로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를 먹으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부담 없이 살 수 있거든. 체면치레 안 해도 되고. 특별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
◎ 수행하는 스님들이 치료하면 척추가 곧아지고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 심장이나 폐, 위장, 대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골수염, 오십견, 요통등 관절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 질환
◎ 남성들의 조루, 정력감퇴,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강기등의 질환을 부작용없이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척추자기요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통도사, 범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침을 비롯한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질게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삼체(제식,제변,제면)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나자신의 건강과 내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육 법 등 (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히 걸리는 게 없는 것 같아. 조실스님이다 주지스님이다 이런 감투를 쓰고 있으면 이름에 걸리기 쉬워. 하지만 소임도 소임으로 알고 본분을 익히면 그보다 자유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

연륜에서 나오는 것일까. 수행이력에서 나오는 것일까. 넉넉함이 말끝에 흐른다.

스님은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한 이른바 엘리트 학승이었다. 그러나 출가 이후 몸을 담았던 사찰들을 살펴보면 스님의 정신을 알 수 있다. 정선 향적사, 적조암, 설악산 오세암, 봉정암, 화성 신흥사 등. 지금은 번듯한 사찰들이지만 60년대만 해도 토굴수준이거나 폐사지일 뿐이었다. 스님은 이런 곳에서 자급자족을 하며 치열하게 정진했던 것이다.

"나를 부르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행복인 것 같아. 마음이 따라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지. 나보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 설악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면 700㎞가 넘으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고달파. 몸살도 나지 않고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스님은 내설악을 찾는 불자들에게 '설악산 농부 스님'으로 불린다. 영시암에서 무, 배추 등을 키우며 40여년간 주경야선(晝耕夜禪)을 해 오고 있다. 또 당귀, 작약, 더덕 등 약초도 재배한다.

스님에게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일깨워준 사람은 복천암 주지 봉인 스님이었다. 어느날 봉인 스님이 "돼지를 보았는가. 그들은 구정물을 먹고 살지만 많은 것을 세상에 회향한다"고 말했다. 얻어먹은 만큼, 아니 그보다 몇 배로 갚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이때부터 도윤 스님은 세상에 회향할 것이 무엇인지 늘 염두에 뒀다고 한다.

'수행자라면 내 먹을 것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스님.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더 건강해 진다는 도윤 스님. 스님은 문득 자랑 한 가지를 꺼내놓았다.

"내가 다른 것은 자랑할 게 없고 기술 한 가지 자랑하지. 어디든지 도끼하나 톱 하나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어. 옛날 스님들한테 전수받은 거야. 요새는 큰 절을 토굴이라고 하지. 원래는 바위 밑에 구들장 놓은 걸 토굴이라고 해. 2평이면 충분하지. 손님 맞이도 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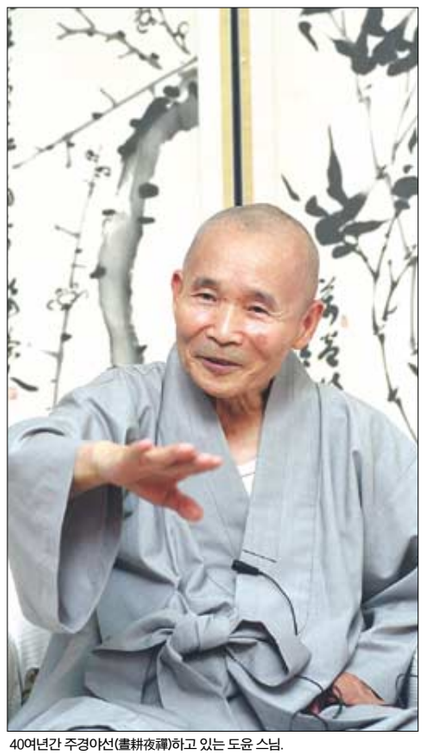
왜 갑자기 토굴 얘기를 꺼낸 것일까. 장부일대사(一大事)를 궁구하기 위한 토굴이 개인 재산으로 치부되고 있고, 온갖 첨단시설을 갖춘 호화 별장의 개념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요새는 그런 토굴에서 살려는 사람이 없어졌어. 대가 끊어진 것 같아. 토굴에서 살다보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이면 밝은 달을 쳐다볼 수 있어. 일종의 선율이라고 할까.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

스님 눈길이 천정 한 곳에 머무른다.

스님은 출가 후 강원도 정선 정암사 위에 위치한 적조암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 옷 한 벌과 바리때 하나만 챙겨 간 적조암에서의 생활은 토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혼자서 나무하고 농사짓고 살다보니 자연스레 묵언정진에 들어가기도 했다.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이라도 하는 듯, 검소한 생활을 하는 후학들이 줄어듦을 안타까워하는 듯, 침묵이 흘렀다. 스님은 잠시 후 말을 이었다.



40여년간 주경야선(晝耕夜禪)하고 있는 도윤 스님.

도끼·톱 있으면 집 한채 뚝딱
약초키워 신도들에게 차대접
"불교,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야"

"영시암에 가면 도량 안에 노송 세 그루가 있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그런데 이 세 나무가 서로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송무백열(松茂柏悅)이라고 하던가. 소나무의 무성함을 잣나무가 즐거워한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친구가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친구가 잘되면 내 신세를 들아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대신 나도 부지런히 크면 되잖아."

스님은 영시암에 있을 때 아침 6시부터 저녁 공양 때까지 법당 툇마루에 나와 좌선을 한다. 봉정암과 오세암에 가는 신도들을 위해서다. 사찰을 무심히 지나치기보다 노스님을 발견하고 합장이라도 한 번 하면 그만큼 업장소멸이 되기 때문이다. 스님 역시 재배한 약초로 차를 끓여 신도들에게 대접한다.

"설악산을 찾는 불자들이 봉정암만 절이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루에 수백 수천명의 사람들이 영시암 마당을 밟고 가는 데도 영시암 부처님께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 줄까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차 공양이었지. '차나 한잔 들고 가게나'가 불교의 인사법 아닌가."

40년 전에 왔던 사람들이 요사이도 들러 '노년에 산중에 편안하게 계시지 불사한다고 아직도 서울과 의정부를 다니시냐'고 걱정스런 말들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스님은 그런 말 속에 도시불교와 산중불교를 나누는 생각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때는 도시불교를 폄하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불교는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하는데 장소가 중요합니까."

길은 원래 길이 아니었다. 먼저 지나간 이들에 의해 길이 됐을 뿐이다. 40여년 넘게 전법의 길을 걷고 있는 도윤 스님. 스님은 여전히 '길 위의 수행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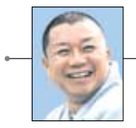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도윤(道允) 스님은 1931년 경북 경산에서 출생했다. 58년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농촌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 문맹퇴치와 농로개발 등을 하며 2년 정도 직접 농사를 짓기도 했다. 그러던 중 학문의 갈증을 풀기 위해 공주 마곡사 복천암을 찾았다. 당숙인 고(故) 뇌허 김동화 박사가 당시 복천암에 있던 관응 스님을 소개해줬던 것이다. 도윤 스님은 60년 관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도윤 스님이 봉정암에서 수행하던 시절, 관응 스님이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다. 무문관에 들어가 육년간 수행하려던 관응 스님에게 "스님, 무문관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계시면 어떨까요?"라고 여쭸다는 스님.

그러나 관응 스님은 "도윤인 여기 육년 있고, 나는 내려가 그곳에 있지"라고 대답한 뒤 다음날 내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여섯 해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도윤 스님은 지금도 '그때 그대로 수행에 힘을 쏟았었으면'하는 후회가 든다고 한다.

65년부터 72년까지 정암사 적조암, 오세암, 봉정암, 백담사 주지 등을 역임한 스님은 80년 중앙승가대 2대 학장 및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지현 스님

부산의 사하구에 있는 당리동 관음사는 법회 때마다 수백 명이 모이는 모범적인 포교도량이다. 이십 년 전만 해도 법당 한 채와 요사 채 한 동, 허름한 식당 한 채가 전부였다. 지금의 관음사는 도량의 모습이 환골탈태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싶을 만큼 면모가 일신되었다.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은 똑같은 공간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스님이다. 말보다는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결과 스님이 사재를 털어서 인수한 관음사는 하루가 다르게 신도들의 호응을 얻으며 활발함을 더해갔다.

지현 스님 곁에는 항상 사람들로 넘쳐난다. 우리가 들어도 잘하는 염불이 아닌데도 신도가 넘치는 것은 지현 스님의 행과 신심을 믿고 따르기



그림 · 문병성

때문이다. 스님은 남이 흉내내기 힘든 일상화된 원력과 부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 뜻대로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되는 일이 많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해인사는 강원의 정규 일학년인 치문반에 입방하기 전, 사미율의 반을 두어서 사미가 익혀야 할 계율을 배우게 한다. 이때까지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하던 지현 스님이 강원의 강사의 길로 접어든 첫 번째 길목에서 사미율의 반인 우리 반을 맡게 되었다. 지현 스님은 스스로에게는 참으로 엄격했지만 남에게는 한없는 자비심으로 대했다. 정말 말로만 들었던 '자비보살'을 날마다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사미율의 반인 우리 반은 고된 행자생활을 해인사에서 함께 했던 인연 때문에 동료애가 끈끈했다. 그래서 엉뚱한 일로도 곧잘 뭉치곤 했다. 지현 스님은, 우리가 그런 엉뚱한 일을 벌여도 아직 중물이 안 들고 철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어린애들 응석 받아주듯 잔잔한 미소로 넉넉하게 받아 주셨다.

결제철에 산문을 벗어나서 원행(遠行)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미율의 진도가 잘 진행되다 보니 교과과정이 결제철에 마치게 되었다. 책 한 권을 마치게 되면 옛날의 서당처럼 강원에서는 '책걸이'라는 의식을 행한다. 무엇이든지 뭉치면 좋은 일인줄 알고 있는 철딱서니 없는 사미율의 반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것이 부곡으로의 책걸이소풍이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강사스님을 설득하기로 했다. 결제철의 소풍은 산문 안의 가야산 정상이나 산 중턱에 있는 마애불 참배가 관례였다.

그런데 지현 스님은 미리 알고나 있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반문했다. 부곡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갔다와서가 문제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다른 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강사안거 기간인 결제철에 대중은 산문 밖 출입을 삼간다. 하지만 사미율의 반 전체가 스님과 함께 비록 당일치기지만 부곡으로 유쾌한 사미율의 책걸이를 다녀왔다. 물론 비밀은 철통같이 지켜졌고, 강사스님과 우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넘어서 혈맹 관계로 인식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고를 한

아랫사람 사랑으로 감싸는 살아있는 '자비보살'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해인사에는 유독 어른이 많았는데 지현 스님은 이 많은 어른들을 한결같이 깎듯하게 모셨다. 어른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생활화된 분이 바로 지현 스님이다.

지현 스님의 은사스님은 송광사 방장이신 보성스님이다. 어른들이 다 그렇지만 보성 스님도 모시기가 그리 만만한 분이 아닌데도 지현 스님은 어른스님을 당신 하시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모신다. 그렇다고 무조건 순종하며 모신 것도 아닌데,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지현 스님은 일가족 다섯 분이 부처님 제자로 출가했다. 부친과 형제자매 다섯인데, 부친은 이미 입적하셨고, 형제들은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으로 신분을 바꿔서 제방의 선원과 기도처에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행복한 삶은 지혜롭게 살 때 가능하고, 지혜는 바르게 살 때 성취된다고 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청정함으로 가득하다. 지현 스님을 보고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보인다. 번잡스럽지 않으면서, 번잡스러운 일을 기꺼이 해내는 스님의 원동력은 매사에 원칙을 준수하고, 기본에 충실한 수행력이 뒷받침되어서 가능하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모든 것을 아우르니 관음사 포교뿐만 아니라 복지관, 장학재단 등 많은 일을 잘 해내고 연꽃처럼 초연한 삶이 지속되지 않나 싶다. 그런 일관된 원력이 부러울 뿐 아니라, 스님처럼 향기가 나는 수행자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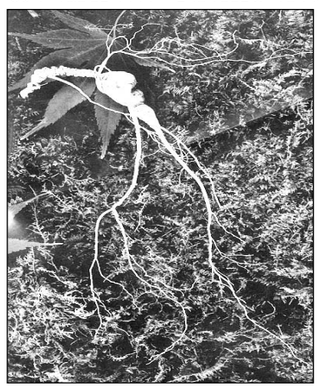
■ 해인사 원당암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2005 원일 불교카렌다 출시!!

-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카 렌 다

· 1.000부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각 사찰카렌다 독판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02)2277-0304
FAX:02)2268-6732
www.wonil-c.co.kr

“우리차 품질 · 품평기준 마련에 역점”


7월17일 열린 공개품평회에서 10명의 품평위원들이 차를 직접 맛보며 심사를 하고 있다.


18일 품평결과가 발표된 후 관람객들이 선정된 찻잎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국내 차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 품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차(茶) 품평대회’가 7월 17~18일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나 개별 단체가 차 품평회를 개최한 경우는 있지만 차 관련 단체가 함께 전국 규모의 차 품평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 한국다도협회 정상구 이사장,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이 공동 대회장을 맡은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차인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의정 이사장은 18일 열린 개막식에서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우리의 차 품평기준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명예를 건 세계적인 명품을 키워나가자는 차인들의 의지가 깃든 행사”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조직위원장 여연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 일지암 암주)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라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격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째 날인 17일 오후 1시부터는 차 관련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추천한 300여 제품 중 예선을 통과한 제품 44종을 대상으로 최종심사에 오를 제품을 가리는 공개 품평회가 열렸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10명의 품평위원이 찻잎의 상태와 색(色) 향(香) 미(味)를 살피는 관능평가와 차 상품의 패키징(포장) 품질 평가 등을 거쳐 최종심사에 오를 제품 13종을 선정했다.

대회 이튿날인 18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최종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대회에서 봉황다원(대표 허정홍)의 ‘세작 월광’이 농림부장관상인 우수품질상을, 천보다원(대표 문평식)의 ‘천보녹차’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품질상에는 곡천다원, 다우제다, 대한다업, 보성 신옥로제다, 쌍계제다, 예전농원, 조태연가, 햇차원의 8개 제품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영숙 교수(부산여대)는 “차 품평대회는 명품을 선정하거나 제품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 품질 개선을 위한 품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라며 “앞으로 품평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 차 품평기준을 세워나가겠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명원문화재단의 연화다례 시연, 한국다도협회의 가회규수다례 시연과 두리차회, 다구전시회 등이 펼쳐져 차인들의 눈길을 끌었다.(02)730-7444, 홈페이지 www.koreatq.net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7월 17~18일)

색 · 향 · 미 · 패키징 평가 거쳐 13종 선정
봉황다원 ‘세작 월광’ 우수품질상 수상

▷왜 ‘품평대회’인가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회와 심사위원단이 끊임없이 강조한 부분은 “품평대회는 단순히 명차를 선정하고 차의 품질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차 품평기준을 마련하고, 이로써 우리 차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라는 것이다.

여연 스님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소비자들이 양질의 차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선정됐나

이번 대회에 추천된 차 제품은 모두 300여 종. 조직위원회측이 농림부의 협조를 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것이다. 제품은 올해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첫물차(세작)를 대상으로 했고, 7월 1~15일 판매점을 방문해 직접 제품(500g)을 구입했다.

품평위원과 품평감독위원 역시 공동주최기관인 조계종포교원과 하동농업기술센터, 중국 절강성 하주 다엽연구소, 전남차시험장 등에서 추천한 인물로 선정됐다. 품평위원은 중국 농가원 차엽연구소 심배화 교수를 비롯해 부산여대 정영숙 교수, 명선차인회 이사장 혜성 스님, 화개제다 홍소술이 대표 등 10명이 맡았다.

▷품평기준은 무엇인가

17일 열린 공개 품평회는 5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품평은 예선을 통과한 44개 제품을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 제품명을 알 수 없도록 제품에 일련번호를 매겨 심사함)로 품평했다.

우선 100g의 차를 품평반에 담아 차의 외형과 색을 살핀다. 다음으로 3g의 차를 품평배에서 5분간 우려낸 후 찻물을 품평완에 따라 찻물의 색과 향기, 맛을 차례로 심사한다. 마지막 단계는 우려낸 잎의 모양을 살피는 순서. 엽저반을 사용해 우린 잎을 세밀하게 살핀다. 품평점수는 차의 외형 20%, 색 15%, 향 25%, 맛 30%, 우린 찻잎 10%로 배정됐다. 44개 차를 품평하는데 4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차의 모양과 맛, 향기를 살피는 관능평가에 더해 포장적합성 및 식품안정성 평가도 이뤄졌다.

▷선정 제품에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되나

조직위원회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대량 고정구매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돕는다. 또한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 백서>를 발간하고 품평대상에 대한 생산환경 조사 등 세부연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여수령 기자



“소박 · 검소함이 차인의 덕목이죠”

교육 시간에 따라 초심·다덕·다사·다선으로 구분
한복 고집, 다건 직접 제작 등 ‘생활 속 차’ 지향

다양한 교육 ·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민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이곳에는 1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차 모임 ‘감로다회’가 있다.

사실, 사찰 차모임은 신행모임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나가기가 쉽지만은 않다. 차가 사람에 따라 단순한 ‘기호음료’이기도 하고 수행자들에게는 ‘수행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잡아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차라고 할 수 있다.

7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 자리 잡고 있는 수원포교당을 찾아갔다. 감로다회의 정기모임이 열리는 이날, 회원들은 25일 ‘봉선사 연꽃축제’에서 선보일 헌공다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수원포교당의 감로다회가 오랜 기간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은 송지섭(68 · 법명 불일) 회장의 노력이 크다. 일흔을 바라보는 ‘큰언니’로서의 든든함과 모르는 것은 인터넷을 검색해서라도 알아보는 ‘열성’으로 회원들을 이끌고 있는 송 회장.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잘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겸손을 표한 송 회장은 “같이 배워나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감로다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조금 색다르다. 일년에 두 번 열리는 1주일간의 특강을 통해 신도들에게 ‘차의 맛’을 먼저 보게 한다. 차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감로다회에 입회할 수 있다. 이후 매주 월요일 열리는 정기모임에서 차를 배우게 되는데,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에 따라 초심(初心, 25시간), 다덕(茶德, 50시간), 다사(茶師, 100시간), 다선(茶禪, 200시간)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포교당 감로다회 회원들이 ‘감로다법’을 선보이고 있다.

소박하고 검소한 것을 첫 번째 덕목으로 꼽는 회원들은 비싸고 화려한 한복 대신 생활한복을 고집하고 다건도 직접 만들어서 쓸 정도로 ‘생활 속의 차’를 지향하고 있다. “부처님 도량 안에서 만난 도반들과 차 한잔 나누며 부처님 닮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감로다회의 목적이 아닐까요?”

차로써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감로다회 회원들. 그들이 전파하는 ‘차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031)255-2692

인터뷰 송지섭 회장



“대외적 봉사활동 폭 넓힐 것”

일흔을 앞둔 나이라곤 믿지기 않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감로다회 송지섭 회장.

매주 열리는 교육을 위해 직접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기도 하는 송 회장은 “차에 대해 잘 모르지만, 차는 심성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또한 차는 다양한 영역으로 사고(思考)를 넓혀나가는데도 좋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초하루 법회나 부처님오신날 같은 행사에서 차 공양을 주로 해 왔습니다. 이번 봉선사 연꽃축제 참가를 계기로 사찰 신도들만을 위한 봉사에서 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차를 선보일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령 기자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맛·향·색·포장 名茶를 말한다

제1회 茶품평대회 우수제품 선정



우수품질상

■ 봉황다원 '세작 월광' (대표 허정홍)

저렴한 가격으로 수제차 대중화



"뜻밖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양질의 녹차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에서 우수품질상에 선정된 '월광차'를 만들고 있는 봉황다원 허정홍 대표. 경남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에서 30년째 녹차 밭을 일구고 있는 허 대표는 녹차의 뛰어난 효능에 관심을 갖게 돼 녹차 재배를 시작했다고 한다.

"어릴 때만 해도 설사나 감기를 다스리는 약으로 쓰이던 차가 대중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돼 뿌듯하다"는 허 대표는 "이번에 선정된 '세작 월광'은 곡우와 입하 사이에 돋아나는 잎을 따서 만든 차로, 수제차가 지닌 맛과 향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고루 즐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차"라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에 이로운 기호식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차를 만들겠습니다." (055)883-3177

우수상

■ 천보다원 '천보녹차' (대표 문평식)

전통 제다법 사용한 '무공해 식품'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녹차를 이용한 것이 큰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차 발전을 위해 힘쓰라는 격려로 생각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에 자리 잡은 천보다원의 문평식 대표는 수상의 영광을 '자연'으로 돌렸다. 30여 년 이상 비료나 농약 없이 시원한 남해의 해풍과 안개 속에서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야생차가 바로 맛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녹차 재배의 최적지인 해발 400m의 고도와 평균 강우량 1500mm 이상의 기후 조건이 차의 맛을 결정한다"는 문 대표는 "찻잎을 손으로 채취해 전통적인 제다법으로 만든 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천보녹차는 가마솥에 덖어 멍석에 비비고 자연 건조시키는 제조방법으로 만들어 마신 뒤에도 향이 오래 입안에 머무는 '무공해 자연식품'입니다. 우리 차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61)853-9227

□ 곡천다원 '하동녹차' (대표 이호복) - 품질상

품질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다들 열심히 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진했더니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듯합니다."

곡천다원 이호복 대표는 수상소감에 앞서 소농들이 일념으로 일구는 화개의 차 재배 열기부터 전했다. 가장 뛰어난 품질을 향한 지역 차인들의 노력이 이 대표를 끊임없이 자극했다는 것이다.

"10여 년 동안 녹차재배에 매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차재배에 몰입할 수록 연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대표는 4시간 거리의 한서대 대학원에서 녹차 공부를 하고 있고, 아내 역시 원광대 디지털대에서 차를 배우고 있다.

"차재배 인구가 노령화되고 노동인력이 부족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 대회가 차재배 전반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55)883-5160

□ 쌍계제다 '쌍계차' (대표 김동곤) - 품질상

백탄숯불에 덖어 변함없는 맛 선사



쌍계제다는 우리나라 차의 시배지인 경남 하동의 화개골에서 10대째 야생차 제다법을 이어오고 있는 '터줏대감'이다.

"우리의 전통차를 전국의 차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즐거워 차를 만든다"는 김동곤 대표는 "한 잎 한 잎 손으로 따서 숯불에 덖고 선별해 포장하는 작업까지 모두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항상 햇차와 같은 변함없는 맛을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쌍계차는 익히고 비비는 작업을 반복하고 마지막에 백탄숯불에 덖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 하지만 김 대표는 "지리산과 섬진강의 안개, 따뜻한 햇살과 비와 바람이 찻잎의 맛을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자신은 여기에 '정성'만을 더할 뿐이라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쌍계제다의 차는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도 선정되어 차 애호가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055)883-2449

□ 다우제다 '청심아' (대표 이승관) - 품질상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최선"



"제다인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차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다우찻집과 다우제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관 대표는 인터넷에 카페(http://cafe.daum.net/dawucafe)를 개설해 우리 차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차인이다.

인터넷 카페에는 60여명에 달하는 회원이 모여 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우리차'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뒤늦게 수상 소식을 들어 아직 얼떨떨하다"는 이 대표는 "순간순간 열심히 차를 만드는데 매진하다 보니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각종 공해와 매연에 찌든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마심으로써 코와 입이 즐겁기보다 속이 편안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055)883-0765

□ 예전농원 '예전녹차' (대표 전상연) - 품질상

입지조건 최고 정성스런 수제공정



"입지조건이 좋아서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녹차로 품질상을 받은 예전농원 전상연 대표는 화개골의 뛰어난 입지조건에 수상의 공을 돌렸다. 한겨울에도 꽃을 피운다는 경남 하동군 화개골은 기후나 토양 등 차재배 입지조건이 뛰어나 품질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의 품질은 자연환경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 대표는 차 잎도 한 잎 한 잎 직접 채취한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몇 번의 수제공정을 통해 정성이 스며든 수제녹차를 생산한다. 가정에서 능력껏 소량씩 재배하는 차이지만, 전문가의 기술과 정성이 모든 과정에 배어있다.

"우리나라 차의 고향인 '화개골'의 자부심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수상이 화개골 차생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55)884-7444

□ 대한다업 '봉로' (대표 장영섭) - 품질상

마케팅 차별화 경쟁력 갖춘 대표차



"보성다원의 삼나무 오솔길과 차밭 사이길을 걸으면서 싱그런 차향과 깊은 맛을 음미하세요."

대한다업은 장영섭 회장이 1959년 해발 350m 보성 오선봉 주변에 대단위 차밭을 일구고 삼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 관상수를 식재해 민둥산 불모지에 보성차 관광농원으로 출발했다.

대한다업의 대표적인 주력 상품인 '봉로'는 적합한 기후조건과 충분한 설비, 그리고 정성이 담긴 특산품으로 명실공히 보성의 대표적인 명차로 자리잡고 있다. 녹차 이외에도 요즘에는 가루녹차, 녹차 아이스크림 등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차별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인스턴트와 패스트 푸드의 범람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녹차는 하나의 대안 식품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에 녹차를 활용한 상품 개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 조태연가 '조태연가죽로차' (대표 조윤석) - 품질상

싱그러움에 장인정신 더한 명품



국내 최초로 상업차를 만들었던 조태연 옹에 이어 2대 조성호, 3대 조윤석 씨로 이어져 온 조태연가. '올곧지 않은 차는 팔지 않겠다'는 장인정신으로 차를 재배해 오고 있는 조태연가의 차는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품(名品)'이다.

'죽로차'로 품질상을 받은 조태연가 조윤석 대표는 "이번에 열린 차 품평대회는 한국 차산업의 과도기인 이 시점에 한국차의 우수성과 기호성을 찾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죽로차'는 대밭 사이에서 아침이슬을 머금고 자란 싱그러운 차나무 잎이란 뜻.

"야생차에 손맛이 더해져 자연의 청정함을 차심으로 바꾸는 것이 맛의 비결"이라는 조 대표는 "앞으로 좋은 차를 만들라는 격려라 생각하고 칭찬에 자만하지 않고 차인의 긍지를 담아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055)883-1743

□ 신옥로제다 '신옥로곡우' (대표 조상래) - 품질상

웰빙 시대 맞춘 녹차 개발로 승부



"저희 회사는 100% 기계로 차를 재배합니다. 기계로 만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품질이나 맛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계차는 수제차보다 맛과 향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신옥로제다를 설립해 운영해 온 조상래 대표는 신옥로제다의 녹차제품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다. 특히 조 사장은 소비자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고급 녹차를 제공한다는 경영 철학을 줄곧 지켜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 회사인근 도로변에 무료시음장을 만들어 자회사의 녹차의 효능과 특성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 "녹차의 질을 높인다는 장인정신으로만 일해왔는데 이렇게 막상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니 책임이 무거움을 느낀다"는 조 사장은 기존 녹차 외에 요구르트에 타먹거나 마사지용으로 사용되는 가루녹차와 음료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엽녹차를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061)852-8283

□ 햇차원 '녹로' (대표 이기남) - 품질상

일곱번 덖어 만든 수제차에 자부심



햇차원은 1977년 지리산 자락에 3만평의 녹차 밭을 조성해 최고 품질의 제품생산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열린 '제8회 하동 야생문화축제'에서 '명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영예는 '국민 건강 지킴이'를 사훈으로 내걸고 녹차에 인생을 받쳐온 이기남 대표의 집념과 고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희 회사에서 특화 상품으로 내건 '녹로'는 완전 수제차입니다. 일곱 번을 덖어서 정성껏 만듭니다. 하동의 좋은 자연 환경과 차인들의 정성이 결합돼 만드는 만큼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햇차원이 차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로 붐비는 이유도 바로 그 정성을 느껴보기 위해서다.

햇차원은 감식초와 녹차를 결합한 감식초 녹차와 반발효차인 '바위차'도 주력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055)883-3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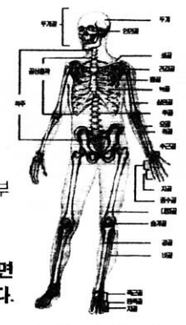
김주일 · 여수령 · 강신재 기자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겹누비면(먹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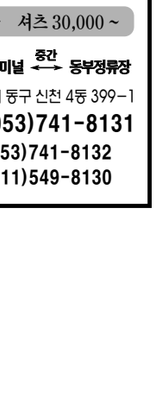
면(먹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무 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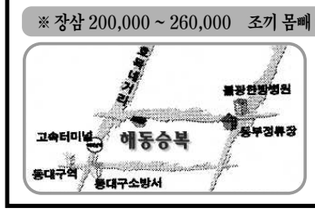
모 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마(먹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빼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속터미널 ⟷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하 당 茶

"하 당" 원재료: (갈근, 치자, 대계, 계피, 감초, 칼슘, 칼륨)

이온성 알카리 복합체 - 하(下)당(糖)

무료체험을 실시합니다.

☆ 소비자 만족 시스템(15일간의 무료체험) ☆

◈ 15일이면 …… 결과?!.
◈ 15일분을 무료로 드립니다.(하당)
(책자+택배비+기타비용=18,000 하당【100ml×45팩】) 소비자부담
◈ 1만 5천명에게 체험시켜 드립니다.
(체험 후 체험수기를 보내 주십시오.)
◈ 신제품 하당을 직접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만족 시스템!
: 그동안 시중에서 구입하여 돈 낭비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체험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
※ 1인 한번의 기회
하당 체험후 구입가 1개월분 180,000원【100ml×90팩】

대리점모집중 문의 : 02)523-4060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 인 당
무료전화 : 080-521-6666

신행수기

시간속으로 달리는 시한폭탄 〈상〉

신선희 (43 · 경남 창원군)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싫어하는 마음이 쌓이면 자궁에 병이 생긴다.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고 〈불설 삼세인과경〉을 인용하여 연세대학교 김 모 이학박사가 말을 했다.

우리 몸에 생긴 병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안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함으로써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그러나 나는 신문 어느 부분의 칼럼처럼, 굳어진 석고 쯤으로 읽곤 했었다.

1997년 늦은 가을날 우리나라는 IMF라는 불명예로운 국제적인 꼬리표를 달았다. 나라가 부도나 버린 것이다. 그 엄청난 단어와 언어 앞에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지옥과 극락의 갈림길에서 끝없는 고통의 순간들로 한 번에 다가왔다. 임인생 호랑이, 세상이라는 정글의 숲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표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

경남 창녕에서 군내 최초의 외국전문어학원을 개원하여 원만하게 운영이 이루어졌다. IMF가 터져버리자 영어권 외국인 강사 3인이 밤사이 야반도주해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당신들의 나라에선 주유소 총잡이만 들어도 한국에서의 수입보다는 괜찮다는 메모만 남긴 채.

어학원은 규모를 늘린 상황이라 경영 압박이 가슴을 크게 짓눌렀다. 급기야 한시 바삐 어학원을 정리하는 것이 부채로부터 벗어나는 길인지라, 다른 외국인을 포함해 원가 절하로 매도하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 여기는 대도시도 아니고 전문 어학원이 경쟁할 상대도 없는 처녀지였기에. 어학 전공자 또는 경영을 해본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금전에 시달리면서 잠자기 전 머리맡에 두고 〈금강경〉 한 편을 천천히 경전공부하듯 독송을 했다.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로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오로지 한마음 안정시키기 위한 〈금강경〉 독송은 살아서 의식 속에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고찰 화왕산 관룡사에 갔다.

저녁예불과 관음기도를 하기 위하여 영산에서 30분 거리를 기도의 가피력이 있을 때까지 하리라 마음을 크게 가졌다. 다른 방도가 나에겐 없었다. 공장 부도 나지 말라고 은행 신용보증하여 준 것이, 오빠의 44억 공장 부도와 함께 고스란히 나에게 크나큰 짐으로 남았다.

잠 못 이루는 밤. 오로지 〈금강경〉에 의지하고 관음기도에 희망과 목숨을 걸었다. 집안의 몰락이 밀물과 썰물 교차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밀려나가는 것이 훤히 보였다. 관룡사 기도는 한달을 넘기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참기 힘든 순간순간의 하루 뿐. 관룡사에는 법당 내 상당 뒤편에 백의관음 벽화가 있었다. 관음기도를 하고 마칠 때는 뒤편 백의관음벽화를 향해 삼배를 올리고 법당을 나왔다.

두 달이 다 지나갈 무렵, 여느 때처럼 저녁예불이 끝나고 홀로 남은 법당 찬바람에 두 손을 비비고 떨며, 3천 주력과 참회의 절을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림 · 김흥인

어학원 부도위기 속 오직 관음기도
어느날 새벽 잠깨어 끝없는 하혈…

한참을 절하고 있는데 법당 뒤쪽에서 키가 작은 비구니 스님이 다가와 물었다.

어학원을 얼마에 넘기려고 하느냐. 2장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바라보시는 비구니 스님은 말없이 법당 뒤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화들짝 깨어보니 아침시간이었다. '아, 꿈이었구나. 온종일 꿈속에서 본 비구니 스님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스님과의 대화는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시간이 오래갈 것이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한달한달 은행 결제일에 어학원이 부도나지 않게 하는 살얼음판을 걸으며 차츰차츰 지쳐가고 있었다. 영어권 외국인 강사 한 명과 더불어 학교출강 수업과 원내수업만 하면서 가능한 출강을 줄이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체제로 돌입했다. 그렇게 오빠 부도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전세보증금을 손상시키는 어려운 경영난에 힘겨운 IMF와 씨름하며 보냈다.

겨울의 얼음보다 더 춥고 엄청난 금전의 허리케인 앞에 한 목숨 턱걸이하면서 오로지 〈금강경〉 독송과 발원기도는 나의 신선한 공기였고 안식처였다.

98년 봄, 4월 9일. 산다는 것에 아픔, 슬픔, 고통을 통감하면서 어느 날처럼 하루업무를 정리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이 차라리 행복하리라"는 절절한 심정으로 침실로 향했다. 어학원 건물 안에 조그마한 원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숙식을 하던 차였다.

평소처럼 〈금강경〉독송을 끝내고 누우면 바로 아침이었는데, 그날은 새벽 3시 30분 경 느낌에 이불 위에 소변을 보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은 소변이 아니었다. 하염없는 하혈을 하는 것이었다. 원룸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통에 소변을 보곤 했었는데, 핏덩어리와 함께 끊임없이 뽐어나오는 하혈에 정신이 몽롱해졌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으나 전화기를 어렵게 찾아 창원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 어지러움은 온몸을 마비시키고 움직일 수 없었다. 이미 플라스틱으로 된 큰 세수대야가 하혈로 가득찼다. 119도 생각나질 않았고 연락받은 부모님은 너무 놀라 구마고속으로 올라와야 할 것을 남해고속으로 올라와 뒤늦게야 도착했다. 모친이 방안에 가득한 하혈에 놀라워하는 동안 아버지는 119구급대를 부르고 방안의 하혈자국과 하혈의 대야를 깨끗이 치우고 계셨다.

5시경 마산 파티마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응급조치를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하혈은 계속 되었고 꼬박 하루가 지났다. 의식은 선명했으나 의식과 상관없이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누군가 옆에서 일으켜 주지 않으면 그대로 꿈꾸는 식물처럼 부동자세로 누워있어야만 했다.

원인을 알기 위해 아침부터 여기저기를 검사하고 나섰다. 자궁 내시경을 했더니 자궁내막에 근육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막에 근육종양이 혈관 핏줄에 닿았기에 그것이 터졌고 그 터진 핏줄이 심각한 출혈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치료만 한다면 언젠가 또 반복된 하혈이 언제 어디서 터져버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출혈과다로 생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간단명료한 설명을 가족과 본인에게 해주는 것이었다. 담당 주치의는 자궁 추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김연수
변호사

공부를 해오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바로 조급증이라는 것이다. 항상 승패에 매달려야 하는 변호사로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 왔다. 자연히 공부하는데도 그런 버릇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내게 다가온 다음 이야기는 한 순간에 문제점을 무너뜨리게 하였다.

토끼의 달리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북이는 5년을 걸어서 토끼 집에 도착해 말했다. "어이! 토끼야 나랑 달리기 한판 어때?" 기가 막힌 토끼는 거북이를 들어서 휙 던져버렸다. 3년 뒤 거북이가 다시 찾아와 말했다. "야! 방금 날 던진 게 너냐?"

선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어찌 보면 웃어 넘기기 쉬운 시중의 이야기에 번쩍이는 진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6개월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화두에 지친 마음이 다시금 기운을 얻으며 불끈 주먹을 다잡듯이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루 20분씩 이라도 꾸준히 공부해야
생사윤회에 놀아나지 않는길 얻게 돼

아침 참선이 끝나면 묘봉 스님(국은사 주지)과 함께 차를 마신다. 스님께서도 내 조급증을 아셨나 보다. 어느 날 차 마시는 시간에 묘봉 스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그릇 중의 하나는 경남 산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산청에서 나는 흙은 중국 등에서 나는 흙보다 그릇을 만들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도공들은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고, 나아가서는 다른 그릇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그릇을 만들어냈다. 즉 새지 않되 물기가 바깥으로 배어나오는 그릇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릇 밑바닥에 물기가 만져진다. 그리고 찻상에 깔린 다포에도 물기가 밴다."

한꺼번에, 과도하게, 줄줄이 새거나 넘치지 않지만 긴긴 시간을 보이지 않게 배어 나와 바닥을 적시는 그릇처럼 차근차근히 공부할 일이다. 사람들은 공부를 시작할 때는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기세로 매섭게 공부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잡히는 것이 없다며 실망하고 물러서고 만다. 큰스님은 주머니 속의 송곳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드러내지 않았으되 저절로 드러나서 남들도 알게 되는…."

스님께서는 하루에 20분만 공부하라고 하신다. 다만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다. 공부하는 이들의 가장 큰 병통은 공부할 때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하다가 흥이 나지 않으면 며칠씩 쉬고 다시 마음 내키면 하루에 몰아쳐서 공부하는 것이란 말씀이다. 이런 공부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하신다.

참된 스승 찾는 일 자체가 참된 공부라는 말이 진실로 가슴에 와 닿는다. 큰스님으로부터 부처도, 조사도 모두 죽이는 기개와 힘을 가지지 않고는 선객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였던가? 경전의 죽은 글자에 매료되어 원숭이처럼 좋은 말이나 나불댄다면 어찌 선이라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윤회와 생사에 놀아날 지경이면 뭣하려고 모이고 더불어 출가를 배울 것인가?

이제 나는 혼자임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내 자신의 문제를 깨치지 못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고 허송세월 한 것이기에 공부는 혼자 행할 때 게으르지 않는 것. 스승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혼자일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곤 했던 나. 그러나 오늘 나는 다시 일어나서 내 안의 나를 살핀다.

자꾸만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나에서 그런 '나'가 결코 공부하고자 하는 나와 다르지 않음을 잘 알기에….

내가 외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내 갈 길을 가기 위해서다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지음 | 양장 | 값 9,800원

교보 비소설 1위
영풍 종합 1위
영광·동보 1위



깊은 사유의 언어와 맑은 영혼의 소리
〈오두막 편지〉 이후 5년 만에 펴내는 법정 스님 신작 산문집!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 라는 말 자체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홀로일 때 비로소 세상에 살면서도 늘 아웃사이더로 있으리라.
홀로 있을 때 완벽한 생동과 협동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전체적이기 때문이다.

사유의 가뭄을 깨단게 해주는 법정 스님의 책들

서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띄우는 사랑과 위안의 글

버리고 떠나기
진정한 충만은 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준엄한 감동

물소리 바람소리
침묵을 통해 자연에서 배우는 진정한 아름다움과의 만남

산방한담
산사람의 정기와 자연의 정기가 듬뿍 스며 있는 수상집

텅빈 충만
스님의 속뜰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담백한 산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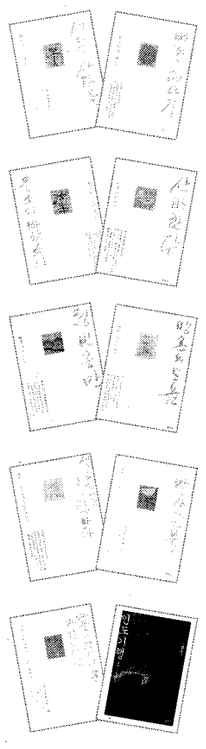
영혼의 모음
새벽 이슬처럼 싱그러운 스님의 첫 수상집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빈한한 영혼을 적시는 침묵과 명상의 언어

말과 침묵
일반인들도 쉽게 보는 불타와 조사들의 어록, 불교 입문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는 소박하고 쉬운 숫타니파타 강론집

인도기행
영혼과 깨달음의 땅 인도를 찾아가는 스님의 첫 기행문



www.isamtoh.com
도서주문 및 문의 080-763-8961 | (02)763-8961~6 샘터

마음의 굴림에 의해 앞날이 펴지고 밝아져

참사람이 되려면…

문 스님!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임제 스님께서도 참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참사람의 경지는 어떠한 경지인지요?

답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 · 수 · 화 · 풍으로 뭉쳐서, 바람과 흙과 물과 이 모든 것이 한데 합쳐서 큰 성을 이루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지구라는 집이 됐고, 바로 대천세계라는 집이 됐고 중천세계도 있고 하천세계도 있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것이 전체 아닙니까? 당장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물이 없어도 아니 되고 불이 없어도 아니 되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대가 공해서 태양이라는 그 자체의 따뜻한 그런, 보람 있는 밝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러한 밝음이, 우리를 전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밝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한마음 그 한 점의 근본이 태양의 근본도 될 것이요 천지의 근본도 될 것이요 우주의 근본도 되니, 이 오온에 스스로 밝아서 돌고 스스로 밝아서 걸릴 게 없는데 어찌 이 오온에 칠보가 가득 차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니 닿는 데가 없거늘 사람들은 모습과 이름을 짓하고 거기에 자기의 그 삶을 취하려고 하니 그것이 가는 곳마다 걸려요. 그러니 그 걸리는 것에서 언제 어느 때에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똑바른 '참사람'을 이르는 것입니다. 참사람이라는 것이 부처님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사람 되려고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또는 참사람 아니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직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한 점의 공한 자리에,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다시 놓는다면, 다시 맡겨 놓고 믿음을 진실하게 갖는다면,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부처님의 마음도 모든 중생들의 마음도 모든 걸 다 알게 되며 남을 해하지 않는 마음,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이 되죠. 이 자비라는 것은 헐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것이 몰락 없는, 높고 낮음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는 그러한 한 점의 그 내놓을 게 없는 이런 빈 그릇 자체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찰나찰나 나투면서 밝게 비추어 주는 바로 손 없는 손이요 발 없는 발이요 길 없는 길이라. 평림하여 평손이요, 평발이요, 이것이 바로 한 손 들어서 천지를 삿갓으로 쓰고 한 손 들어 해와 달을 꿰어 굴리면서, 한 발 들어 이 산 저 산 푸른 산 한 발 디디니, 목마르면 물 마시고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는 말이 얼마나 참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참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물 한모금 떠마실 때,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 먹겠다 하고 계산하고 먹습니까? 무심으로 그냥 떠먹습니다. 그게 바로 참사람의 활용입니다. 여러분이 금을 가졌다면 그걸 얼른 내놓지 않지만 걸레를 빨아 쥐었다면 빨리 내던질 겁니다. 빨리 빨아서 얼른 짜서 얼른 놓습니다. 금을 가졌더라도 걸레 놓듯 빨리 짜서 빨리 놓으십시오. 신발 벗어 놓고 올라가듯…. 아시겠습니까? 금을 가졌다고 해서 이걸 소중히 생각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리인만 돼라는 얘깁니다. 착을 두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분수를 알고 살고 건너뛰지 못할 걸 건너뛰다가 개천에 빠지지 말고,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서서히 침착하게 산이 태산같이 이렇게 있으면 서서히 돌아가고,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에 채워 놓고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침착하게…, 어떠한 악조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안으로 굴리면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악조건도 자기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그 자기 주인공 한 점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악조건이 나온 것이지 딴 사람으로 인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 잘못했든 잘했든 자기가 있어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한번 안으로 굴려서 바로 다시 놓는 그런 그 침착한 마음, 그리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스스로서 수레바퀴 돌듯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도 없이….

이것이 참사람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라기보다도 참사람의 법을 알아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도 알 것이요, 한마디 한마디 해 놓으신 그 뜻을 바로 우린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현실의 용어로, 우리는 그때에 방편으로 쓰던 것을 현실의 방편으로써, 언어로써 이렇게 대치해서 그것을 서로에게 이득이 있고 공덕이 되게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조건의 그 구정물 핏물 고름물을 전부 한데 합쳐서 한데 새겨서 말갛게 만들어서 생수물을 해서 떠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한 방울의 생수가 아니라면 이건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에서의 사랑의 의미

문 불교에서는 착을 놓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속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족간의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지속해 나가야 하는지요? 길고 긴 인연의 굴레를 벗어나서 집착 없이 사랑을 하고 싶고 인륜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이 마음도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더 마음으로 음미해 가면서 자기의 뜻으로써 맛을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겉으로 항상 돌아가는, 기복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부처님의 속을 알 수가 없고 남의 속을 알 수가 없고, 하다못해 애들의 속도 모릅니다. 자기가 부부로 살면서도 자기 남편의 속을 모르고 자기 자식의 속을 몰라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이 돼봐 주는, 내가 자식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서 한번 안으로 굴려 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 보십시오. 또 남편이 어떻게 행동을 할 때, 내가 남편이 돼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굴림이 여러분 삶에서 생동력 있고 보람 있는 삶의 의지를,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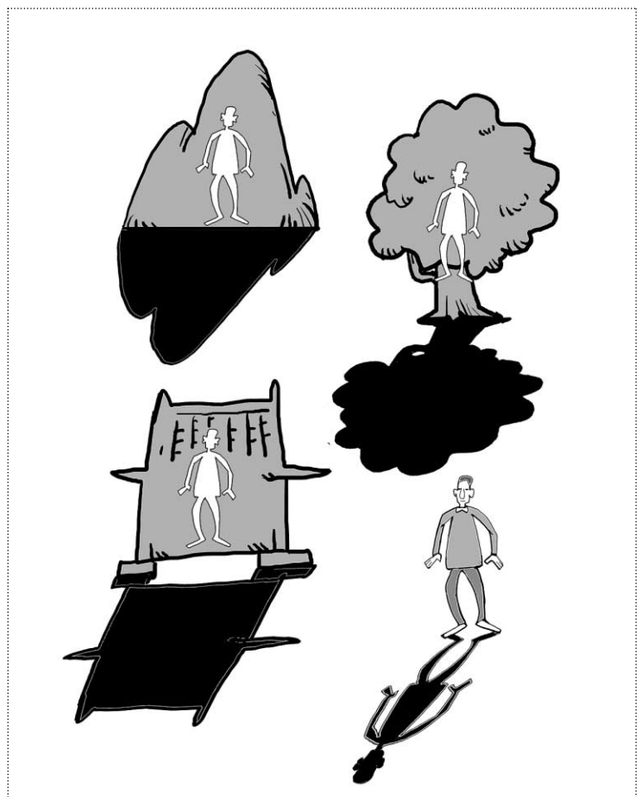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도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도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요. 이 마음의 굴림에 의해서 앞날이 펴지고 앞날이 밝아지지 마음으로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그 길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거죽으로 "애야, 너는 어떡하고 어떡하고 어떡하고…." 한다면 말만 많고 이거는 똑바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오히려 비뚤게 나가는 수가 100% 될 수가 있죠. 남편에게도 "이것을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하고 자꾸자꾸 그렇게 해 봤던들 그러면 오히려 번연히 알면서도 이것은 주장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괴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 햇빛이 따뜻하게 여름에 무덥게 아주 쨍쨍 쪼여 보십시오. 그러면 입었던 옷도 훨훨 벗어 버립니다, 원리가…. 그러나 아주 그냥 강하게 추위가 오고 모진 바람이 몰아닥칠 때는 반드시 옷을 덥게 입고 더 옹그리고 더 조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한 꺼풀 한 꺼풀을 벗어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유스럽게 뛰어놀지 못합니다. 자유스럽게 살 수도 없습니다. 속박돼 있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업보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팔자운명이 얼마나 세기에 이런가?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런가? 이러한 사념에 그냥 끄달리면서 그 암흑 같은 길을 걸어야만 했고 그 걸어가는 길이 자기의 밝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캄캄한 암흑길을 걸어가니 이 몸을 벗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낙향돼서 캄캄한 길을 또 걸어야 하는 그런 모임에 의해서 다시 인연이 돼서 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 하나에 우리가 세세생생에 얽혀서, 얼마나 그 삶에 의해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거기에 인연 뿌리가, 인과 뿌리가 얼마나 지독하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공부라고 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이 전부 공부니까 말입니다. 하나하나 뉘우치면서 하나하나 진화되면서 창조해 가면서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옮겨 가면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고정된 행도 없고, 고정된 말도 없고, 고정되게 먹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빈 그릇이 그저 일렁일렁 움죽거릴 뿐입니다.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도 없는 마음이 자기를 움죽거리고 갑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고 부모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니다. 그 마음이 선장이라면 바로 그 선장은 나침판을 놓고서 그냥 가곤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니 둘로 보지 말라.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보살이 아니니라. 깨우쳤다 하더라도 안으로 굴리지 않고 바깥으로 도는 자, 이 법문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느니라. 이 법문을 제대로 전달을 못함으로써 공덕은 하나도 없고 보살이 아니니라. 이 몸으로, 모습으로, 이 이름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이 모습과 이 이름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자식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부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일체 만물의 유생 무생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굴림 수가 없느니라. 제도할 수도 없느니라. 제도했다고 하느냐? 제도를 했다고 하지 말라. 둘이 본래 아니기에 제도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느니라. 그대로 마음으로 굴리면서 항상 따뜻한 마음을 내 주면 되느니라.

따뜻하게, 둘로 보지 않는 마음, 남이 아프면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내 준다면 그것이 바로 네 아픔과 둘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요, 진짜 들어가서는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이라는 것도 이름이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니라. 여래라는 것도 이름이요, 다 이름이니 그 이름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름 속에 소중한 것이 있느니라. 그 모습 속에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보림을 하면서, 항상 그 안으로 굴리면서, 거죽으로 나타내지 말고 경솔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남을 깔보지 말 것이며 벌레 하나를 본다 할지라도 너로 알아라. 저 꽃이파리 저 나무이파리, 무정물이나, 하다못해 돌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 법은 어렵고 힘든 것만 같아

문 저희 앞에 닥친 고난은 대해와 같아서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버티고 있어서 끊임없는 고해를 연상케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해결이 되는 방법들을 바깥으로 많이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방법들에 비해서 이 마음 법은 그렇게 쉽고 빠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저희 앞에 놓인 고를 녹이면서 깨달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을지 가르침 청하옵니다.

답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디게 가는 거고 그것은 절대 빠르게 가는 길이 못됩니다. 내 주인공은 내 보디가드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때에나, 즉 말하자면 아프거나 해서 관하면 의사로 찰나에 바뀌어지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하면 관세음이 되고 좋은 데로 가야겠다 하면 지장이 돼 주고 칠성부처가 돼 주고 지신이 돼 주고 용신이 돼 주고 허공신이 돼 주고, 별거 별거로 다 돼 줍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는데 뭐가 답답해서 바깥에 가서 묻고 다른 것이 있나 찾아보고,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데. 지금 바빠 죽겠어서 말을 하는데 얼른 자기한테 하는 게 제일 빠르지 나가서 하는 게 뭐가 빠릅니까?

말하자면 자기한테는 곧바로 그냥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찾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도 문제지만 올바로 나가는 게 못되고 또 빠른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와 내가, 나와 내가 항상 그렇게 제일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내가 더 빠르지 누가 더 빠릅니까? 그래 정히 답답하면 '야!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세 번 부르고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아귀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말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에 가다가도 하고 앉았다가도 하고 섰다가도 하고 뭐 누구하고 같이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그냥 재깍, 재빨리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빠른 거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깥으로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부처님의 직속, 즉 말하자면 통신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니면 제 삼자가 자기를 대신 해서 살아줄 리 없구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 아닌 자기를 꼭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통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다 해서 어디 나가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빠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다니면서 잘못된 거는 거기다가 관하시란 얘깁니다. 거기다 관하시면 그것이 슬금슬금 돌아서 돌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30면으로 계속

그대로 마음으로 굴리면서 항상 따뜻한 마음을 내주어야

☞29면에서 계속

스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스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스승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나를 견성해 가지고 참 보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도 처음엔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고 죽을 거라도 있었지만 그 후에 보니까 죽을 것도 없어서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큰스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면 죽습니까?" 하니까 "눈 뜨고 푹 자면 죽느니라." 했습니다. 어느 때에 또 그 스님께 뭘 여쭤봤느냐 하면 "스님께선 항상 성품의 작용, 보림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더 어려우니라. 바닷물을 다 삼켰으면 토할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토할 줄을 알았다면 바다의 파도 이는 것이 너의 성품의 작용임을 알아야 그것이 진짜 보배이면서 진짜 보림에 드는 길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됐고, 내가 경을 읽지 않았어도 그 스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해 주시는 거기에 경에 있는 그 일체 만법의 뜻이 다 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번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내가 말씀드리기를 "사람은 이 공부 할 때, 우리는 지금 성품의 작용을 하는 것이 몸 없는 몸으로서, 바로 손 없는 손으로, 발 없는 발로, 눈 없는 눈으로, 귀 없는 귀로 작용을 역력하고 활달하고 소소영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그 파도가 이는 것도 내 성품의 작용인 줄 알아라." 하는 것도 우리의 살림살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착을 두거나, 고정되게 이 생활을 착을 두고 하거나 이런다면 안 되겠으니 여러분한테 첫번에 모든 걸, 즉 말하자면 자기 근본처에 모든 것을 놔라. 근본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는 그것이 몸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혀도 있고, 몸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만 가지 천 가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용하는 것도 일체 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체 처에 다 놔라 이겁니다. 이게 승가에서 말씀하시는 보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기 생각에 스님네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깔보지 마십시오. 스님네들은 스님네들대로 첫번에, 일차적으로 벌써 물질적인 문제를 다 놨습니다. 입산할 때 버렸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린 깔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색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또는 그 모두를 다 떠나서 입산했을 때는 벌써 일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스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입산을 했겠습니까.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너무도 모르니까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하나 건질 것 없고, 하나 가질 것 없고, 하나 쓰잘데없고, 모든 게 변질돼 가고, 모든 게 망가지고, 모든 게 그렇게 하니 인생이 살기가 너무 허망해서 모든 겉, 물질적인 문제나 모든 작용을 다 버리고 떠났을 때는 벌써 한 단계는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이가 어리든, 모르든 스님은 스님네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도 여러분은 머리가 숙여질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돌고 울었던가. 얼마나 돌고 웃었던가. 내가 한발짝 한발짝 떼어놓는 것도 없는 것을….

일이 되도록 관하는 것이 기복 아닌지

문 스님께서는 항상 관하는 것과 비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는 관할 때마다 '주인공, 너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합니다. 이렇게 관하는 것이 비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답 근데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관한다 하지 마시구요, 이 마음이 진짜 저 나무들이 자기 지요. 물 깊이를 알고 들어갔다 나온 놈이라야 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물 깊이도 모르고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끌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십중팔구죠. 그러니 그 모든 길을 앞서가 본 사람의 튕겨 줌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 아닌 자기를 꼭 믿어야 하고 통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렇게 말을 마음으로 전달하려니,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이 좀 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하, 내가 나라고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럴 때 길잡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애들이 자라서 사춘기 때 어렵다 하죠? 그때나 똑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저께는 구할 놈이라도 있어서 구했는데 오늘은 구할 놈이 없을 때 그 보림하기가 더 어렵다 이겁니다. 안으로 굴려서 보림을 해야지 만약에 봤다, 알았다 이래 가지고 바깥으로 누설을 한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한 십몇 세 가면 사춘기가 돌아온다고 하죠. 그때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 붙잡아 올바로 저 길 없는 길로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때 참스승이 있어서 가끔씩 튕겨 줘야 하니까 그때 주장자가 참 필요하죠.

그때 주장자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몰락 다 놓을 때는 구할 놈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하여금 다 하게 할 수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을 알아 가지고는 구할 놈도 없어서 참 어려운 겁니다. 그때 은사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은사는 무슨 정해 놓은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을 정해 놓고 그 은사 스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의지하고 살듯이 해야만 합니다. 그런다면 친근한 맛이 있죠. 비가 오거나 이런다면 아이, 주인공 뿌리가 이게 비에 패이지나 않나. 또는 친근한 마음으로, 즉 말하자면 방황하고 못 믿는 게 아니라 싹이 뿌리를 의지하고 진짜로 죽든 살든 뿌리를 믿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안되든 되든 뿌리만이 길을 인도하고 지켜 주고 해결사가 돼 주고,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돼 주고, 또 아프면 의사가 돼 주고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말로만 해서는 그게 통신이 되질 않아요. 벌써 관하면 진짜로 의지하고 이렇게 진짜로, 내일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진짜 편안하게 여길 믿고 '굶기는 것도 너고 먹이는 것도 너다.' 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다 먹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진짜로 믿는다면 바로 즉시 통신이 돼요, 대뇌로.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뇌로 통신이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바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정수에 입력이 돼 버려요. 입력이 되면 입력된 대로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건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입력을 하면 또 앞서의 게 없어지면서 또 새 입력이 들어가서 또 현실로 나오고, 그렇게 미묘한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고, 우린 지금 이 몸이 한 철입니다. 한 철이고 한 찰나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진다 해서 나무 뿌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도리를 모른다면 그 바로 낙엽 떨어진 것이 자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슬프고 외롭고 허망하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게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봄이 오면 새 잎을 피우기 위한, 또 새 열매가 열려서 제 나무에서 실과가 무르익어서 맛을 보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몸만 가지고서 한 철 나기에 물질적으로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모든 걸 놓으면서 안으로 자기의 무변한 그 도리를 알고, 거기에 일체제불이 직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신다면 아마 너무나 즐거워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주인공 죽는 법 못 보셨죠? 영화에서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부처님이 끌고 다니는 여러분 몸뚱이를, 달구지를 고쳐서 끌고 가면 끌고 갔지 절대 중도에다 그냥 팽개쳐 버리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날까지 이렇게 하다가 아프지 않고 내가 이만하면 이제 됐다 했을 때, 옷 좀 새로 갈아 입어야겠다 했을 때, 그때 옷을 벗으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 도리를 모른다면…, 콩이 말입니다, 익지 않은 콩은 아무리 까려고 해도 속껍데기가 붙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을 까려면. 그러니까 3년씩 2년씩 이렇게 앓죠. 그게 속껍데기가 바짝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벗기기가 어렵죠. 그 벗기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와 같이 만약에 콩이 잘 익었다면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콩깍지가 탁 벗겨질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 자체가 자기인 줄 알고 모두 그저 겸손하고 평등하고 또는 부드럽게 말해 주지 못하고 그 태도와 행이 불순해서 항상 치유하기가 어렵고 또는 커버하기 어렵고 한마음 되기가 어렵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벼이삭 익듯이 자기를 모두 버린다면, 자기 하나를 다 놓는다면, 생명도 두렵지 않게 놓는다면 뭣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생을 살아나가는 데 한 철 왔다가 한 철 가는 겁니다. 모습은 한 철이요 마음은 영원한 겁니다. 마음의 차원은 영원한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리를 벗어나서 알고 본다면 살고 죽는 것도 없고 그대로 영원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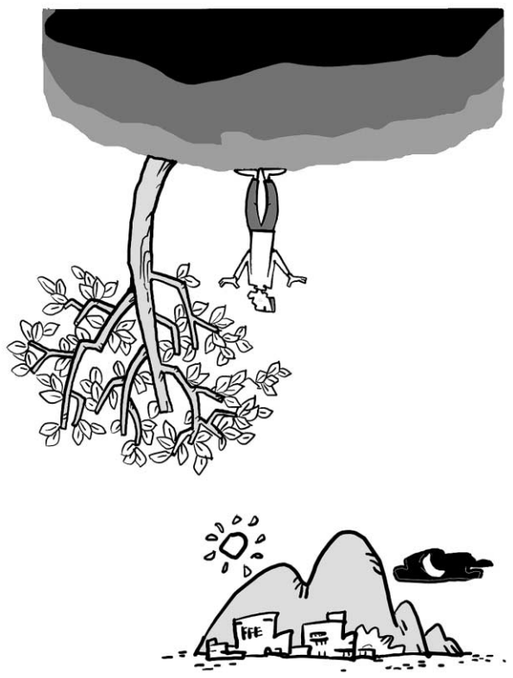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법요집·기초교리 集 괘도 재발간

첨단교육 매체가 다양한 오늘날에도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보조재료로는 칠판과 괘도를 활용하는 입체적 교수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름불교학교 담임법사님들께서 교보재로 활용 하시면 좋은 결실을 거두실 것입니다.
군법당, 경찰서 교도소 등 대중교리 교육이 필요한 곳에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전화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5. 사성제
10. 삼귀의 16. 사섭법
11. 삼법인 17. 십이인연
12. 삼업 18. 육바라밀
13. 삼학 19. 팔정도
14. 신도오계 20. 보왕삼매론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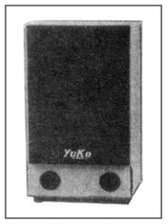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硏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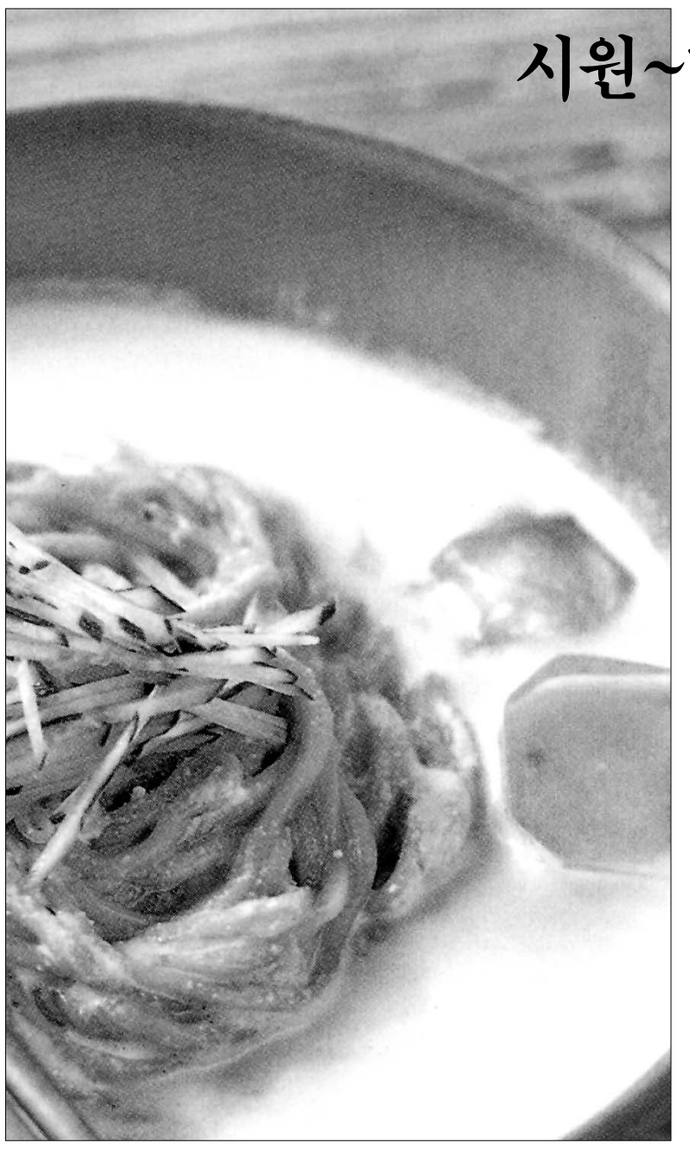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냉콩국수는 여름철 대표적 보양식인 삼계탕보다 몸에 더 좋은 여름철 영양식이다.

시원~한 콩국수에 노각 한접시

기운 난다 기운나

콩은 단백질 공급원…채소·장류 섭취 보양, 독소 중화

사찰 음식으로 더위 이겨내자

10년 만에 찾아왔다는 찜통더위는 사그라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이글거리는 볕에 취해 헉헉대는 사람들의 지친 낯빛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뜨거운 여름, 심신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도는 없는 것일까?

그 답을 불가의 음식전통에서 찾아보자. 일반적으로 더운 여름 '보양식'으로 삼계탕 등의 육류섭취가 권장되고 있지만 사찰음식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으로도 무더위를 이길 영양만점 건강보양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름에 사찰에서 별미로 올리는 '냉콩국수'가 바로 그 예다. 국수는 스님의 웃음 즉, '승소(僧笑)'라 부를 정도로 스님들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국수의 맛과 콩의 영양이 어우러진 콩국수는 사찰의 오랜 건강음식으로, 체내의 소화흡수 기능 및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는 한여름의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꼽힌다. 지방질과 당질, 칼로리는 제한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은 "노각(늙은오이)무침과 가지냉국 등도 여름철 보양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땀으로 소모되는 수분을 보충하고 체내에서 과도한 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이, 수박 등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더위를 먹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될 때 늙은 오이의 씨부분만 긁어내고 즙을 내어 마시면 증세가 금방 가라앉는다.

또한 여름은 식물이 영양분을 뿌리에 저장하는 시기가 아니고 아직 잎에 가지고 있는 기간이다. 따라서 상추나 시금치 등 제철 잎채소를 즐겨먹는 것도 좋다.

이들 채소들은 된장·고추장·간장 등의 장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선재 스님은 "발효된 장류에는 야채 내의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포함돼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제철 채소와 각종 장류를 함께 조리하면 보양과 함께 식중독 예방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음식에 기(氣)를 보하는 찰밥, 엉킨 피를 풀어주는 미역국 등이 더해진다면 여름철 최상의 건강 식단이 된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여름철 보양식

잣콩국수

잣½컵, 콩(대두)1컵, 국수(소면) 300g, 오이½개, 소금 약간

1 콩은 깨끗이 씻어 물에 4~5시간 정도 불린다. 오이는 깨끗이 씻어 곱게 채썬다.

2 냄비에 불린 콩과, 콩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을 붓고 끓인다. 끓어오르면 냄비 뚜껑을열고 한두 개 먹어보아 비린내가 나지 않으면 불을 끈다. 콩물이 넘치기 쉬우므로 뚜껑을 열고 삶는다. 삶은 콩은 찬물에 헹구면서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긴다. 믹서에 콩과 잣을 함께 넣고 물을 조금 부은 후 곱게 간다.

3 끓는 물에 국수를 넣어 삶는다. 끓어오르면 찬물을 붓고 한 번 더 끓어오르면 다시 찬물을 붓는다. 국수를 한두 가닥 건져 찬물에 넣었을 때 색이 투명하면 모두 건져 찬물에 헹궈 사리를 짓는다.

4 그릇에 국수를 담고 2의 잣콩물을 부은 후 그 위에 채썬 오이를 얹는다. 먹을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tip) 끓는 물에 콩을 넣고 다시 끓어오른 후 2분 이내에 콩을 건져야 고소한 맛이 난다.

노각무침

노각(늙은 오이) 500g, 소금 약간, 양념장(고추장 2큰술, 설탕½큰술, 식초 1큰술, 통깨 약간), 참기름 약간

1 노각은 껍질을 벗기고 씨 부분은 없앤 후 채썬 다음 소금을 뿌려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짠다.

2 고추장에 설탕, 식초, 통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노각을 양념장에 살살 버무린 후 참기름을 넣는다.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이론 뒤엔 실천이 따라야죠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3>

이혜산·서정래 부부



기도방에서 수행정진에 나선 이혜산(왼쪽)·서정래 부부.

'보현연꽃동산' 꾸려 결손 아이 5명 돌봐
불교대학 총학생회장 등 단체 활동 왕성

오갈 데 없는 '천진불'을 바라보는 중년부부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의 품속에서 빽빽 우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 둘 잡아끌었다. 내 집은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무리를 해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혈육의 정은 나누지 못했다 할지라도 5명의 꼬마 보살들에게 모자람없는 부모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울 불광동에서 '보현연꽃동산'을 꾸리고 있는 서정래(60)·이혜산(60) 부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부처님 품으로 거두기 위해 그룹홈을 만든 이들 부부는 3년째 아이들과 어우러져 지내고 있다. 장성한 두 딸을 시집보낸 후에 새롭게 맞는 인생의 시작이었다.

"어린이팀 포교사로 지내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커지더군요. 집과 사찰을 오가며 결손가정 아이들을 돌보다가 결국엔 직접 맡아 기르게 됐지요."

이혜산 보살은 손수 마련한 보현연꽃동산에 부처님을 모시고 예불 의식 등을 직접 집전한다. 아이들은 아침마다 오뚝이마냥 108배를 훌쩍 해치우고 밥상머리에선 공양게 암송에 신이 난다. 부처님 일대기 만화를 슈렉보다 더 좋아하고 일상에서도 반야심경을 흥얼대는 그들이다.

"불법은 먼 곳에서 펼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들 부부의 마음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녹아들었다.

이 보살 부부의 이 같은 보살행을 이끈 것은 불교대학이었다. 이들은 내외가 함께 조계사 불교대학을 함께 수료하고 대학원 과정도 내친김에 끝냈다. 불법공부에 매진하면 할수록 실천없는 이론은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슴에 들어찼기 때문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어온 부부의 구도열은 나날이 더해져, 최근에는 법련사 전문강당 과정을 밟기에 이르렀다. 특히 서 거사는 불교대학 총학생회장과 서울광역신도회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대외적 활동 또한 왕성하다.

그렇게 늘 같은 곳에서 함께 활동하는 부부지만 새벽 5시가 되면 이들의 행보가 엇갈린다. 이 보살은 목탁을 곱게 집어들고 기도방으로 향하고, 서 거사는 염주를 손목에 감고 북한산으로 향한다.

보살이 부처님 전에서 일념으로 경을 외는 동안, 거사는 부처바위 앞에 앉아 기도삼매에 빠진다. 복잡하고 바쁜 일과에 앞선 기도시간이 있어 하루를 여여하게 보낼 수 있다는 그들이다.

이런 부부가 최근에는 불교유치원 설립이란 원(願)을 세웠다. 불교적 가르침을 품고 자란 새싹 불자들의 밝은 미래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는 부부. 그들의 꿈이 현실화될 그날을 기다려 본다.

강신재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극락도·지옥도·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가능
▶ 입장료 무료
◆ 주위 명소 :
홍천온천, 천년고찰 수타사
● 찾아오시는 길
●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7월의 하늘이 너무도 맑아
가만히 바라봅니다
삶의 번뇌하나 가슴으로 남아
요즘 어려운 경제 관계로 힘드시죠?
다소 도움이 되어 보고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영험도량
퇴미승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맨발산책 준비운동 잊지 마세요

발가락 관절 풀어줘야
산책시간 10~30분 적당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내 맨발공원을 찾은 가족들의 모습. 사진=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맨발공원' 나들이 장소로 인기

인체의 모든 신경기관과 연결돼 인체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발. 최근 웰빙 열풍과 함께 발의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맨발공원'이 가족들의 산책공간이자 여름 나들이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온도나 자극에 민감한 맨발을 올록볼록한 자갈로 자극함으로서 건강은 물론 시원함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번 주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인근 공원과 도서관, 아파트 등지에 조성돼 있는 맨발공원을 찾아보자.

서울의 대표적인 맨발공원으로는 남산도서관 옆 맨발공원과 용산가족공원, 여의도공원 등지의 맨발 공원 등이 있다. 남산도서관 옆 맨발공원은 연못 옆에 자리잡아 지압은 물론 아이들이 신나게 물장구를 칠 수 있는 곳. 또한 보라매공원과 용산가족공원 맨발공원은 총 길이 155m의 서울에서 가장 긴 코스로 다양한 형태의 맨발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양재시민의 숲과 월드컵공원에 있는 맨발공원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족 나들이를 가기에 좋고, 천호동공원과 샛마을공원의 맨발공원들도 도심 속 자연의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아담한 휴식처이다.

단, 맨발산책을 하기 전에는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사이에 넣고 돌리며 관절을 풀어주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또 맨발산책 시간은 10~30여분이 적당하며 산책 후에는 발바닥을 충분히 마사지해주도록 한다.

맨발공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park.seoul.kr)에서 얻을 수 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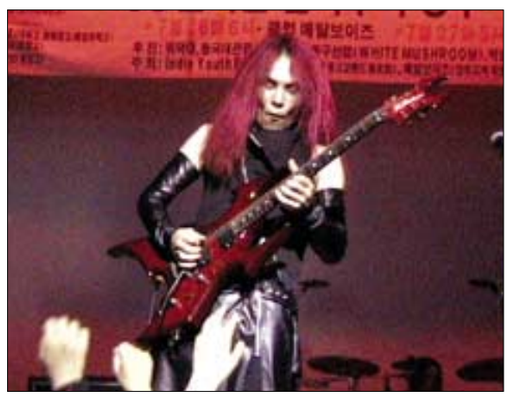
서울시 맨발공원이 있는 곳

공원별	위치	규모	세족장 유무
남산공원 (중구, 용산구)	장충단공원	80m	유
	남산도서관	108m	유
	남산야외식물원	108m	유
월드컵공원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 공원	30m	무
	난지천공원	138m	무
용산가족공원	용산구 용산동	155m	유
여의도공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세종대왕 동상	80m	무
	지당연못	40m	무
영등포공원 (영등포동)	영등포구	30m	무
보라매공원	동작구 대방동	155m	유
천호동공원	강동구 천호동	80m	유
샛마을공원	강동구 명일동	40m	무
양재 시민의 숲	서초구 양재동	120m	유

공연

산사서 명상과 록이 만났을때

육지장사 뮤직페스티벌, '블랙홀 · 베베 · 가이아' 출연


헤비메탈 '블랙홀' 공연모습.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가 영화제에 이어 또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한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국내최고의 록(rock)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명상과 함께하는 록 뮤직페스티벌' 특별수련회가 그것.

첫날에는 '블랙홀' '베베' '가이아' 등 록을 아는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지는 그룹들이 출연한다. 특히 국내 헤비 메탈을 대표하는 그룹인 '블랙홀'은 1985년 결성됐으며 89년 첫 앨범 '미라클(Miracle)'을 내놓은 뒤 지금까지 일곱 장의 정규 앨범과 다섯 장의 기획 앨범을 발표했다. 또 이들은 지금까지 1천회 이상 단독공연을 한 바 있으며 히트곡 '깊은 밤의 서정곡' 등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튿날에는 '블랙신드롬' '브리즈' '투'가 무대에 오른다. 복고풍과 하드록의 결합을 통해 강력한 사운드가 특징인 이 그룹들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고요한 산사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수련회에서는 불교전통예절과 수행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031)871-0101

영화보고 음악듣고 부처님과 만나요

서울 달마사, 7월 30일까지 영상축제 · 음악회

도심속 사찰의 작은 문화예술 축제. 서울 달마사(주지 미명)가 사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영상축제'와 30일 '작은 음악회'를 연다.

영상축제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마리 이야기(26일)과 오세암(27일), 상영된 한국영화 아홉 살 인생(28일), 어린신부(29일) 등이 상영된다. 또한 30일 펼쳐지는 작은 음악회는 MBC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곡 '오나라'를 부른 어린이 합창단과 LMB 싱어즈, 홍정민 밴드, 봉은사 무용단, 달마사 합창단 등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02)813-7425

박물관에서 배우는 한국불교미술

부산박물관, 9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좌

한국의 불교미술을 통틀어 조망할 수 있는 기회. 부산박물관(관장 박유성)은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2강좌씩 '한국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박물관대학을 개설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불교미술을 주제별로 꼼꼼히 훑어볼 수 있는 24개 강좌의 커리큘럼 등으로 진행된다.

개설 강좌로는 '한국의 불교미술' '삼국시대의 불상' '통일신라의 석조미술' '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 '통일신라시대의 서역미술' '고려시대 사경화' '조선최대의 왕실사찰-회암사' 등이 있다. 또한 강좌의 이해를 위해 불교미술의 문명대 동국대 교수, 불상의 김리나 홍익대 교수, 금속공예의 최응천 춘천박물관 관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선다.

특히 불교미술의 사상적 배경 이해를 위해 첫날에 김광철 동아대 교수의 '한국의 불교사상' 강의가 진행돼 관심을 모은다. 접수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051)624-6343~4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천연 연꽃 비누



고급 식물성 오일에 아로마 에센스 오일과 천연재료 등을 첨가해 만든 천연 연꽃 비누. 천연 연꽃비누 제조 중에 생기는 천연 보습제 글리세린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를 항상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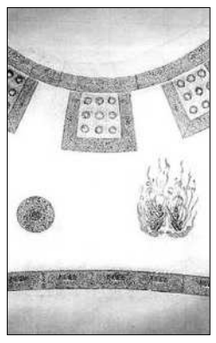
특히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아 알레르기나 민감성 피부에 좋다. 중량 : 100g, 가격: 개당 1만 5천원. 12개 세트 구입시 15만원. (02)732-1520

전시

하늘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

국립춘천박물관 | 9월 12일까지 범종 탁본전


국보 제36호 상원사종과 탁본모습.



불교 금속공예의 정화(精華)인 우리나라 범종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국립춘천박물관이 7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특별전 '하늘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 -한국의 범종 탁본전'을 개최한다.

전시회는 현존하는 범종 중 가장 오래된 강원도 평창의 상원사종(국보 제36호)을 비롯한 국내외 대표적인 범종의 탁본들과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범종의 탁본 등 총 170여점이 전시된다. 또한 기획 1전시실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범종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범종 소리를 들으며 살펴볼 수 있고, 기획 2전시실에서는 여래상, 보살상, 당좌, 비천상 등 범종의 장식문양을 테마별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의 유점사종을 비롯한 실물 범종 4점 전시와 함께 범종 주조과정을 기록한 영상물을 상영해 범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033)260-1525

멋진 연꽃사진 응모해볼까

대원사, 9월 19일까지 108연꽃 사진 공모전

연꽃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 '제1회 108연꽃 전국사진 공모전'이 보성 대원사 주최로 9월 19일까지 열린다.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꽃의 자태를 사진예술로 승화시키고자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연꽃을 소재(수련 제외)로 하는 흑백 및 컬러 사진이면 모두 응모 할 수 있다. 시상자에게는 대상 1점 100만원과 최우수상 2점 50만원, 우수상 5점 20만원 등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연꽃사진집과 달력, 엽서 등으로 제작돼 일반인에게 보급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8월말까지 연꽃축제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또 토 · 일요일 사찰 참배객들에게는 녹차국수, 연 칼국수 등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 (061)852-1755

극장가



아이, 로봇 / 스릴러, 액션 / 110분
개봉예정일: 7월 29일
감독: 알렉스 프로야스
출연: 윌 스미스, 브리짓 모나한, 브루스 그린우드 등
등급: 12세 이상

21년 뒤 미래를 배경으로 로봇과 인간의 대립을 그렸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로봇이 어느 순간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설정은 진부하지만, 화려한 특수효과는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반헬싱 / 액션, 판타지 / 120분
개봉예정일: 7월 30일
감독: 스티븐 소머즈
출연: 휴 잭맨, 케이트 베킨세일, 리차드 록스버그 등
등급: 15세 이상



드라큘라를 주인공으로 했던 여느 영화와 달리 이 영화는 드라큘라를 처치하려는 반헬싱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악을 물리치는 사제이지만 살인자라는 비난 속에 자신을 숨기며 묵묵히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반헬싱. 그의 이야기가 화려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스크린 속에 펼쳐진다.

게시판

공부합시다

49일 참회산림법회 보성 대원사는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49일 참회산림법회'를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대원사 주지 현장 스님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제로 법문을 한다. (061)852-1755

불교교양강좌 불광교육원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여름방학특강 불교교양강좌를 진행한다. 현대과학과 미래학 등에서 보는 불교와 불교에서 보는 행복의 법칙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02)417-2551

함께 해요

청소년 봉사캠프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이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주 '보라의 집'에서 청소년 봉사캠프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중 · 고등학생에 한에. (02)571-2988

전문교육 노인강사 모셔요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2회 관내에서 서예, 한글, 외국어, 취미교양 등 전문교육을 담당할 60세이상 어르신들을 30여명 모집한다. (02)466-6242

우주비행사 체험 우주과학교육센터 스페이스스쿨이 'NASA 우주비행사캠프'를 8월 4일부터 6일까지 서당골 리조트에서 연다. 캠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주왕복선을 발사부터 귀환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는 모의 비행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17만원. (02)3477-0933

초등생 튼튼이 교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가평군에서 비만이 있거나 편식 교정이 필요한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튼튼이 캠프를 연다. 캠프는 체지방 측정과 다양한 운동법 소개, 식습관 지도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5만 3천원. (02)399-9439

드림파크 환경캠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무료 환경체험학습 캠프를 개최한다. (032)561-3547

무료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7월 31일까지 40세 이상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갑 이상 · 10년 이상 흡연자와 폐암관련 소견이 있는 사람은 흉부 X-레이, 위장조영촬영 등 1차 검진을 받을 수 있다. (02)921-0405

내손으로 옷 만들기 남원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내 손으로 옷 만들기' 행사를 연다. 행사는 선착순 12명을 대상으로 바지와 저고리, 조끼 등 전통의상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15만원. (063)636-3776

무료영화상영(사진)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이 7월 31일 오후 4시 관내에서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무료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 (051)868-0750



청소년 차문화교실 자비신행회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초 ·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차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차문화교실'을 진행한다. 참가비 1만원. (062)234-2732

'홀리분교에 새 옷을'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울시 가족들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홀리분교에서 가족자원봉사캠프 '홀리분교에 새 옷을 입혀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홀리분교 주변정리 및 페인트칠하기 등과 가족관계증진 강좌, 모래성 콘테스트 등 가족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831-2755

즐겁게 떠나요

경주 다시보기(사진)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신라 천년고도의 역사도시 경주로 문화답사를 떠난다. 답사는 천마총,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의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며, 신라인의 얼과 정신을 느끼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성인 10만 5천원, 어린이 9만 5천원. (02)725-1284



20면 상식 퍼즐 정답

불	두	화		오		
립		교	상	판	석	
문			여		굴	
자	반				암	자
	투		검			포
	명	경	지	수		자
		사		여	행	기